
원각사지10층석탑

현대불교

우리문화재 ▶7면 hyunbulnews.com 안내 (02)2004-8200 구독 (02)2004-8212 제860호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음력 10월 7일 · 불기 2555년 · 주간)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명료하건만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마음을 구할 수 있다면
깨침도 손바닥 뒤집듯 쉽습니다.
범어사 선덕 대정 스님





포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조계종 제23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 79)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무산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그동안 만해축전에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을 거명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아 부끄럽다. 지금까지 만해축전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수성 前 국무총리, 시조인들, 신흥사 본말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수상의 공덕을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이날 이사장으로 있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수상한 대원상 수상금과 포교대상 수상금을 포함한 2000만원을 논산육군훈련소 신축법당 기금으로 기부했다.

관련기사 16 · 17면

글=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교구제 이제 바꿀 때

지역불교를 활성화하고 각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며 현실 타당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반박도 거셌다.

법안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월 26일 열린 한국불교중흥 대토론회에서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현행 교구제는 지자체 행정단위와 일치하지 않아 도심 포교 공동화 등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현행 교구제의 대안으로 교구법 신설과 광역자치단체의 교구 신설, 말사 100개 기준의 교구 분구제 도입, 교구종회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교구 자치제를 강화해 교구 관할권을 확립하고 도심 포교도 활성화 하자는 주장이다.

객석에 있던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현행 교구제 정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현응 스님은 "70년대 초에 150개도 안 되던 지자체들이 지금은 23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자체에 일대일로 대응을 해야함에도 종단의 교구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도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 모두 실시해야 한다. 종단이 이것을 놓치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대응할 방안이 없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답이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스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법제 개정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도 그래서 지역포교 거점 도량을 추진하셨다. 여러 현실상 이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또 "분구의 경우도 사격과 행정단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거점 사찰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기획실장도 "교구문제는 스님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재가자 입장에서는 사찰현황을 조사한 정확한 기초자료 확립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7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860호 CONTENTS

종합 2
조계종 내년 예산 221억원
씻을 수 없는 상처 10 · 27
자승 스님, 세계 향해 평화 연설

기획 · 인터뷰 3 · 5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혜원 스님(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현장속으로 11
조계사 교리경진 대회



봉은사 3000배 철야정진 13



국내외 석학 모여 불교역할 말한다

원각불교사상硏, 11월 12~13일 금강대서 국제학술회의

국내외 석학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1월 12~13일 금강대에서 '미래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상월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는 12일 오전 10시 금강대 대강당에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다. 이어 권기종 원각사상연구원장이 '미래세계의 종교와 원각사상'을, 美 스탠포드대 폴 해리슨 교수가 '미래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두 섹션으로 나뉘어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제1섹션은 '종교는 미래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2섹션은 '사회갈등의 조정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튿날 9시 40분 시작되는 제3섹션은 '다문화시대 종교간의 화합' 제4섹션은 '과학시대의 불교' 제5섹션은 '과학시대의 불교' 제6섹션은 '미래사회와 원각사상'을 주제로 열린다.

발표자로는 김용표 · 황순일 동국대 교수, 윤원철 서울대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 국내학자와 아상가 티라카라트네(스리랑카 콜롬보대), 레오나드 스위들러(美 템플대),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등 해외학자 30여 명이 나선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 권기종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뜻을 기리는 행사이다. 종교인들에게 의미있는 물음을 던져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따져보자 '팔경계' 알아보자 '부동주'

5일 오후 1시 동국대서

10월 17일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장에 운집한 1500여 비구니 스님. 종단 참여에 대한 열망과 달라진 비구니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이런 비구니스님들의 열망과는 달리 스님들은 항상 '비구니 팔경법'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비구니 팔경법과 교단 화합을 우선시한 부동주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과 일본에서 불교를 공부한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일불교유학생 교류회는 11월 5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가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이 '비구니 팔경법에 관한 고찰'을,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율장에 나타난 부동주에 관하여'를 주제발표 한다. 주제발표 토론자로는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前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 등이 참가한다.

종합토론에는 교계 원로인 원두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장), 혜남 스님(통도사 율원장), 이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와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이들은 비구니 부총무원장제도 신설 제안 등비구니 위상 재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쏟아낼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사고

도반을 모십니다

불교계 최고 전문지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이 신심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의 정법을 통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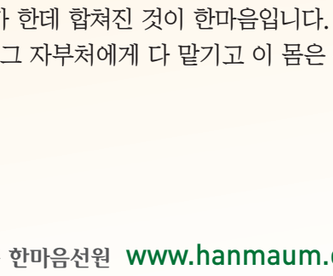
	모집부문	전공분야	모집인원	근무지역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	취재기자(신입 · 경력) 편집기자(경력)	전공 제한없음	0명	서울
지원자격	가. 2012년 2월 4년제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단, 해외소재 대학의 경우 기졸업자에 한함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불교 · 일반상식) 다. 면접			
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다. 포트폴리오(경력자에 한함)			
기타사항	가. 10월 26일~11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 (formula666@paran.com) 나. 홈페이지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참조			

특별기획 종교간 평화…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화합과 상생을 강조하지만 그 이전에 중도를 설했다. 화합과 상생에도 경도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갈등은 평화를 깨는 악이기만 하지 않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의 종교평화선언 초안이 발표된 8월 이후, 불교에서 말하는 평화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계율학 권위자 이자랑 박사(일본 동경대)와 마성 스님(빨리문헌연구소장)을 지면에 초대해 '불교와 평화'를 주제로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관련기사 9 · 15면





2012학년도 대학입시생 가족을 위하여



걱정하는 '나'를 내려놓는 대행스님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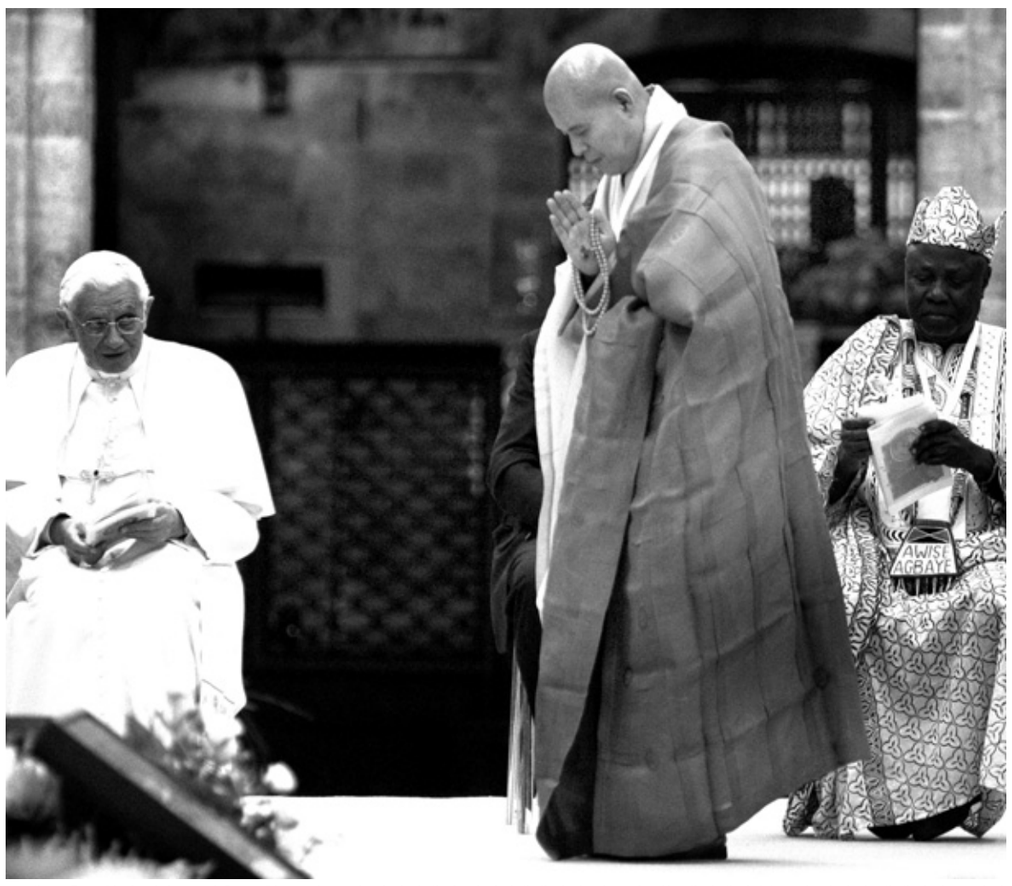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할 때 닥쳐오는 일들에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도 생각지 말고 닥쳐올 미래도 생각지 마시고, 남의 소리 듣고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지도 마십시오. 참으로 자기 근본을 믿는 마음은 '나'라는 것을 녹여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 '나'라는 것은 이런 저런 것을 걱정하고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자기에 대해 고정되게 생각하여 스스로 한정짓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自佛)이 하는 거다' 하고 관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중심, 즉 자불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으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음은 어떠한 개별적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한데 합쳐진 것이 한마음입니다. 그 한마음을 일러서 여러분을 형성한 근본, 자불(自佛)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부처에게 다 맡기고 이 몸은 부지런히 뛰는 그런 패기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5대 결사 지구촌 함께 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7일 로마 아시시에서 열린 '세계평화 기도의 날' 행사에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초연결(hyper-connection)의 시대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 · 문화 · 나눔 · 수행 · 결사를 세계종교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AP연합통신

세계평화기도회 연설문

먼저,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교황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 아씨시에 세계의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뜻 깊은 만남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애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첨단정보통신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서로 간의 소통과 연결이 신속히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 연결의 파급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널리 확산되는 초연결(hyper-connection)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남은 별개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습니다. 일찍이 불교는 연기적 세계관을 통해 이런 진리를 간파했습니다.

온 세상에 다양한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나'라는 꽃과 '너'라는 꽃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나와 너 제 각각 소중한 생명의 꽃을 한껏 피워 자기 발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엄한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있는 그대로 존귀합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폭력과 테러는 종교의 생명존중 정신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나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한 생명결사를 주창합니다.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 공존과 상호존중을 통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평화결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문화의 충돌을 배움과 상생으로 승화하여 정신문화를 다함께 창달하기 위해 문화결사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빈곤과 기아,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나눔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신 수행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온전하며 하나의 꽃처럼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몸소 체득하여 각자의 삶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수행결사를 함께 실천해 가기를 제안합니다.

친애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조계종은 종교평화 선언을 통하여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 받고 소외된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구촌 곳곳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고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2012년 조계종 예산 3억원 늘어

승려복지 · 승려교육 등 핵심주요과제 중심 편성

조계종의 내년도 한 해 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났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기256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억 1500만원(1.45%) 늘어난 221억5천 678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7억7351만원(83.2%) 늘어난 193억1453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는 중앙분담금이 10% 인상됐다. 직할분담금은 직할사설사암의 분담금을 상향조정한 결과 8.6% 늘어났다. 또, 특별분담금 0.9% 늘었고, 문화재관람료분담금은 양양 낙산사가 내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돼 1.5%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직영분담금은 동결되고, 법인분담금은 관계법령이 계류중인 것을 감안해 13% 줄였다.

특히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던 사찰협찬금과 기업후원금 등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재고했다.

세출에서는 중앙종회 위원회들의 예산은 줄이는 대신 제33대 집행부의 핵심주요과제와 결사 관련 업무를 지원키 위한 부서의 지출규모는 늘렸다.

승려노후복지와 한국불교 세계화, 사회적 공동선 실현, 승가교육체계 정비 및 승가교육 개선 등 핵심과제와 해외교구 설립 및 체계적 관리, 통합종무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과제에 따른 예산배정 외에도 2012년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등이 배정됐다.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결사추진본부에는 7억원, 불교사회연구소에는 3억원의 예산이 짜여졌다.

특별회계 증가분은 승가교육 13억원, 승려복지 30억원, 템플스테이 사업 관련 종단 자부담 증가분 13억원,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 1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나눔 · 환경 · 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은 10월 25일 서울 다보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매겨 기본사업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돕기, 환경문제, 청소년의 사회활동 역량 배려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조동섭 기자

10 · 27법난 아직도 풀어야 할 것 많다

10 · 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정부 측 인사는 불참해

10 · 27법난 발생 31주년을 맞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불교계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6일 국무총리 소속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 · 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영담 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등 법난 피해자 스님들과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10 · 27법난을 기념하는 것은 그 치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정법수호의 일념으로 더욱 정진해 지난날 아픔이 불교발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영담 스님은 "법난 기념관 건립 관련 정부 예산 확정, 법난 명예회복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피해신청 증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한국불교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훼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법회에서 법난 피해자 대표로 연단에 선 원행 스님은 "정부는 종단에 부정적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해야 한다"며 "법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단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법회에 정부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로마 교황청 세계종교지도자모임 행사로 인해 출국한 상태였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10 · 27법난의 피해자 혜성 스님 대법원서 패소… "시효 소멸됐다"

반인도주의 범죄는 공소시효 없다는 판결 뒤집혀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이 10 · 27법난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0월 27일 상고심을 열어 혜성 스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소멸됐다는 6월 서울고법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판결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마애불 더 없다

조계종, 발굴 종료 발표

4대강(낙동강) 사업 구간 중 경북 의성군 생송리 낙단보 주변에서 진행된 제2마애불 발굴조사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은 "5월과 9월 두차례의 조사를 통해 낙단보 제2마애불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했지만 마애불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마애불이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낙단보 인근에서 고려시대 마애불이 발견된 데 이어 그 근처에 또 다른 마애불이 있었다는 주민 증언을 근거로 이를 위한 발굴조사를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박구원 만평



八關會 호국불교 의식 재현
2011 전통문화
팔관회
www.bba.or.kr
2011. 11. 5.(토) ~ 6.(일) 2일간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문화회관
11월 5일(토) 09시 ※행사종료 후 경품추첨
제3회 부산시민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11월 6일(일) 13시
고려팔관회 재현 및 수계법회
불교연합회 : 867-0501 불교연합신도회 : 861-8800
※행사 후 "팔관회"소원성취 발원 『약사여래본원경』을 인연 불자 1,000여명에게 법보시 합니다.
•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체험
11월 6일(일) 10:00 ~ 18:00
고려의상체험, 경전탁본체험, 연꽃만들기, 컵연등만들기, 단주만들기, 팔관회재현 "닥종이인형"전시, 전통사진전, 전통차나눔, 전래놀이한마당, 버튼만들기, 팽이만들기 등 30여 무료체험부스 운영.
• 팔관회 축하공연 1부 "우리가락 한마당"
11월 6일(일) 17:00 ~ 18:00 판소리, 민요, 퓨전국악, 타악퍼포먼스
• 팔관회 축하공연 2부 인기가수 초청공연
11월 6일(일) 18:00 ~ 19:20 설운도, 장윤정, 박일준 등

佛心 만큼 공약 실천의지도 큰 사람 되소서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가 내세웠던 불교 공약에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가 후보자 시절에 밝힌 불교 관련 공약을 통해 박 당선자의 당선으로 불교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해 본다.

박원순 당선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53.4%의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함께 경쟁을 펼쳤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46.2%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8.6%로 집계됐다.

박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서울 시민의 승리다. 시민은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 상식과 원칙이 이겼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닌 서울시 일원으로서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원순 당선자는 26일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당선자는 이후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종일관 나경원 후보에 앞서면서 여유 있게 승리를 확정지었다.

박원순 당선자는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당선자는 고교시절 불광사 광덕 스님이 설립한 룸비니 학생회에서 활동했고, 봉은사에서 신도회 지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2006년과 2009년에는 각각 만해대상과 불교인권상도 수상했다. 이런 인연으로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원순 당선자는 언젠가 생각을 정리할 일이 있어서 도법 스님에게 방을 하나 구해 달라고 청한 바 있다. 이때 도법 스님은 귀정사(歸政寺)라는 절을 소개해줬다. 정치에 돌아간다는 의미의 절을 소개받고 박 당선자는 '이것이 운명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시정운영 교계 의견 청취

박원순 당선자가 발표한 불교 관련 공약은 조계사가 포함된 전통문화역사 마을 지정과 서울시 불교문화재에 대한 방재 시스템 구축 및 복원 지원 등이다. 또한 연등행사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현

공평무사한 시정 공약한 만큼
불교계서는 상생하는 시장 기대

정부의 사회갈등을 소통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운영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각해졌다며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발표한 '종교평화선언' 에 주목했다.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평화선언을 발표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 활동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 당선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공평무사한 시정을 펼치면 종교간 갈등 유발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종교화합과 소통을 위해 종교계에 식견이 있는 인사를 시장 직속으로 배치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서울시장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종교 편향 문제는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4일 조계사가 마련한 '서울시장 후보자 간담회' 에 참석한 남윤인숙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장시간 설명했다.

불교계 역할도 기대

박원순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전통사찰과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해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 사찰과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시장에 당선되면 불교계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를 위해 조계사가 포함된 삼청동 가회동 인사동 청계천 등을 한국의 전통문화 축으로 연결, 전통문화역사 마을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당선자는 불교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목탁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아프다는 말씀이 있다.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불교 정신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종교 전문가의 시장 직속 배치 등
종교편향 방지 정교분리 강조하길

불교계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그는 또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서울시가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대불청 "새로운 공직자상 기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불교계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0월 27일 논평을 내고 축하와 기대를 나타냈다.

대불청은 이번 선거가 한국 사회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매우 위험스러운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대학생 등록금,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계급 · 계층 갈등이 표출됐고, 일부 개신교 집단의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공개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 화합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마음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약자와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불청은 공명정대한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 민족전통문화 유산 보호 및 진흥,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소통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시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박원순 당선자에게 보내는 불교계 메시지

박원순 후보의 당선과 함께 불교계 다양한 인사들의 바람과 기대를 들어봤다. 불자들은 불교와 서울시가 함께 공생발전하기를 희망했다.

복지사회 이끌어 갈 시정 기대

법현 스님 태고종 前 부원장



우리 것을 아끼는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 것에 애정을 많이 가진 박원순 후보의 서울 시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 상태의 안정을 바라는 표심보다는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인 상태에서의 안정적 삶을 희구하는 40대의 민심이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 금번 보궐선거의 계기가 된 복지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교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의지를 북돋우는 제도적 개선과 처우를 통해 질높은 복지사회를 이끌어 가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50~60대 지지자의 마음을 살펴 복지에 쓰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복지의 끝점에 문화가 있으며 한반도의 문화생활을 이끌어 온 것은 불교, 유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다.

전통불교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아끼고 계승 발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기 바란다.

반대했던 사람들과도 함께하길

서울 정향사 정완 스님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인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분노한 사람들(Los Indignados)' 은 2011년 10월 26일 대한민국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앞서 말한 재스민 혁명이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서구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생각의 차이가 점점 격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정당정치에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와 각 정당의 지지기반 자체의 이반 심리는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는 전 세계적 요구가 한국 사회에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단 한 가지이다.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지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늘 눈과 귀를 열어서 다 같이 함께 걸어가자고.

두루두루 치우침 없는 시정을

최용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축하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무소속 서울시장 탄생신화를 일구어내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오직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보시절 내건 공약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선행기언(先行其言). 약속이행은 신뢰의 기본이고 위정의 기본 덕목입니다.

수도 서울은 오랜 역사가 숨쉬는 곳이며 세계인의 수도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새로운 개발, 선진화를 내세운 도시건설도 좋습니다만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꾼 자존심 있는 도시는 더더욱 좋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이 불교유산이고 타종교 유적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천년 고찰은 유적 그대로 영성체험지가 되고 정신문화 부흥에 한층 다가설 세계적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주이불비(周而不比). 두루두루 치우침 없는 시정 펼치시기 바랍니다.



일 주 문



백양사 백암산 단풍축제

장성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11월 5~6일 백양사 일원에서 2011 백암산 백양사 단풍축제 '추야몽'을 개최한다. (061)392-7502



조계사 미얀마 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1월 15~21일 조계사 나눔프로그램 일환으로 미얀마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3



해인사 평화대장경 특별전시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1월 6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남북공동조성 평화대장경을 특별 전시한다. (055)934-3000

개안사 주지 혜오 스님, 호법부장 서리 임명



前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이 호법부장 서리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혜오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혜오 스님에 대한 임명은 11월 중앙종회 임명 동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호법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니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님은 또 전임 호법부장 상운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한 인수인계를 당부했다.

혜오 스님은 "호법부는 종법에 따라 승가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혜오 스님은 1980년 백정사에서 청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생사 주지와 총무원 호법국장,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개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경우 스님, 종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조계종 고창 선운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경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신임 중앙종회의원 경우 스님은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우 스님은 만일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호법국장, 사서실장 등을 엮임했으며 현재 장경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활·대중불교 본격 연구할 터

전승원 개관 기념 밀교국제학술회의 연 회당학회장 지성 정사



"현교(顯教)의 발전과 밀교의 발전이 균형있게 진행될 때가 불교가 중흥하는 때입니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 새 청사인 진각문화전승원 개관을 앞두고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지성 정사)는 10월 27일 종도들의 화합과 밀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밀교문화와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지성 정사는 불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다양한 실천을 강조했다.

지정 정사는 "밀교는 토속신앙과 불교와 접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밀교적 경향은 모든 종교에 녹아있다"며 "생활불교·대중불교를 지향하는 진각종 종지를 널리 펴기 위해 보다 활발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당학회는 2002년 진각성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총인원에서 '세계밀교의식 시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진각문화전승원은 서울 월곡동 총인원 자리(5700여평)에 120억 원(종단 출연금 60억원, 국고 지원 60억원)을 투입해 지어지고 있다. 전승원은 포교와 자선, 복지, 문화가 어우러지는 종합 종교타운으로 건립돼 10월경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주변 민원 발생과 사용허가 문제, 내부단장으로 인해 개원이 내년 말로 연기된 상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밀교문화와 현대사회'를 주제로 회당학회 전 학회장 효운 정사가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한금과 중국 섬서성불교협회 부회장, 나레쉬만 네팔 트리뷰반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성 정사는 "전승원은 밀교문화와 함께 불교문화 중흥의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승원 개원에 발맞춰 밀교수행프로그램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준비하겠다. 밀교문화 발전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교와 밀교

현교(顯教)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며 밀교(密教)는 비밀스런 가르침을 의미한다.

현교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을 대중에게 숨김없이 공개해 특별한 제자가 아닌 누구라도 배울 수 있게 하는 종교로 일반적 의미의 불교가 현교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밀교는 비밀의 교의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하는 종교다. 즉,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은밀한 전달을 통해 이어 나가는 종교다. 밀교의 목표는 살아있는 몸 그대로 성불하는데 있다.

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신비주의와 주술인데 경전 구절이나 불보살도, 문자 등을 응용한다. 옴마니반메훔과 같은 다라니가 유명하다. 일본은 정통밀교인 진언종 교파가 크게 발전해왔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제주 관음사 신임 주지 성효 스님

10월 26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당선



조계종 제주 관음사 주지에 성효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조계종 23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6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후보자간 단일화 합의로 입후보한 3명의 후보자들이 사퇴함에 따라 산중총회법에 의거해 만장일치로 진행됐다.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2년과 1987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14·15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환경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 재정국장과 문화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14대 종회의원 초선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제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관음사 부주지와 용인 용덕사 주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전인 대사에 명예박사

중국불교협회장으로 천태종 교류 공헌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중국불교협회장 전인(傳印)대사에게 오는 10월 31일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전인 대사는 중국불교협회장으로서 한중 불교우호교류와 증진에 기여했고, 교육 종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전인 대사는 1927년 1월 30일 태어나 1947년 불교에 귀의해 1954년 강시성 용수현의 진여사에서 허운 대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65년 중국불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북경불교협회장, 북경시정치협상회의 제9·10·11차 상무위원을 지냈고, 현재 중국불학원장, 중국불교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1986년 〈인도불교예술〉, 〈아소카왕과 불교〉 등을 시작으로 특히 천태종과 관련한 논문 및 저서 〈천태사교송략서〉, 〈천태육즉불의〉 등을 저술해 천태종의 법맥을 이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와 정보보안 인재양성 MOU 체결

동국대(총장 김희옥)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회장 이득춘)가 정보보안산업 분야 발전과 전문 인재양성에 힘을 합친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이득춘 회장은 10월 26일 동국대 본관에서 상호협약식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정보보안산업의 균형발전 및 확산 촉진 ▷산학맞춤형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정보보안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근 정보보안과 관련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우리나라 정보보안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김희옥 동국대 총장(좌측)과 이득춘 정보보안 산업협회 회장이 MOU를 체결했다.

제5회 만해예술제 성료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옥)는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은 공동으로 10월 21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제5회 만해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만해예술제는 만해 스님의 발자취에 대한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장덕 스님의 법고무, 동방대학원대학 재학생과 시인들의 만해 시 낭송, 동방대학원대학 문화교육원 한주연 교수의 살풀이 춤 등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동방대학원대학은 2007년부터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 스님의 기일에 맞춰 '만해다례재'도 봉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학생회 선센터 건립기금 1000만원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불교문화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안도 스님(부산 반야원 주지)이 10월 25일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에게 선센터 건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도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경주캠퍼스 선센터가 하루 속히 건립돼 불교문화와 우리 대학의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내 정각원 옆에 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선센터에는 지난 8월에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이 인도 다람살라 의료봉사 당시 달라이라마로부터 전해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선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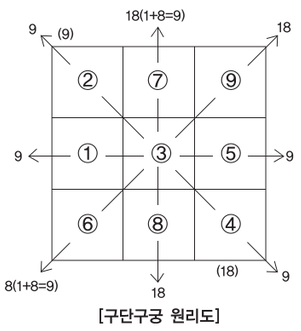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자기 주처에다 모든 것 맡기면 사는 데 걱정없어요”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인터뷰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그때그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 내 근본자리에 입력하라. 거기 외에는 해결할 곳이 없으니 그냥 딱 맡겨놓고 지켜보라. 그것이 관하는 것이다.”(대행 스님 법어 中)

생활 속 참선수행을 강조하는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1 한마음음악제’를 개최한다.

한마음선원은 이같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선원장 대행 스님의 가르침인, 마음의 근본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주의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속에 그같은 진리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의 길을 함께 깨쳐감으로써 지구가 지켜지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그러한 공생의 길을 더불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한마음선원에서 합창제를 개최하는 뜻이다.

행사에는 국내·외 20여 지원의 스님 100명, 국외 지원신도 120명, 어린이 120명, 청년 150명, 거사·보살 750명 등 13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무대에 오른다.

행사를 앞두고 10월 23일 안양 본원에 주석하는 주지 혜원 스님을 만났다. 혜원 스님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내서 정성스럽게 임하면 세계가 밝아지고 지구도 밝아진다. 모든 경계를 주인공 자리를 믿고 그곳에 맡기고 놓고 가라”고 시종일관 강조했다. 다음은 주지 스님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한마음음악제가 갖는 의미는?

은사스님이신 대행 스님께서는 합창제든 부처님오신날 행사든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깊은 마음의 뜻을 담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그 뜻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써 행사를 치르게 하시죠.

요새 전 세계·지구적으로 세상이 흉흉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한마음음악제는 일체 우주 안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앙청(仰請)하는 겁니다. 다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합창제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합창제라고 이름하셨으니 그 뜻이 엄청 깊은 거죠.

– 한마음을 강조하시는데 한마음이란 무엇인지?

우주를 생성시킨 근본 에너지인 불성자리를 한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와 내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 다 한마음입니다. 벌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얘네들도 다 생명이 있으니 살잖아요? 그러니 풀뿌리 생명까지도 전부다 한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얘네도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어요. 뱃속의 태아도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마음이죠.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 크고도 크지만 크다고 말 붙일 자리도 없을 만큼 꽉 찬 자리에요.

– 대행 스님이 이번 음악제를 위해 내린 법어 “잘해서 하늘로 뜨라! 전체에 빠지지 말고 해라! 꾀부리지 말라!”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주지 스님의 견해는?

무엇이든지 정성을 들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대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장엄등을 만들어 연등 축제에 나갈 때도 이 등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질 것이다. 나라도, 세계도 좋아지고 사람마다 그 등을 보면 환희심을 갖고 마음의 불을 켜게 되니 좋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내서 모든 일에 정성을 들여 일에 임하라는 것이죠.

– 종교 활동을 통해 고통을 없앤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네요.

한 며느리가 고부간 갈등이 심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보살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겠어요? 보살님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공손히 하면서 소원 빌죠? 시어머니한테 가서 최선을 다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된장찌개 하나라도 정성껏 끓여 드려보세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변화가 왔어요. 그 보살이 일주일 뒤에 왔길래 “보살님 어떠세요?”하고 물었습니다. 보살은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저더러 ‘얘야, 네가 다니는 절이 어디니. 나도 같이 다니자’고 하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시어머니를 밉게만 생각하지마세요. 진실로 모시면 어머니가 따라오십니다”했더니, 그 며느리가 “맞아요. 요새는 너무 좋아요”하더군요.

요새 이혼하기 직전인 부부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님, 보살이 좀 꺾여요. 여긴 한국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너무 외국여인처럼 살지마세요. 콩나물국이든 된장찌개든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고 ‘이 공양을 드시고 이이가 부처님 심부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못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 뒤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정해지더군요.



그만큼 마음공부를 진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잘 살고 행복해집니다. 서로 진실하게 말해주고 해야 여기(마음)서 발현이 돼요. 건성으로 믿으면 안돼요.

–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란?

세상 만물이 원래 그렇게(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모두들 모르셔서 그렇지. 생활참선을 하면서 그 속에서 터득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뛴다’고 가르쳐요. 자나 깨나 참선, 앉으나 서나 참선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하나 다 터득해서 간다니까요.

어떠한 경계가 생기든지 간에 꾸준히 안으로 밀어넣고 맡기세요. ‘나라는 건 없다. 나는 그냥 시봉자로서 따라 움직여 갈 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몸뚱이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있으니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알맹이에 의해서 나는 산다. 나 아닌 참나가 있어서 산다’고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제가 된다고 하면 된다고 믿으세요. 알아서 저절로 될 건데도 ‘될까, 안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번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선원에 처음 찾아왔어요. 그분들에게 “안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된다고 자신 있게 안으로 관하세요. ‘주인공이 있는데 왜 안돼? 당연히 되지’ 하고 자신있게 안으로 꽂고 관해보세요” 이랬습니다. 이후 그분들 어떻게 됐냐구요? 일이 잘 풀려서 요새는 바빠서 선원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잘 될 일인데도 ‘되긴 뭐가 돼’ 이렇게 하면 안돼요. 몸이 아파도 ‘주인공 이 시자(侍者) 잘 고쳐서 네가 이끌어. 응? 고쳐서 건강하게 이끌어야지 심부름을 열심히 하지’하고 한 생각내고 가다보면 때가 되어 은연중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는 게 걱정이 없습니다.

되나, 안되나를 지켜보지 말고 탁 놔버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잘 돌아갑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혈관 한 부분을 잡으면 피가 돌아갑니까? 멈추잖아요? 맡겼으면 놔버리세요 그냥. 마음공부를 하면 쉽게 살 수 있어요.

– 말처럼 믿고 놓는게 잘 되지 않는다.

죽든 살든 내버려둬요. ‘주인공, 네가 이 시봉자가 필요하다면 나를 잘 끌고(살리고)가고, 필요치 않다면 당장 가게(죽이고) 해.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앞으로 잘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좌골신경이 좋지 않아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 전에 ‘주인공! 공부한다는 내가 신도님들 보는 앞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건 부처님 누를 끼치는 일이야!’ 하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지잖아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또 한 번은 제가 가슴에 멍울이 생겼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당시에는 병원 갈 생각도 안하고 ‘주인공,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런 병이 나한테 왔구나. 알았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체험해보라고 이런 아픔을 주는 거구나. 알았으니 당신이 고쳐서 끌고 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건강한 몸으로 심부름할 수 있게 해야잖아.’ 하고 관했어요. 그렇게 주인공한테 맡기고 나니 멍울이 조금씩 없어지다 나중에는 싹 없어졌어요. 은사 스님께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면 스님은 “그게 병이냐? 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 음악제 이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한 생각이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남들처럼 1년 계획, 뭐 할 계획 이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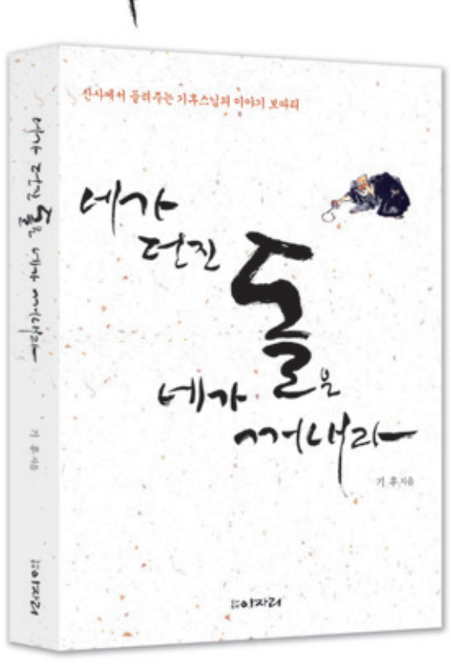
– 스님의 일과를 소개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너무 바쁩니다. 신도들 상담서부터 한마음선원 국내·외 20여 개 지원의 일들을 다 보고 받고 신경 써야 하거든요. 스님과 신도님들은 좀 많아요? 신도님들한테 신경써야지, 100명이 넘는 스님들도 신경써야지 한집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는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해요. 너무 듣는 게 많으니까(웃음). 그래도 우리는 조용히 얌전하게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들려주는 기후스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보따리

이자리

네가 던진 돌을 네가 꺼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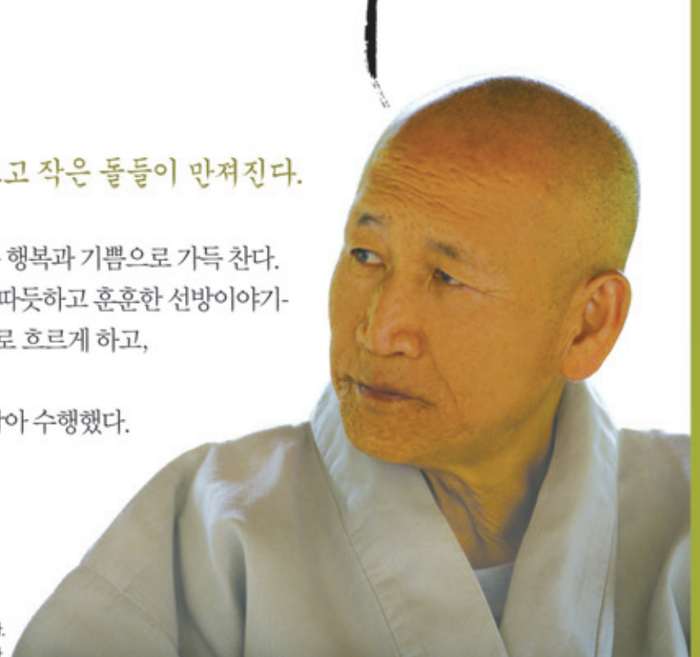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꺼내야 할 돌은 무엇인가?

기후스님이 풀어내는 20년간의 수행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느덧 내 안에 스스로 던진 크고 작은 돌들이 만져진다.

수행자의 삶이란 마음호수에 던져진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다. 그것들은 꺼내면 꺼낼수록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행자생활부터 승가대와 제방 선원, 그리고 6년간의 묵언수행 등 45년간 공부 외길을 걸어온 기후스님의 따듯하고 훈훈한 선방이야기-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는 행자생활과 치열하게만 느껴지는 선방 수좌생활조차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절로 흐르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찔끔거리게 하면서 스님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긋나긋하게 펼쳐진다.
첫돌도 되기 전에 찾아온 천연두를 천형天刑처럼 가슴에 담고 정진했고 늘그막에 걸린 암에는 참회를 담아 수행했다.
그랬더니 천연두도, 암도 오고 간 데가 없어졌다. 그리고 스님은 웃으면서 우리들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꺼내야할 돌은 무엇인가?”



스님이 계신 구마동 계곡은 20km나 외줄로 나있는 깊은 산중이다. 장대비가 하루만 내려도 그 순간부터 길이 끊기고, 깊은 눈이 오면 녹지 않아 3개월씩이나 소식이 단절된다.
그 흔한 손전화도 통하지 않는 깊은 산중 ~. 그러나 그곳에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스님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들의 메마름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다.

책 내는 마음 도서출판 이자리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마음의 소리를 담아냅니다.

불교복지 발전하려면 종단부터 변화해야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세미나
전문가들 종단참여와 인식 변화 주문

"천태종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종단 차원의 관심과 복지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천태복지 학술 세미나'에서 복지 전문가들이 천태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천태종복지재단의 12년간 사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 AW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안산 스님을 비롯한 신도와 후원자,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학술세미나에서 박종팔 청운대 교수는 '불교계 복지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천태종 복지 발전을 법인과 복지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복지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태종 승려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법인 예산 확대 수입 및 지출 구조개선 직영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958개이고 이 가운데 진각종이 42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천태종은 15개 시설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 민간위탁 형태인 현행 구조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시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천태종은 복지법인도 불교계 전체의 직영시설 43.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2.3%에 그치고 있다.

박 교수는 천태종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서비스 확충, 60세 이상의 천태종 신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천태종 복지재단 사무총장 월도 스님도 박종팔 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천태종 복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월도 스님은 '천태종 복지재단의 사업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스님은 "천태종 대중화 및 포교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사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범종단 차원의 복지사업이 추진돼야 진일보한 종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며 복지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월도 스님은 천태 복지 발전을 위한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운영 전략, 종단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식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천태종 내에서도 아직까지 포교와 복지의 상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천태복지 세미나'를 통해 천태복지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다.

월도 스님은 "복지사업을 신행차원의 복지 불사로 인식하고, 추진력을 가진 승려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며 "인적 인프라 구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종립대인 금강대 졸업생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안산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의 사상과 중생구제행'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는 구도와 포교, 중생구제행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대조사의 이런 원력을 실현하는 길은 복지다. 천태종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천태종 가치와 원칙을 사회복지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논산 군법당 기금 전달 잇따라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 대원상 상금 등 기부

논산훈련소 군법당 상량식이 11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승가의 군법당 발전 기금 전달이 잇따랐다.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이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해 논산 군법당 건립 지원 기금 2000만원을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회관 4층 접견실을 방문해 전달했다.

성관 스님은 올해 실시된 제9회 대원상 포교부문 승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원사 주지로서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로터스 월드를 통한 다양한 국제구호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다. 성관 스님은 당시 수여된 상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동행에 전달했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도 같은 날 논산 군법당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군 포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에는 수덕사 견성암 현일 스님이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법당 발전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이 밖에도 교육불사 1000만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1000만원도 전달했다.

박기범 기자

장애인전법단, 템플스테이 개최

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4월 30일 출범한 장애인전법단(단장 지거)은 10월 24~26일 제주도 약천사(주지 성원)에서 28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제주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5대 결사 가운데 하나인 나눔결사의 일환으로 평소 혼자서 사찰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 불자들을 위해 108염주 만들기 연등만들기 탑돌이 올레길 걷기 제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장애인전법단 단장 지거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들을 위한 법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전법중심도량을 지정해 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을 늘려가겠다. 또 사찰과 기관을 연계한 템플스테이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봉은사, 사회복지사업 시동

서울 봉은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진화, 봉은사 주지)이 11월 14일 오후 3시 강남구립 대치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한다.

복지법인 봉은이 위탁 운영하는 첫 시설인 대치노인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745.4㎡ 규모로,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및 '노인요양센터(24시간 케어)'가 동시에 운영된다.

법인 대표 진화 스님은 "이번 위탁사업을 시작으로 봉은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전심법요 강좌 개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2월 20일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 황벽선사어록 〈전심법요〉 강좌를 개설한다.

〈전심법요〉는 조사선 대종장이며 조계종 종지의 상징인 임제 스님의 스승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승상 배휴가 엮어 전하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이번 강좌는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이 강사로 나서며, 12월 20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02)735-2428

박기범 기자

비구니 권리, 시대에 뒤쳐져 있다

크리스티 창 사캬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회장 방한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가 10월 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사캬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회장 크리스티 창(Christie Chang) 박사(사진)를 초청해 '샤카디타와 함께하는 새로운 불교여성리더십 모델'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사캬디타'는 국제 여성불자들의 모임으로 1987년 2월 인도 보드가야에서 시작해 2년마다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불교의 전통으로 인해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과 달리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와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한 서양에서 점차 불교가 알려지면서 서양의 여성 불자들이 비구니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전통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다"며 "이런 계기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여성 불자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캬디타'가 설립되게 됐다"고 말했다.

사캬디타는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 평화 증진 ▷전 세계 여성 불자의 의사교환 조직망 구축 ▷다양한 불교 전통에 대해 화합과 이해설립 및 지원 증진 ▷여성불자 교육장려 ▷여성이 연구하고 수행하는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비구니 승단 설립 등을 취지로 활동 중이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2500년 동안 불교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점차 묻히고 잊혀져왔다. 따라서 학자들이 모범적인 여성 불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불교 안에는 좋은 가치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교계에는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활발해져야 여성 불자들의 리더십을 창출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교계에는 불교의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며 "현재 사캬디타를 국제연합(UN)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제연합이 가진 다양한 자료들을 여성 불자들에게 연결해 주고 여성 불자들의 목소리가 세계에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창 회장은 "여성 불자들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평등한 구조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조선시대 불교 자기정화로 살아 남아

금장태 서울대 교수
불교미래사회포럼 강연

금장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10월 25일 템플스테이회관에서 열린 제33차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우리사회 불교의 특성과 역사성에 대해 강조했다. 금 교수는 이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금 교수는 삼교 융합을 설명하며 포용과 소통을 지향하는 불교의 특성을 설명했다.

금 교수는 "유교의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감흥하여 생각한다'와 불교의 '고요하며 비추고 비추면서 항상 고요하다', 도교의 '하는 일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삼교의 정신이 놀라울 정도로 오묘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교가 종교의 교조적 특성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당시 다른 이념들을 모두 배척했던 유교에 비해 성숙한 종교의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장태 교수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불교가 자기 정화 노력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역사를 살펴보면 대중을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고, 웅장한 교단 건립에만 집중하면 사치에 빠져 타락하게 된다. 개신교가 중세 가톨릭에 저항해 발생한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이와 달리 불교는 조선 시대에도 자기 정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아 파 트 특 보 복 지 원

개요 :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아래의 기업과,재단,사단법인은 사업 이윤을 사부대중과 사회에 기부하여 자리이타를 실천한다.

주제 : 1.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주택(아파트)을 저가로 제공한다.
2. 노스님들과 노인대중을 위해 복지후생을 실천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평당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750세대)을 서민에게저가로 공급한다 (평당600만원선)

2. 사업 계획 : 서방정토극락세계구현
토지 3000평 허가득 봉황산끝자락 서남향 노스님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원을 건립한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보재단(가칭)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법안 스님(왼쪽 두번째)과 토론자들이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불통이 불교 약화 원인이다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월 26일 열렸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토론자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이 교구제 개선을 통한 지역불교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종단 교구제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현행 교구제는 1911년 일본이 한국 불교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중앙종무기관 없이 도입한 31본산제에서 유래한다. 광복 이후 한국 불교계는 31본산제를 폐지했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도별 교구제를 폐지하고 다시 광복 전 본사제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교구제는 전법 실현을 위한 교구의 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법안 스님은 "24교구본사 중 교구 대부분이 수행과 포교 등 전법 실현을 관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나 이에 대한 종책을 생산하는 단위가 없다. 현행 교구본사는 수말사보다 대찰(大刹)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을 관장하는 교구로서의 본래 기능은 뒷전이고 사찰의 행정업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스님은 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구 종회의 현실과 문중 중심의 인사정책이 종무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교구제의 이런 현실이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를 낳았고, 결국 불교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스님의 분석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구법 제정 교구 인사제도 개선 조계종 지역연합회 활성화 교구 신설 및 분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구법'은 현행 교구에 관련된 지방종정법을 비롯한 교구 종회법, 본사주지회의법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성격이다. '교구법'을 통해 교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스님은 또 '(가칭)교구획정위원회'를 설립해 불명확한 교구의 관할권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7직 중심의 행정업무도 인권, 환경, 빈민 등 사회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교 전략 및 조직 체계 마련은 종교 본연의 사명으로 직결된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구본사주지 및 말사주지 그리고 교구본사 7직 소임자를 포함한 각 소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시스템을 주문했다.

법안 스님, "교구제 이젠 한계"
교구법 제정 및 인사제도 개선
교구본사 기능의 인식전환 시급

또한 1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여러 교구본사가 겹칠 경우에는 포교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동관리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대다수 교구본사가 국가행정자치구역과 불일치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공동관리사무소를 개설해 지역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행정기관 및 NGO 등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포교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도심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시·도급 지역의 교구 신설, 교구 분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 도시에는 반드시 중대형 거점 사찰을 육성해 도심 포교 공동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구 분구제는 교구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제기됐다. 2008년 종단 통계에 따르면 소속 사찰이 100개가 넘는 교구본사는 직할교구 동화사 해인사 범어사 등 7곳에 이른다.

스님은 "종무행정력이 취약한 교구본사가 100개 이상의 말사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00개 사찰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교구를 분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고 중앙종단, 교구, 사찰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이 교구제도를 일순간에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교구의 신설과 개편을 주장한 반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중점을 뒀다.

영담 스님은 "교구가 행정구역을 고려해 재획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구 방안은 더 고민해야 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교구본사를 분구해서 종무행정력의 개선을 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입장료 수입이 교구본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분구를 할 경우 분구된 교구본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담 스님은 이런 이유로 거점 사찰 지정과 조계종지역연합회 설립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도심 포교는 경험이 필요하다. 도심 내 거점 사찰을 지정하고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성공 사례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교구 신설방안도 자연스럽게 도출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사찰 위주의 불사가 아니라 교구가 함께 하는 불사가 될 때 지역 내 역량이 커진다. 지역문화와 불교를 일치시켜 문화 속에서 모든 힘이 모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기획실장은 미약한 교구 개편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거점 사찰 지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준엽 실장은 "지역에는 거점사찰이 신도들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가 속출하는 현상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사찰 지정보다는 도심지에 불교회관을 건립하거나 군 단위 이상 도시에 가톨릭 회관이나 YMCA와 같이 대사회활동을 겸하는 불교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엽 실장은 또 지역불교활성화 논의에서 재가자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불교총람, 특색 프로그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교구에 재가자를 위한 불교

영담 스님 "거점사찰 육성 타당"
이준엽 실장 "거점사찰은 SSM"
교구본사 개편 및 신설 비현실적

대학 등이 개설돼 있지만 운영이 주먹구구인 경우가 많고, 군(郡) 단위 이상 지역마다 교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교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구별 불교총람이 있어야 교구의 미래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승·재가가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행단체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토론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②**

유일한 조선시대 석탑

원각사지 십층석탑
(圓覺寺址 十層石塔)
국보 제2호
조선시대/ 서울 탑골공원 소재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유일하게 남은 국보 제2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현재 조류 배설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각이 씌워진 채로 탑골공원(塔骨公園) 안에 모셔져 있다. 높이는 12m.

이 탑은 대개의 탑이 화강암으로 이뤄진 것에 비해 드물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탑 구석구석에 용, 사자, 연꽃무늬 등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탑을 받쳐주는 기단은 3단으로 돼 있고, 위에서 보면 아(亞) 자 모양이다. 탑신부는 10층으로 이뤄져 있고,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모양이다.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룬다. 각 층마다 지붕, 공포, 기둥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탑이 봉안된 탑골공원은 탑공원, 탑동공원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파고다공원이라 했으나 1992년부터 이곳의 옛 지명을 빌어 탑골 공원이라 개칭했다. 이곳은 특히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민족해방운동의 발상지로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특별기고

교구종회 활성화에 불교 미래 좌우된다

총무원장 선거 역할 탈피해야
지역불교의 선봉장 역할 막중

최근 20년 동안 사회발전은 과거 수백년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이룩했다. 변화라기보다는 충격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물론 한국불교도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1990년 개혁의 물결 속에 사찰의 재정공개와 복지 불교가 봇물처럼 흐르고 불교발전의 표상인 신도증가 요인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싶다.

각 교구 본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을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하고 부처님의 대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중앙에서만 행해지는 대법회를 과감하게 지역으로 옮기면서 행하고, 지역교구장의 역할을 중앙에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중앙종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종회가 활성화 되면서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지방종회는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교구종회에서 교구본사의 모든 행정을 분기별로 감독해야 한다. 동시에 본사주지의 역할을 강화해주면서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교구본사주지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중앙종회와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유일한 행정감독이다. 그러다보니 4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고 문중의 이익에 따라서 주지가 선출되는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불교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상황이다. 누가 우선이라는 것도 없이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다. 교구종회가 활성화 되어서 각 교구본사가 지역불교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포교, 복지, 교육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앞으로 불교미래는 없다.

산업화를 넘어서 이제 다시 인간성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물질문명과 경쟁에 시달린 사람들이 탈출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 탈출구는 불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오심 스님(중앙종회의원 · 월봉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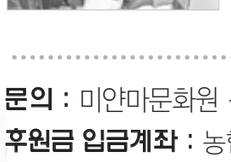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종단 초월한 민족문화유산 대장경 사랑

태고종, 해인사서 정대불사 봉행

태고종이 대장경 천년을 축하하는 대규모 법회를 조계종 사찰인 합천 해인사에서 봉행했다.

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원장 지현)은 10월 23일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성공기원법회(정대불사)'를 봉행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중앙 및 지방 교역직 스님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행사는 제1부 영산재 공연과 제2부 법요식, 제3부 영가 시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비로자나불 원력이 법계에 두루하사/ 최후의 수승한 몸으로 보리도량에 이루셨네/ 해탈의 깊은 인을 원만히 하사 금강보좌에 오르시네/ 가야산중에서 무상정각을 성취하셨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이 법어는 근현대 선지식으로 해인사에 주석했던 설우 스님의 글로 해인사 주련에 새겨져 있다.

혜초 스님은 "스무 살 되던 해 해인사에서 출가해 60년 만인 올해 세납 산수(傘壽)가 돼 다시 돌아와 법석에 앉게 됐다"며 법문을 통해 직접 ▷대적광전과 비로자나불 ▷함허특통 선사의 게송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퇴설전의 의미를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환영사에서 "사찰과 불교 전통문화를 잘 보전하고 있는 태고종의 저력과 1200년 역사를 가진 해인사의 역사적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한국불교는 21세기를 밝혀가는 찬란한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지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번 정대불사는 태고종 종도로서 역량을 떨치고 지역사회에 봉사와 자비를 베푸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다짐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의 야단법석은 종교적 · 종단적 차원을 넘어 시대의 화두인 소통과 화합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울리는 평화와 상생의 축제마당이다"라고 격려했다.


10월 23일 해인사 정대불사에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종정 혜초 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왼쪽부터)

이날 영산재는 태고종 경남종무원스님들로 구성된 경남도 지정 무명문화재 제22호 불모산영산재가 공연됐다.

한편,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의 연구 및 온전한 보전을 목적으로 팔만대장경보존회를 발족해 1인 1경판 인연 맺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팔만대장경보존회 1인 1경판 인연 맺기 운동은 5000원의 기부금을 모아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연구 · 유지 · 보수하는 범국민적 우리문화 지키기 운동이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인 1경판 인연 맺기 국민운동에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 동참해 민족문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주인공이 되자"고 말했다.

팔만대장경 1인 1경판 인연 맺기 국민운동 동참 문의: 해인사 (055)934-3095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아야

부산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이 창건 3주년을 맞아 천일기도 입재와 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큰스님 초청 법문은 10월 26일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을 시작으로 27일 천일기도 입재에 이은 대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의 법문, 28일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법문했다. 천일기도의 회향일은 2014년 7월 22일이다.

큰스님 초청법회 첫날인 26일 수불 스님은 "종교를 믿으면 이익이 생긴다. 종교 자체를 위해 종교를 믿으면 안된다. 진리를 알기 위해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진실을 알기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종교를 통해 지혜를 기를 수 있다.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 깨달음이 필요하고 부처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불 스님은 청정의 개념이 일반사회와 불교에서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청정은 사회 통념으로는 깨끗한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는 사회와 종교에서의 개념을 서로 융합시켜 조화로운 사고를 할 때



진리에 근접하고, 그럼으로써 종교가 갖는 힘이 생긴다"며 "종교의 가르침은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더욱 넓고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종교를 올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종교를 믿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3년 동안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한 결과 누구나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부처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모든 공덕을 대중에게 회향코자 천일기도 입재와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055)333-8202

이재진 부산지사장



선재동자 풋살대회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성문 스님 · 동화사 주지)는 10월 23일 대구공업대학 풋살경기장에서 제1회 대구불교총연합회장배 선재동자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2개 팀이 초교 1~2학년과 3~4학년으로 나뉘어 오전 8시 30분부터 예선전과 리그전을 열었다. 초등학교1~2학년 부에서는 윤창열 FC가 우승했고 초등학교 3~4학년 부에서는 하태호FC가 우승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열린 도량에서 이어지는 문화강좌

전법도량 남천사는 10월 26일 신행지도자 양성과정 특강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염불선덕 영인 스님, 해인사 도솔암 주지 태연 스님, 금화사 주지 매물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영인 스님은 "전법도량 남천사를 자갈치 상인들이 조석으로 부처님을 찾아 참회기도 하여 삼재팔난을 막는 기도 성취도량으로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일궈 나가자"고 법문했다.

전법도량 남천사는 금화사 주지 매물 스님이 생선회 · 구이 장사로 불살생의 자비종자를 심지 못하는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 등 불자들의 케회 기도도량으로 창건한 열린 공간이다.

남천사는 이날 개강법회를 시작으로 경전, 불교 호스피스 캐어, 염불 집탁, 근본불교, 사찰음식 등 각 분야에 권위 있는 선지식을 초청해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011-9509-1555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승불교 조계종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

대승불교 조계종(총무원장 한파)은 10월 22일 하동 강변둔치에서 국운상승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승불교 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중앙종회의장 영각 스님, 경남 서부교구장 경월 스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성환 스님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재해로 희생된 영령과 수륙공계 일체영혼 및 사람을 위해 사라져간 모든 동물을 위령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생명존중을 일깨우는 방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상승과 자비와 배려로서 소통과 화합하는 사회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태풍으로 법당이 붕괴된 광양 불광사와 하동군 횡천면민을 위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전달됐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부산 용호사회복지관 한국전쟁 사진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1월 1~11일 복지관 1층에서 한국전쟁 발발 1주년 후인 1951년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부산40계단문화관과 부산불교역사연구소 지원으로 1951년 사진 40점이 전시된다.

4일 10시에는 복지관 2층 용호문화센터에서 '사진으로 보는 부산 역사'를 주제로 부산불교역사연구소 김한근 소장의 특강도 열린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문화복지사업을 통해서 문화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뿐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628-6737 이재진 부산지사장

금정산 무명사, 가을 산사 음악회

금정산 무명사는 10월 22일 '첫 번째 가을 산사 음악회'를 경내에서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신비의 기도도량 무명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무명 스님의 수행의 원력과 인연의 내력에 대한 법문과 김세연 국회의원, 원정희 금정구청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방송인 이상벽 씨의 사회로 현철, 심진 스님, 강진, 붓다 중창단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구 제현사 도동시비동산조성 4주기 법회

대구 제현사(주지 법륭)는 10월 20일 시비동산조성 4주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제현사 주지 법륭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현사에 조성된 시비 하나 하나가 시인의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마음에 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교사단 대구경북지역단 분야별연수

포교사단 대구경북지역단은 10월 23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경북지역 포교사단 분야별연수를 실시했다.

포교사단 임희웅 단장은 인사말에서 "이 연수를 통해 수행과 포교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나아가 더 높이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거조암 육법공양나한대재

팔공산 거조암은 10월 22일 제7회 육법공양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법어에서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거조암에서 정혜결사를 통해 새로운 불교의 장을 열었듯이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하심해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밝은사람들, 19일 제10회 학술연찬회에서 '죽음'을 화두로 꺼내 들어

"매일 매일을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어느 날엔가는 그것이 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만일 대답이 '아니오'라면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처럼 삶의 종착역인 죽음은 인류 공통의 번뇌이지만 그 자체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등 독특한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해 온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제10회 학술연찬회를 '죽음'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주제로 11월 1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리는 10회 학술연찬회에는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초기불교, 안성두 교수(서울대)가 대승불교, 황금연 교수(동국대)가 선불교를 중심으로 불교의 죽음관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박찬국 교수(서울대)가 서양철학,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생명과학을 주제로 현대 서양사회와 현대문명 속의 죽음관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특히 이번 학술연찬회는 죽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이를 새로운 삶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취지가 더욱 눈길을 끈다. 각 발제자들은 경전 등 사료에 근거한 죽음관의 변천을 살피는 한편 당시 사회의 변화를 함께 조명한다.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는 것은 인류를 넘어 모든 생명이 지닌 공통의 과제다. 부처님은 모든 고뇌 속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무한한 고심을 했는데 이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외경심으로 드러난다. 불교의 '오계' 중 첫 계율이 불살생인 것은 죽음이 바로 삶과 연관돼있는 가장 밀접한 불교 근원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2009년 열린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 모습

각 발제자들은 불교로 인한 죽음관의 변천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해 현대인들의 죽음관과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민해 본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호스피스 · 웰다잉 문화 확산의 사회 조류와도 맞닿아 있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죽음은 그 자체로 생명의 치열한 삶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불교 내부의 죽음관 고찰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된 논문은 11월 초 교재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와 다른 종교의 소통 가능성 진단

한국불교학회, 11월 19일 동국대서 추계학술대회

불교와 한국종교의 대화의 가능성과 종교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9일 오전 10시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와 한국종교와의 대화'란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선 김용표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재영 선문대 교수가 '불교와 신종교와의 대화'를, 김남희 서강대 교수가 '불교와 증산교와의 대화'를, 유흔우 동국대 교수가 '불교와 유교의 대화'를, 최종석 금강대 교수가 '불교와 도교와의 대화'를, 장진영 금강대 교수가 '불교와 원불교와의 대화'를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자유발표에는 김말환 동국대 박사가 '노인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운영과 그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이 발표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경주 사천왕사지서 통일신라 '돌다리' 발굴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10월 26일 사적 제8호인 경주 사천왕사지 학술발굴조사 중 사역의 남쪽 귀부(龜趺) 주변에서 소형 배수로 위에 설치된 통일신라시대의 석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주 사천왕사지는 경주 낭산(狼山)의 남쪽에 세워진 통일신라 초기의 호국 사찰로 쌍탑 배치가 처음 등장한 곳으로 2006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천왕사지 석교는 조선시대 건물지의 하층에 앞서 축조된 배수로(폭 60㎝, 깊이 50㎝ 내외) 위의 동서 양편 2개소에 있으며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작은 돌다리이다. 중문지에서 남쪽으로 40m 지점의 양편 약 3.6m 거리에 각각 만들어져 있다.

석교는 평교(일명 보다리) 형식으로 귀틀석, 청판석, 엄지기둥으로 구성된 너비 290㎝, 길이 120㎝의 규모로 너비가 큰 모습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발굴 결과 사천왕사지에서 확인된 형태의 석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 앞으로 석교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학술단신

동국대 종학硏, 수행결사 주제 학술대회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11월 7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수행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 1부 행사에서는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자성과 쇄신의 결사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며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과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삶을 주제로 한 수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2부 행사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발제하며 윤승룡 종교문화연구소 소장과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02)2260-8512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찬불가' 주제 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김용환)는 11월 5일 부산 남산동 안국선원에서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 찬불가의 역사와 전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후쿠모토 야스유키 정토진종 서본원사파 교학전도센터장이 '근대불교 전교(傳教)의 양악(洋樂) 수용과 그 과제' 가오 야리 대만국립교룡대학 음악연구소 소장이 '전후 대만 창작 불교음악의 발전과 변천' 이미향 동국대 교수가 '근현대 한국 찬불가의 성립과 발전' 윤소희 부산대교수가 '한국 불교음악의 전통과 미래'를 각각 발표한다. (051)583-0993 노덕현 기자

불자 · 기독자 교수들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정배)와 공동으로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에서 제6회 불자 · 기독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믿음과 수행, 그 접점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선 정재현 연세대 교수가 '믿음과 삶-기독교에서 수행이 지니는 뜻과 더불어', 최현민 종교대화 씨튼연구원장이 '그리스도교의 청빈서원에 대한 고찰', 김도공 원광대 교수가 '순역 경계 속의 신행방법론'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가 '불교의 수행: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각각 발표한다. (02)720-6618 노덕현 기자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1)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아쇼카 선언'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8월 23일 발표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과 관련해 필자는 네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화쟁위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언의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한 연기법과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이 선언의 초안을 수정 ·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 봐도 초안의 근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몇 군데 수정만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나 댓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선언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린 진리관'이나 '전법의 원칙'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가?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작성된 '열린 진리관'은 불교의 근본교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법의 원칙'은 '전법포기의 선언'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미 용도 폐기된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필자는 두 번째 글에서 종교다원주의의 함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불교닷컴의 이은 기자의 세차례에 걸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오해' 연재를 비롯해 계속적으로 종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교다원주의의 위험성을 파헤쳐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불자들은 종교다원주의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1세기 아쇼카 선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980년대 다원주의 종교신학을 주도한 대표적인 신학자는 존 힉(John Hick), 폴 니터(Paul F. Knitter), 스텐리 사마르타(Stanley J. Samartha), 레이몬드 파니카(Ramond Panikkar) 등이다. 이들은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신(The Reality)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종교적 관습과 가르침은 하나의 신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 기독교가 타종교와의 공존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신(神) 중심주의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종교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존 힉은 칸트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세계 종교전통을 초월해 '하나의 궁극적 실재', 즉 무한하고 신비로운 힘을 지닌 신적(神的) 실재가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의 영, 하나의 신적 실재, 혹은 하나의 절대자, 하나의 로고스가 존재하되, 역사적?문화적 혹은 심리학적 맥락에 따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계시적인 종교 경험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왔으며, 그것은 모든 동일한 실재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응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종교이든 각각 그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말한다. 즉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는 하나라는 것이다. 마치 산의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지만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존 힉의 사상적 근저에는 유일신 개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하나의 궁극적 실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

같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자인 폴 니터는 존 힉의 '실재(the Real)'에 대한 유신론적 해석이 불교 같은 종교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은 기자는 불교닷컴의 9월 15일자 보도에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신중심적 모델은 유일신론적 전통에 속한 종교에서는 통용될 수 있으나, 불교나 도교, 유교의 경우처럼 초월적 인격신의 관념을 가지지 않는 종교 전통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고 했다.

그러나 조계종 화쟁위에서 발표한 '21세기 아쇼카 선언'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

研究 및 受講生 모집
東醫寶鑑 方藥合編. 藥草學
강 의 합 니 다
(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한약 효능 안내

기효만령단 (寄效萬靈丹)	고혈압, 중풍, 당뇨병, 관절신경통, 견비통, 요통, 근육통, 골절통, 편정두통, 좌골신경통, 자궁근종, 안면신경마비증, 수족신경마비증, 일체담증, 수족냉각증, 산후풍증, 중이염, 골수염, 고환염, 말초신경염, 여드름, 치질, 치루, 통풍, 악성피부질환, 소화불량, 양기부족 등
안중산(安中散)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창이환(蒼耳丸)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호마산(胡麻散)	백전풍, 백나병, 백반증
익수환(益壽丸)	당뇨, 정력, 빈뇨, 전립선염, 방광염
청보환(淸補丸)	신종플루, 해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감기
생간전비탕(生肝健脾湯)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황달
소풍산(消風散)	이명, 보약, 두목, 혼현, 비색, 부인혈풍두양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飮)	심장 신장 기능 강화, 요실금, 오줌소태, 전립선염
신효과루산(神效瓜蔞散)	유방암, 유선염
팔진탕(八珍湯)	임신구토, 임신빈혈
귀비온담천마탕 (歸脾溫膽天麻湯)	현훈(眩暈), 어지러움증, 불면증, 신경쇠약
총명익기탕(환) (聰明益氣湯)(丸)	안혼(眼昏), 이명(耳鳴), 이농(耳聾), 정신상쾌, 식욕증진, 오로칠상 허손(五勞七傷 虛損), 간상(肝傷), 치매, 냉누출(冷淚出), 양기부족
항암식품(抗癌 食品)	오백산(五白散), 강유탕(糠榆湯)

(참고문헌 : 東醫寶鑑)
문의 : 慈悲會 02)722-4848 / 010-2538-7789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대 출 안 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법계공동체 실상사는 우리 모두의 절

신라 구산선문의 최초 가람으로 법계공동체를 가꾸는 다양한 실험과 실천을 해온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가 10년에 걸친 발굴조사와 3년 여 동안의 불사추진을 위한 고민한 끝에 실상사불사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불사에 돌입했다.

10월 22일 실상사 보광전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비롯해 관련학계 전문가와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내면사무소 앞에서 시작되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자문위원단 위촉, 주민들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발족식에서 해강 스님은 "실상사는 절에 사는 스님들만의 절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절이요 마을의 절이다"며 "실상사 불사는 절 담장을 넘어 마을과 산과 들판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삶을 꿈꾸는 산매마을 법계공동체를 가꾸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은 그동안 실상사 불사를 위해 애쓰다 유명을 달리한 故 정기용 선생과 생태운동에 평생을 바친 故 김재일 선생에 대한 추모 묵념을 올리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발족식에 이어 종교계 문화예술계 문화재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어르신과 불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올해 수확한 농산물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헌공식과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실상사는 2008년 '우리나라 사찰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을 위한 불사세미나'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불사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 실상사선언 '불사십조'를 발표했다.

2010년에는 실상사 중창불사를 구체화하는 불사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실상사는 올해 상반기 불사 기본안을 마련해놓고 2012년 3월 문화재청의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월 22일 실상사 중창불사추진위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올바른 불사를 다짐했다.

불사의 기본지침, 불사십조(佛事十條) 란?

실상사는 불사에 참고할 기본지침을 정리한 실상사 선언 '불사십조'를 지난 2009년 10월에 발표했다.

이들이 마련한 불사십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다. 모든 사물이 유형무형의 관계 속에 그물코처럼 이어졌다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불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명살림의 불사'로 자연과 생명체, 사람이 합일공존하는 것이어야 하며 돌, 풀, 나무 등 모든 대상과 생명을 모시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스님, 신도, 지역주민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땅의 선택이나 건물배치 공간의 비움 건축규모 재료 장식 표현 등이 올바르고 적절한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이다.

다섯째는 스님 신도 전문가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올바른 절차를 협의해 진행되는 '대중적 협동의 불사'다.

이외에도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가 '불사십조'로 꼽혔다.

"구슬을 꿸 수 있는 실을 찾아준 것 뿐"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버지 설묵 정용기 거사



개산대재가 봉행중인 금산사 앞자리에 자리하고 앉은 50여 외국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주변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한 한국인이 있다. 설묵 정용기 거사(사진)이다.

설묵 정용기 거사는 완주 산업단지내 6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린다. 실제 고국의 어머니와 화상통화때 설묵 거사를 '한국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다.

완주 산업단지 문화관에 근무하고 있는 설묵 거사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년 전 우연히 마트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만나면서 부터이다. 설묵 거사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노동자를 남들 모르게 살펴주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매주 토요일마다 기숙사를 찾아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고국의 가정사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인연이 바탕이 되어 이제는 회사와 노동자들간의 중재자 역할까지 하게 됐다.

설묵 거사의 이런 자비행 때문인지 외국인노동자들의 탈선이나 불법행위가 완주산업단지 내에서는 거의 없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완주 산업단지내 외국인 노동자 큰 잔치를 개최하게 된 계기도 설묵 거사의 역할이 컸다.

설묵 거사는 조계종 포교사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억지로 포교나 전법활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 이웃종교의 선교가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하지만 적극적인 종교 강요는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묵 거사는 이들의 고충과 가정사를 들어주다보면 신뢰가 쌓여 불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과 함께 손으로 밥을 먹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설묵 거사는 주말이면 늘 빵이나 우유 같은 간식과 옷가지를 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를 방문하고 있다.

휴일이면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이들은 겨울옷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여러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설묵 거사가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준 일화는 완주 산업 단지내에서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동자들은 전주 천천클럽의 후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설득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또 그들이 송광사에서 요양 후에는 다시 현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무수한 자비행을 오늘도 펼치고 있다.

설묵 거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떠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3D업종에 근무하며 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주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나눔과 동시에 한국문화를 익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묵 거사는 "완주 산업단지 부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어갈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왕이면 스님이 상주하면서 포교당 역할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상담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이다.

설묵 거사는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며 단지 구슬을 꿸 수 있는 실의 역할을 찾아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집에서 안쓰는 물건 이웃 위해 기부하세요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소년소녀가장들과 독거어르신들의 김장김치를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11월 23~24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기존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운동에 '기부'의 의미를 더해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 받아 잘 손질해서 필요한 사람이 값싸게 살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독거어르신들의 밑반찬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내는 김장김치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자비신행회 김월희 간사는 "누구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을 것이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자비신행회에 물품을 보내주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보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간사는 "바자회 후원물품은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면 어떤 물건이든 가능하고, 의류 신발 가방 유아용품 방한용품 그릇 장남감 악기류 장식류 등 종류에 상관없이 기증을 받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62)234-009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평소 훈련해야 성보 지킨다

고창 선운사, 고창소방서 함께 목조문화재 화재 대비 소방훈련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0월 25일 고창소방서(서장 윤병헌)와 합동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보물 제290호 선운사 대웅보전과 보물 제803호 참당암 대웅전등 목조 성보문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소방훈련에서는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소방용수 확보, 소방차량 부서 배치와 소방 호스전개, 화재발생시 초등대처 방법 등을 점검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소화전 확보와 방수포 사용, 화점 방수 훈련 등의 실전경험을 쌓았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선운산 입구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주변 상인 및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산악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에서 소방훈련을 하는 모습

순천 선암사 대각국사 탄신 다례재

대각국사 의천 스님 탄신 956주년 다례재가 10월 24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됐다.

선암사 경내에서 열린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과 주지 경담 스님을 비롯한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고려불교의 융합을 실현하고, 고려 속장경을 간행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탄신을 기념해 매년 음력 9월 28일에 열려왔다. 행사에서는 경담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차와 공양이 올려졌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마음과 가르침을 잘 배우도록 노력해야 하며, 배운 것은 항상 수행을 통해 대중들에게 회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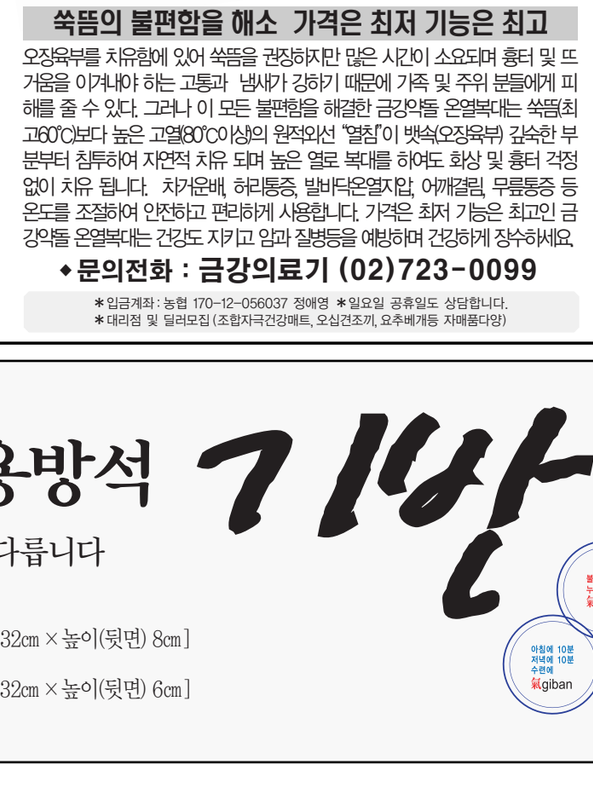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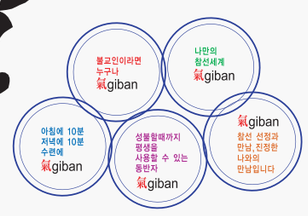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함께 풀다보니 교리가 머리에 '쏙쏙'

조계사 교리경진대회
'범종을 울려라'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국화축제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의 하나로 교리경진대회 '범종을 울려라'를 10월 22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실시했다. 개인전 60여 명과 단체전 30여 팀이 참가한 행사에는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계사 신도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단체전에서 우승한 조계사 청년회가 범종을 울리고 있다.


진지하게 대회에 임하는 교리경진대회 참가자들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 스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있던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전에 준비한 문제들이 바닥난 것이다. 결승자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출했지만 실력이 출중한 두 팀의 대결은 용호상박이었다. 대회 내내 중천에 떠 있던 가을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어느 덧 서늘한 바람까지 불고 있었다.

그러나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교리경진대회 무대에 앉은 조계사 청년회와 조계사 신행상담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문제를 출제 할 스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조계사 청년회는 개인전 우승자 무구 김정희 거사와 개인전 2위 성운심 이수민 보살이 참여해 시작부터 주변의 기대를 모았다.

단체전 최종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벌써 15문제 이상을 경합 중이었다. 조계사 스님들은 승부를 가리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계속 출제했지만 두 팀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승전 8번 문제에서 성진 스님은 "37조도품 중 4여의족을 모두 쓰라"고 지시했다. 두 팀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조계사 청년회가 먼저 정답판을 들었다. 두 팀의 팽팽한 결승을 지켜보던 신도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조계사 청년회가 정답판에 쓴 답은 "축하합니다"였다. 패배를 인정하고 조계산 신행상담실의 우승을 미리 축하한 것이었다. 이제 신행상담실이 4여의족을 모두 쓰면 제1회 조계사 교리경진대회 첫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신행 상담실은 신중을 기해 답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최종 정답판을 들었다. 신도들은 스님들의 입만을 바라보며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진 스님의 한 마디는 단체전 결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참가자들, 백중지세 대회열기 고조
> 교리 공부 중요성 되살리는 계기돼
> 단체전 결승에선 15문제 이상 경합
> 조계사 청년회 개인·단체전 휩쓸어

스님은 "신행상담실. 왜 정답을 썼다 지워. 그 답 틀렸어"라고 말했고, 결국 두 팀의 경합은 계속됐다. 고비를 넘기자 조계사 청년회는 다시 힘을 냈고, 두 팀의 공방은 결승전 15번 문제까지 이어졌다. 스님들은 두 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조계사 국장 스님들의 법명은?", "조계사 대웅전의 평수는?"과 같은 이색적인 문제도 제출했지만 승부는 끝이 날 줄을 몰랐다.

결승전 16번 문제에서 성진 스님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며 "조계사의 4물을 치는 순서를 쓰시오"라고 문제를 제시했다. 4물을 치는 순서는 사찰마다 차이가 있는데 조계사의 순서만 정답으로 인정되는 문제였다.

양측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고, 잠시 후 두 팀은 정답판을 들어올렸다. 조계사 청년회가 제출한 답안은 '법고-목어-운판-범종'이었다. 반면 신행상담실은 '법고-범종-목어-운판' 순서로 적었다. 마지막까지 순서를 고민하던 신행상담실은 자신이 없는 표정이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은 승부가 결정됐다며 술렁였다.

정답판을 살피던 스님들은 조계사 청년회의 답안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긴 시간 이어진 '제1회 조계사 교리 경진대회' 단체전의 우승자가 결정됐다. 조계사 청년회는 환호하며 우승을 자축했고, 끝까지 응원을 해준 조계사 신도들과 함께 경합을 벌인 신행상담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단체전에는 조계사 각 단체 및 지역별 33개 팀이 참가했다. 혼자서 정답을 고민해야 하는 개인전과 달리 단체전은 도반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개인전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우승을 향한 승부욕도 높아 일부 팀은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정답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 스님은 "부처님 법은 항상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 승부는 큰 의미가 없다. 신도들이 교리 공부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맞춤법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단체전에 앞서 열린 개인전에는 60여명의 조계사 신도들이 참가했다. 1,2번 문제까지는 오답 없이 전원 통과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3번 '게송'을 묻는 질문에 첫 오답자가 나오면서 승부가 서서히 달아올랐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모두 쓰라는 문제에서 참가자들은 문제가 어렵다며 탄성을 질렀다. 스님들은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며 차분하게 답을 쓸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10대 제자를 미처 채우지 못한 참가자들이 탈락하면서 남아 있는 참가자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월등하자 스님들은 맞춤법 하나,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답으로 인정했다.

동안거를 묻는 질문에 안거라고 답해서 탈락한 한 참가자는 '아이고, 억울해'라고 외치며 대회장을 벗어났다. 라후라 존자를 묻는 질문에 '라휼라 존자'라고 썼던 김미자 보살은 외래어에 대한 발음 문제임을 인정받아 정답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몇 문제 뒤 안타깝게 탈락하고 말았다.

결승전에는 조계사 청년회의 무구 김정희 거사와 성운심 이수민 보살이 올랐다. 조계사 청년회원간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였다. 유전문을 묻는 질문에 이수민 보살이 정답을 놓치는 사이 김정희 거사가 정답을 맞춰 최종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교리 공부를 위한 좋은 자극제"

개인전에서 우승한 무구 김정희 거사



"전에는 교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근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가 다시 교리 공부에 매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1회 조계사 교리 경진대회 '범종을 울려라'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조계사 청년회 무구 김정희 거사(사진)는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갔다. 김 거사는 조계사 청년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한다.

김정희 거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일주일 정도 준비를 했다. 다시 책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다보니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교리 공부에 대한 좋은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회를 준비한 탓인지 결승전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번 대회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불자님들의 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기범 기자

어른들 틈에서도 차분히 실력발휘

초등법회 참가자 최보문 양



올해 13살인 최보문 양(사진)은 교리 경진대회 개인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이가 어린 이유도 있지만, 어른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종 5인에 포함되면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겠지만, 보문 양은 아쉽게 4위에 그쳤다.

"많이는 아니고, 약간 좀 아쉬워요. 3위에만 들었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예요."

최보문 양은 다소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괜찮다는 듯 웃어보였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씩씩한 불제자의 모습이 엿보이는 듯 했다.

최보문 양은 교리 경진대회 참가 경험이 많지는 않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8월 28일 실시한 '제3회 불교교리경시대회'에 처음 참가한 뒤, 이번 대회가 두 번째다. 보문 양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기범 기자

매년 자체 교리경시대회 열고 정진

단체전 우승 조계사 청년회



조계사 청년회(사진)는 매년 자체적으로 교리경진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도 조계사가 청년회원들의 깊은 불심에 감탄해 전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확장한 것이다. 매년 자체 대회를 개최할 만큼 조계사 청년회는 교리 공부에 열심이다.

조계사 청년회 고경 최석균 거사는 "2등에 올랐지만 신행 상담실의 실력이 대단했다. 교리 공부 의욕을 고취시키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계사 청년회는 자체적으로 신입법우에 대한 교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리 공부가 청년회 활동에만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거사는 "수행과 함께 교리도 같이 익혀야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불자들이 교리 공부에 대한 좋은 자극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잔나비의 애처로운 새끼 사랑

청자상감모자원형연적
(靑瓷象嵌母子猿形硯滴)



국보 제270호 청자상감모자원형연적

자식이 외출하면, 어버이 마음도 타향에
〈부모은중경〉 청소년의 효양교육에 효과

한문불전의 구역(舊譯)을 대표하는 요진(姚秦)의 삼장법사(三藏法師)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경전 중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있다. 간단히 〈부모은중경〉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에는 다른 종교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가장 오래된 판본은 세종 14년(1432)에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에 의해 간행된 보물 제1125호(국립중앙박물관소장)와 제959호(기림사 비로자나불복장전적)가 있는데, 닥종이에 목판으로 찍은 첩장본(병풍처럼 펼칠 수 있는 전적)이다. 이는 원문과 그림이 함께 있어 귀한 사료로 평가된다.

필자는 이 경전을 처음 접하고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깨달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초중고 계층을 위한 필수독서목록에 넣고, 시험과목에 넣으면 우리 청소년들의 효양(孝養)교육에 더할 나위없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역량 있는 귀인(貴人)이 나서서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부모은중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예배를 올린 이야기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배에 제자들이 놀라 이유를 물었다. 석가모니는 "전생에 부모였던 이들의 뼈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검고 가벼운 뼈는 여인의 뼈인데, 아이 하나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되의 피를 흘리고, 기를 때마다 여덟말 너되의 젖을 먹이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부모은중경〉의 여덟 번째 은혜에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이라는 구절이 있다. 역마살이 심해서 워낙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필자의 마음에 꼭 들어서 저절로 외웠던 명문이다. 여러 가지 한글 번역이 있는데 아래의 번역이 워낙 탁월해서 본문의 의미를 초월한 명역이라 소개하고자 한다.

"멀리 떠나가면 근심 걱정하신 은혜 죽어 이별 진실로 잊기 어렵고 살아 이별 또한 가슴 아프도다. 자식이 외출하여 먼 곳에 나아가면 어버이의 그 마음도 타향 땅에 함께 있도다. 밤이나 낮이나 자식 향한 마음으로 흘린 눈물 천만 줄기 잔나비 새끼 사랑에 애처러이 울부짖듯 행여나 염려하여 애간장이 끊기도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잔나비(원숭이의 별칭)와 새끼사랑에 애간장이 끊기는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 어느 사냥꾼이 숲속에 사냥을 나갔다가 잔나비 새끼가 노는 것을 보고, 시장에 내다 팔 욕심으로 새끼를 데리고 숲을 나오는데, 어미 원숭이가 뒤를 따라오면서 슬피 울며, 새끼를 따라왔다. 몇 리를 따라오다가 소리가 그치기에 사냥꾼이 되돌아가서 보니, 어미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있었다. 왜 죽었는지 궁금해서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기어 있었다 한다.

일제강점기 간송(澗松) 전형필(1906~1962)은 영국인 골동품 수집가 존 개즈비(John Gadsby)가 20년간 조선과 일본을 넘나들며 명품만을 골라 수집한 고려청자 20여 점을 일괄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들짝 놀란 간송은 일본으로 건너가 논밭 1만 마지기를 판 돈, 1200억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 우리 청자를 되사들였다. 이때 사들인 청자 중에 후에 국보 제270호로 지정된 고려청자가 청자상감모자원형연적(靑瓷象嵌母子猿形硯滴)이다.

크기는 높이 9.8㎝, 몸통 지름 6.0㎝인데, 어미 원숭이 머리 위에는 지름 1.0㎝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새끼의 머리 위에는 지름 0.3㎝인 물을 벼루에 따라내는 구멍이 각각 뚫려 있어 연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연적으로 먹을 갈았던 고려의 선비는 도공(陶工)의 의도(意圖)를 짐작했을까.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구절초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마른바람 불면
나는 꽃을 피워야만 합니다.
허전한 당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백암성총 선사의 '독서하는 학인들에게 보임[示讀書諸生]'

번뇌의 소용돌이를 없앴는가

淨掃心塵閉六窓 (정소심진폐육창)
終期一口吸西江 (종기일구흡서강)
安禪只爲除疑網 (안선지위제의망)
學道先須折慢幢 (학도선수절만당)

晴對斷崖看好樹 (청대단애간호수)
晩憑危閣聽流淙 (만빙위각청류종)
世間技揚都消盡 (세간기양도소진)
唯有詩魔未得降 (유유시마미득항)

마음의 때 깨끗이 쓸고 육근의 문 닫고서
마침내 한입에 서강의 물 마시길 기약하네.
선정에 듦은 다만 의심의 그물 제거하기 위함이요
도를 배움에 먼저 아만의 깃대 꺾어야 하리
낮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짝하여 멋진 나무 보고
밤에는 위태로운 누각에 기대어 흐르는 물소리 듣네.
세간에서 재주 뽐내고픔은 모두 없애서 다했거니와
오직 시마만은 조복하지 못하였다네.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 스님은 51세 되던 해, 임자도에 표류한 배에 실려 있던 190여 권의 책을 15년에 걸쳐 5000개의 판목에 새겨 유포하는 등 조선후기 교학 성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치문경훈주〉를 통해 학인을 위한 경책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위 시도 그러하다.

방 거사가 한 입에 서강(西江)의 물을 다 마셔버린, 일대사 일을 해 마칠 수 있으려면 먼저 육근을 잘 갈무리하여 탐·진·치 삼독을 날마다 깨끗이 쓸고 닦아야 하며, 세속을 떠나 산수 간에서 밤낮 의심의 그 물과 아만을 꺾어야만 된다. 역대 조사스님들이 고구정녕히 밝힌 수행의 시작점이며 끝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몇 안거를 지냈다느니, 경을 몇 만 번 독송했다느니, 기도를 몇 년 했다느니 하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분들을 본다. 날마다 나의 무명에서 비롯된 번뇌의 소용돌이를 쓸어 없앴는지를 점검해야 할 뿐 아만을 키우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시벽(詩癖) 조차 번뇌에 불과하다고 일갈한 스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유난히 뼈아프게 와 닿는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 국내 범종의 1만관 시대 개막 -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되는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조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자식 위한 부모 마음,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서울 봉은사, 학업원만 성취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 기도 봉행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서울 봉은사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수능시험 공부를 하는 불제자는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자 무상보리를 증득한 부처님의 구도정신을 본받아 신명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사오니 최상의 인내력과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소서.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큰 실천의 원력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을 갖추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계를 밝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큰 일꾼이 되게 하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옵니다.

수능을 20여 일 앞둔 10월 22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한 학부모들의 기도행렬이 각 사찰 마다 이어졌다. 교육 1번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가 개최한 '학업원만성취 3000배 철야정진 기도' 현장에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만추의 가을 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 낙엽이 수북이 쌓일 만큼 오랫동안 기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대한민국 국민 중 종교를 가진 이는 50%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험생 부모라면 한번씩은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점수가 간당 간당한데 간신히 들어갔다. 기도덕"' 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 아이의 꿈을 이룬다는데 108배가 아닌 3000배, 3만배를 못할까.

대학입시철에는 추위와 더불어 교문 앞에 엿을 붙여놓거나 촛불을 켜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거나 대입 합격을 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있다. 대사를 치루기 전 스스로의 힘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는 수능뿐만 아니다. 건강 사업 학업 연애 등 우리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힘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종교와 관계 없이 생명가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이 기도정진하고 있다.

대치동에서 온 박인숙(49) 씨는 "부담될까봐 가족들 모르게 왔다. 남편은 항상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무라는데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편하고 아이도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혜경(47) 씨는 "〈천수경〉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읽으면서 아이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살면서 아이와 가족에게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도 됐다"고 말했다.

1200여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진행된 기도법회에서는 주지 진화 스님이 함께 3000배를 올리며 학업 원만 성취를 발원했다.

진화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우리들은 정성과 소원을 담아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 배, 한 배 그 절에 정성을 담으면 내일 아침에는 분명 아름다운 꽃이 돼 이 봉은사 도량과 이 사회와 그리고 삼천 대천 세계를 환히 비추는 동량으로 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는 50분 기도와 10분 휴식의 일정으로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이에 앞서 봉은사 마당에서는 소원지를 쓰는 행사 등도 함께 진행됐다. 봉은사 신도회는 동참 신도들이 정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차 보시 봉사를 했으며 봉사회는 설거지와 공양배식 등을 맡았다.

봉은사는 8월 3일 입재한 '학업원만성취 100일 관음기도'를 11월 5일 촛불기원법회로 회향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기도에 앞서 소원지에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자식의 수험표를 앞에 깔고 기도하는 학부모

전국은 지금, 수능 기도로 열기

영험하다는 갓바위에는 수만명 찾아

수능 기도처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일까? 전국 명산 명찰이 많지만 수능기도하면 대표적인 곳이 팔공산 갓바위일 것이다.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경산 갓바위는 수능철인 11월 가장 붐빈다.

가파른 계단을 몇시간 올라야 하지만 24시간 참배객이 이어지고, 한낮에는 정상 수백 미터를 남긴 지점부터 인파가 체증을 이룰 정도다.

관리사찰인 선본사는 참배객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수능철에는 공양에도 공덕이 있다는 믿음에 공양간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 선본사는 신도들의 공양미 중 매월 100가마를 복지관 등 불우이웃 시설에 기부하며 이를 회향하고 있다.

산 정상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자연석 화강암으로 조성된 갓바위 부처님의 정식 명칭은 팔공산 선본사 관봉 약사여래불이다. 국가지정 보물 제431호로, 전체 높이가 4m에 이르는 당당한 위풍과 자애로운 얼굴 표정, 어깨까지 내려오는 큰 귀가 인상적이다. 약사여래불이 갓바위라고 불리게 된 연유는 바로 머리에 이고 있는 너비 1.8m, 두께 15cm의 갓 모양 3변형 자연 판석 때문이다.

신라 선덕여왕 7년(638년) 원광 법사의 수제자인 의현 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 한 번 절하고 한 번 쪼는 일배일정으로 22년에 걸쳐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갓바위 부처님이 전국적으로 영험하다고 알려지게 된 것은 1960년대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를 통해 약사여래불로 병 치유에 효력이 있다고 소개되면서 부터다.

이후 머리에 쓰고 있는 판석이 학위 모자를 연상시켜 입시에 효험이 있다고 입소문이 퍼졌다. 평생을 통틀어 간절한 기도 하나는 꼭 들어준다는 갓바위 부처님에게 자식이 잘되길 비는 부모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불상이 부산을 향해 좌정해 있어 부산이 불심이 깊은 신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온다.

부산에서 왔다는 한 수험생 학부모 이인자(47) 씨는 "딸이 건강하게 수능을 치루고 실수 없이 시험을 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기원했다"며 3000배를 이어갔다.

대구에서 온 다른 학부모 김 모(52) 씨도 "아들이 힘든 재수생활 끝에 시험을 보는데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100일 기도 중"이라고 말했다.

관리사찰인 선본사(주지 향적)는 10월 22일과 23일에만도 3만 여 인파가 갓바위를 찾았다고 추산했다.

불자들의 기도행렬에 맞춰 11월 10일 치러질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된다.

수능 108일 특별기도를 진행해 온 조계사는 수능 시험 종료시까지 입시기도가 진행되며 수능 시험 종료에 맞춰 회향법회를 개최한다. 수능 시험장 인근에 위치한 서울 봉은사의 경우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법회와 행사를 조용히 진행하며 수능 종료시 합격 단주와 찹쌀떡 등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 도선사와 수원 용주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도 수능특별기도가 이어지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단주를 나눠주는 등 성취 기원 행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행운을 잡는 나를 찾는 참선을 합시다

나를 찾겠다는 생각을 정하면, 그 순간 천 갈래 만 갈래 가시밭길을 헤매며 힘 빼고 곤두박질치는 일은 꼬리를 감추고 접게 됩니다.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온갖 시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가 보살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지 않으니 재앙도 업장도 없고 수그러듭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를 따르지 않으니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나를 찾고 나를 아는 참선의 길에는 행운이 있을 뿐입니다.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참선의 길로 나서면서 행운은 시작됩니다.

행운을 만나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찾고 나를 아는 최상의 참선을 잡은 것은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선지식의 한마디를 듣고도 무상정등정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을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참선의 수승함 그대로 받아드립시다.

참 선 대 축 제

제6차 참선대중화선회 삼매체험수련회 단기출가

선 회 3일	삼매체험수련회 8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입재 : 11월 11일(금)	입재 : 11월 11일(8일)	입재 : 11월 11일~
회향 : 11월 13일(일) 오후 3시	회향 : 11월 18일	

입재시간 오후 3시

단식

몸에 밴 관행 체질전환,
참선 단식으로 해결

행운이 다가가는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나를 찾는 참선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이어트 1일최고 3kg, 금연 금주 해결 요요현상제로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 면역성 노화방지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공포불안 사고암기력 자신감 담력대범

단식(무단식-선택) 〈청소년 대학생 일반〉

2011 겨울 수련일정8일(12월, 1월, 2월)

1차 - 12월 23일 ~ 30일	2차 - 1월 7일 ~ 14일
3차 - 1월 20일 ~ 27일	4차 - 2월 18일 ~ 25일

접수,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인터넷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에서 받습니다

☎ 1644-5266, 070-7519-9929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전문도량 활活 인人 선禪 원院(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버릴 수 없는 것은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다





⑱ 영암 도갑사(道岬寺)

비가 온다. 비를 맞으며 산새들이 개울 위를 날아간다. 산새들이 건너간 개울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눈을 감아야 들리는 노래처럼 소리 없이 가을비가 내린다. 오솔길이 눈을 감고, 돌계단 위의 낙엽들이 눈을 감는다. 도량이 가을비에 젖는다. 도갑사다.

월출산 기슭에 자리 잡은 도갑사는 신라 말기에 도선(道詵·827~898) 국사가 창건했다. 조선시대 수미 스님이 중건했으며 연담·허주·초의 선사 등 기라성같은 선지식들이 주석했다. 정유재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도량이 많이 소실됐다. 최근까지 대웅보전을 복원하는 등 불사가 이어졌으며, 옛 가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다가 떠내려 온 오이를 건져 먹는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된다. 전설이다. 그 아이가 도선 스님이다.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었던 아이는 결국 버려지게 되지만 그 아이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버려진 그 아이를 비둘기가 기르고 있었다. 도선은 결코 세상이 버릴 수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석탑도 눈을 감는다. 버티고 버티던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가을비에 젖은 석탑이 빗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그 옛날, 전쟁의 화마에도 눈 하나 감지 않았던 석탑이 한 방울 한 방울 소리 없이 내리는 가을비에 젖고 또 젖을 뿐이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세찬 바람이 아니라 뜨겁게 나그네를 바라보았던 태양이었듯 그 무뚝뚝한 석탑을 무너뜨린 건 눈을 감고 들어야만 들려오는 가을비였다.

버릴 수 없는 것이 가슴 속에 있어 힘겨운 날을 지나고 있다면 도갑사에 가 볼 일이다. 세상이 버리지 못했던 도선 스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화마도 어쩌지 못했던 석탑이 한 방울 가을비에 젖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버릴 수 없는 것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갑사에 가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단풍도 가을비에 젖는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가의 쟁사 해결 방법(1)

속세와는 다른 법률 준수해 승가화합 유지해 왔다

불교 승가는 속세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출가해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속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 위에 서 있는 집단이다.

출가의 최대 목표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획득이며, 출가자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수행에 적합한 최상의 환경 조성에 서로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속세에서 준수하는 법률과는 다른, 출가 정신과 그 생활상의 특징을 고려한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고 승가의 화합과 청정을 위해 노력한다. 승가의 법규는 250여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것을 모아 놓은 조문집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한다. 승가는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살(布薩)이라는 의식을 통해 이 바라제목차 250여 조문을 하나하나 암송하며, 비구 개인의 청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승가의 질서 유지 및 화합을 다진다. 바라제목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라이법 4조 · 승잔법 13조 · 부정법 2조 · 사타법 30조 · 단타법 90조 · 제사니법 4조 · 중학법 100조 · 멸쟁법 7조로 구성된다. 이 규범들은 비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만약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 250여 조문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멸쟁법 7조이다. 이는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나 불화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이다. 불교 승가 역시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당연히 의견 대립이나 쟁사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승가에 쟁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쟁사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결국 승가의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속하고도 현명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화합을 생명으로 하는 승가에 있어 분열을 일으킬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승가에 쟁사가 발생하면 지사(知事) 비구는 서둘러 이 멸쟁법의 적절한 조문을 적용하여 싸움을 해결하거나 더 이상 복잡하게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해결 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 지사비구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또한 일반 비구들도 모두 쟁사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칠멸쟁법은 다른 제 조문과 마찬가지로 바라제목차에 포함돼 포살 때마다 함께 암송하며 그 수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 칠멸쟁법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율장 건도부의 '멸쟁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건도에는 승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쟁사의 내용과 이 쟁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승가의 화합을 유지하는 방법이 각각 4종의 쟁사와 7종의 멸쟁법으로 분류되어,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출가하여 공동생활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승가의 화합이다. 승가에서 매일 쟁사가 발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출가의 목적인 수행은커녕 재가자로부터도 신심을 잃어 불교 승가는 그 존재 의미와 기반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가에서도 화합을 가장 중요시해, 쟁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 가는 멸쟁법을 고안했다. 그리고 이를 바라제목차에 포함시켜 그 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멸쟁건도'에서 상세하게 그 적용 방법 등을 전하고 있다.

이 법규들은 현대의 소송재판법과 유사한 점도 많으나, '승가의 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승가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 승가의 중요한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독자적인 법규이다. 그러므로 불교 승가 특유의 효율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멸쟁법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 불교 승가와 그 주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4종의 쟁사

멸쟁법의 내용 소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교 승가에서 발생하는 쟁사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각 쟁사의 내용에 따라 적용할 멸쟁법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빨리율을 비롯한 한역 5종 광율에서는 불교승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사를 4종으로 분류 · 제시한다.

(1) 언쟁(言諍, vivādādhikaraṇa)

언쟁이란 비구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법(法)이다 · 법이 아니다 · 율(律)이다 · 율이 아니다 · 여래가 설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것이다 · 여래가 설하지 않은 것이며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 여래가 행한 것이다 · 여래가 행하지 않은 것이다 · 여래가 제정한 것이다 · 여래가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 죄이다 · 무죄이다 · 가벼운 죄이다 · 무거운 죄이다 · 유여죄(有餘罪, 참회하거나 벌을 받으면 청정해질 수 있는 승잔죄 이하의 죄)이다 · 무여죄(無餘罪; 완전한 복권의 가능성이 없는 바라이죄)이다 · 추죄(追罪; 바라이죄와 승잔죄)이다. 비추죄(非追罪; 승잔죄 이하의 죄)이다'라고 서로 싸우며 의견이 나뉘어 쟁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언쟁은 교리나 계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논쟁하며 결국 쟁사로 발전한 경우이다. 예를 들자면, 불멸 후 100 년경 웨살리에서 있었던 십사(十事)를 둘러싼 쟁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웨살리의 왓지족 출신 비구들은 금은수납을 비롯한 열 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야싸라는 비구가 이것은 비법비율로 율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쟁사가 발생했다.

법이나 율에 비추어 볼 때, 십사가 합법인가 아닌가에 관해 의견이 나뉘어져 쟁사로 발전한 경우이다. 또한 '갈마건도'에 전해지는 아릿따비구의 예도 언쟁에 속한다. 아릿따라는 비구는 붓다가 장도법(障道法)이라고 설한 것, 즉 음욕법을 실행해도 전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악견을 주장했다. 다른 비구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고쳐 주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을 버리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쟁사가 발생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법이나 율을 해석함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을 언쟁이라고 한다. 법과 율은 불멸후의 불교 승가에 있어 붓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중요한 승가의 의지처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하게 되는 쟁사는 승가의 분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멱쟁(覓諍, anuvādādhikaraṇa)

멱쟁은 비구들이 어떤 한 비구를 괴계(壞戒) · 괴행(壞行) · 괴견(壞見) · 괴명(壞命)이라 비난하며 교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괴계란 4바라이와 13승잔, 괴행이란 투란차와 바일제, 바라제제사니, 악작, 악설을 가리킨다. 괴견은 잘못된 견해를 품고, 정법이 아닌 것을 존중하며, 정각자를 비방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괴명은 생계를 위해 탐욕스러우며, 맛난 음식을 자신을 위해 구걸하여 먹고, 병중이 아닌데도 스프나 밥을 자신을 위해 구걸해서 먹는 것을 말한다. 즉, 이로 미루어 보아 난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쟁사를 주로 가리킨다. 즉, 한쪽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승가에 고발하지만, 고발된 당사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싸우는 경우로 고발을 계기로 승가를 무대로 유죄와 무죄 여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쟁사이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동안거 직할교구 포살법회

승가는 화합을 가장 중요시 해
쟁사 발생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원만해결하기 위해 멸쟁법 고안
멸쟁법에 한국불교 해법 담겨 있어

멱쟁은 어떤 비구의 행동이나 견해에 대해 다른 비구들이 죄를 찾아 비난하며 범죄 여부를 제기했으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비구들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사실무근의 경우와 실제로 죄를 저지른 경우와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율장에서는 사실무근인 경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율은 이 쟁사의 대표적인 예로 '멸쟁건도'에 전해지는 답바 말라뿟따라는 비구의 사건을 들고 있다.

멧띠야라는 비구니는 '답바비구가 나를 범했다'라며 그에게 무고하게 바라이죄의 누명을 씌었다. 하지만 답바가 이를 사실무근이라 강력히 부인함으로써 쟁사로 발전했다. 이와 같이 멱쟁은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구의 행동을 문제 삼아 비난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쟁사이다.

(3) 범쟁(犯諍, āpattādhikaraṇa)

범쟁은 '5종의 범죄 집합이 범쟁이며, 7종의 범죄 집합이 범쟁이다'라는 말로 설명된다. 바라이 이하의 죄는 보통 오편칠취(五篇七聚)로 분류되는데, 오편이란 바라이 · 승잔 · 단타 · 제사니 · 악작을 말한다. 칠취는 이 오편에 투란차와 악설을 더한 것이다. 범쟁은 어떤 비구가 실제로 이 죄들을 저질러 그에 대하여 쟁론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혹은 쟁사로 발전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죄를 지은 자를 심사하고 복죄(服罪)시키는 절차도 범쟁에 포함된다. 이를 보면 멸쟁법이 반드시 쟁사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 승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화를 다스리고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사쟁(事諍, kiccādhikaraṇa)

사쟁은 승가에서 반드시 실행돼야 할 일이나, 구청갈마, 백갈마, 백이갈마, 백사갈마를 가리킨다. 즉, 승가의 의식이나 회의, 갈마의 절차 등에 관한 합법 여부를 둘러싸고 일어난 쟁사이다.

제2결집 때에 재가신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을 비난한 야싸 비구에게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이 하의(下意)갈마를 실행한 사건이 있었다. 하의갈마란 비구가 재가자에게 폐를 끼친 경우에 재가자에게 찾아가서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갈마이다. 이것은 야싸 비구 측에서 본다면 제대로 이뤄진 갈마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갈마에 야싸가 참석한 것도 아니며 야싸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은 채 이루어진 징벌 갈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싸 비구는 이 갈마가 합법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는데, 이로 인해 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쟁이란, 승가의 갈마가 정식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갈마의 유효성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사를 의미한다. 〈계속〉

※본 글은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불교교단사연구소 편, 혜민기획, 2005), pp.33~65에 이미 게재한 논문을 일부 수정 · 보완한 것이다.

이자랑(HK연구교수, 일본 동경대 박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개처럼 살면 죽어서도 개 된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



무산 오현 스님은 …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6세 때 절집 소머슴으로 입산해 행자생활을 하고 삭발염의 했다. 1959년 직지사에서 성준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8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비구계 수지. 신흥사 주지, 백담사 낙산사 신흥사 회주를 거쳐 현재는 신흥사 조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구성하여 1999년부터 매년 만해축전을 개최하며 세계평화시인대회,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등을 열었다. 제19회 정지용문학상(2007년), 제16회 공초문학상(2008년), 제5회 DMZ평화상 대상 수상. 시집 〈심우도〉 〈절간이야기〉 〈아득한 성자〉 산문집 〈선문선답〉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벽암록〉 등 다수 펴냄.

상(賞)은 기쁨이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다. 그 모양을 지켜보며 박수 보내는 사람 또한 기쁘다. 어떤 이름의 상이든, 어떤 내용의 상이든 상은 기쁨이다.

상은 성찰(省察)이다.

귀감이 되는 일을 되새겨 즐거워하고 여럿이 본받으며 세상에 아름다운 추억 하나 만들어 놓는 일이다. 그래서 시상식 행사장은 축제분위기이고, 그 속에는 되돌아보는 겸허함과 내다보는 희망이 공존한다. 겸허는 받은 사람의 몫이고 희망은 받고 싶은 사람의 몫이겠다.

상은 깨달음이다.

주고받는 상패와 상금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속에서 분출되는 에너지야 말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덕으로 회향되는 깨달음이다.

제2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장은 기쁨과 성찰과 깨달음이 만개한 축제 마당이었다. 그 자리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인공 오현(五鉉 신흥사 조실) 스님의 삶이 그러하다. 일거수일투족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뭇사람들에게 깨침의 울림을 나눠주는 보시(布施)이니 포교대상이라는 이름에 딱 들어맞음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상패에 새겨진 문구가 종정(宗正)의 증명이다.

"위 스님은 평생 수행과 포교로 종도들의 사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에 공헌하였으며 특히 만해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와 문화교류에 앞장섬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포교대상 대상을 수여합니다."

산중에서는 비길 이 없는 이판(理判)의 선승, 교구(教區)와 종단에서는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사판(事判)의 지도자, 문단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구(一句)'를 토해내는 시인이 오현 스님이다. 이판과 사판을 '한 판'으로 융합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르는 에너지를 분출시켜 온 것이 안팎을 아우른 오현 스님의 진면목이다.

오현 스님은 언제나 부정(否定)한다. 관습에 물든 사유를 부정하고, 형식에 얽힌 짓거리들을 부정하고, 진정성이 흐린 말(言語)들을 부정한다. 물론 스님의 부정은 대긍정(大肯定)으로 가는 자비의 통로다. 부정이 강할수록 진실로 다가서는 길은 넓어진다.

"야~야. 그게 아인기라."

이 한마디로 세상의 참과 거짓을 하나의 길로 열어버리는 솜씨가 많은 시편(詩篇)들에 흐르고 있다. 오현 스님의 시 '아득한 성자'는 하루가 전생(全生)인 하루살이를 통해 생멸의 이치를 꿰뚫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를 오현 스님의 오도송(悟道頌)이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살아 있는 이 순간, 모든 것이 아득하다. 누구나 행복 하고 싶지만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다. 근심걱정 없는 시간이 별로 없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지 않는 시간도 많지 않다. 행복보다는 불행이 지배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러나 그 희박한 시간의 틈바구니에서 하루살이처럼 제 할 일 다 하고 죽는 즐거움이 있어 누구나 성자다. 그 적멸의 즐거움을 누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극락과 지옥이 갈려 있을 뿐.

"지식의 노예 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야 깨달은 삶"

만해 스님 정신이어 '유심' 복간하고 만해대상 축전 등으로 인류 평화 모색

아득함을 되돌려 깨침의 열락(悅樂)으로 현전시키는 힘, 오현 스님은 부정의 긍정으로 그 힘을 찾아내라고 거듭거듭 독려한다. 열쇠는 연기(緣起)와 인과(因果)의 질서 속에 묻혀 있는 무상(無常)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제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확대하면 1년 전 또는 10년 전에도 살았고, 1년 후나 10년 뒤에도 살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전생과 내생으로 연결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설명이 존재의 영원불멸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무상한 존재라는 점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만약 불변의 존재라면 늙거나 변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매순간 다른 존재가 영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쓰러질 때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집니다. 다시 말해 개처럼 살면 살아서도 개로 불리고, 죽어서도 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라는 관념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윤회가 있다면 지은 업보대로 받을 것입니다. 첨언하면,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그림자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그림자가 그 사람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기운 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아름다운 인연 刊)

지금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있는가? 극락을 향해? 지옥을 향해? 자신의 그림자를 잘 살펴 볼 일이다. 오현 스님은 법상(法床)에서도 한결같이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주문한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눈멀고 귀먹은 길, 그래서 눈 열리고 귀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시는 말씀 언(言)에 절 사(寺)로 이루어져 있다. 말과 글을 버리는 곳이 절이다. 대학 나온 사람보다 박사 석사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돼요. 지식의 노예가 돼 가지고. 글을 배워 놓으면 문자의 글자의 노예가 돼요. 아는 척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것 아무 필요 없어, 중 공부 하고는. 은행직원이 돈세는 것이나 똑 같아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헛일이라."

"세상에 내 것은 없는 거야.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세속의 길이고 또 하나는 종교의 길이다. 여러분이 가는 세속의 길은 해가 뜨는 길이고 종교의 길은 해가 지는 길이다. 지식도 버리고 깨달음도 버리고 부처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세속의 길과 종교의 길은 방향이 다를 뿐 나중에 만나는 것은 똑같다."

시상식에서 소개한 영상물에 나온 스님의 상당법어 내용이다. 하나의 길, 깨닫기 위해 깨달음마저 버리라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오현 스님은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읊었다.

무금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
몸을 폈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갉아 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기는 벌레 한 마리의 생에서 자화상을 관철(觀徹)하는 안목이 오현 스님의 가풍이라면, 이 '내가 나를 바라보니'라는 시도 하나의 오도송일 터. 스님의 말대로 시는 언어의 도량이니 깨달음의 향훈(香薰)이 스미지 않은 것은 시라 이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신경림 시인이 "스님은 수행자니까 그냥 수행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시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시로 씁니다. 어떤 설움이나 기쁨이나 하여튼 그런 감정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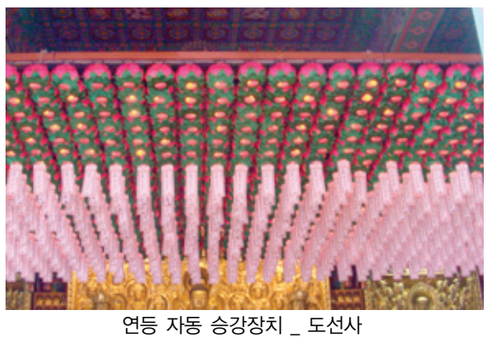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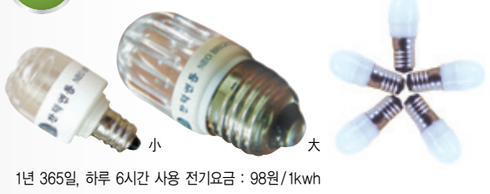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제 할일 다하는 이가 聖者이다



조계종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을 대신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무산 오현 스님에게 포교대상을 전달하고 있다.

어나면 그것을 문자로 붙들어 놓은 것이 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광석화와 같아서 말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비친 달그림자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달그림자는 부서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 부서지기 이전의 상을 시로 담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깨달음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은 직설로 도달하기도 하지만, 격외(格外)로 격을 이루기도 한다. 물론 가보면 직설도 격외도 한 길일 것이다. 오현 스님은 물외(物外)에 머물며 물상의 본질을 투과해 그 너머의 진리를 보여 주기 위해 시라는 방편을 선택했을지 모른다. 언젠가 물속에 비친 달을 건져 설악산 대청봉에 걸어두려는 욕심으로.

어디 시만이 방편이겠는가?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 해마다 만해축전을 개최하여 한국 문학의 새로운 영양공급원을 이뤄 낸 것도, 만해대상을 제정해 인류의 평화와 정신문화사를 선도하는 것도, 시전문지 〈유심〉을 복간해 문단의 핵심적인 시전문지로 발전시킨 것도 깨달음의 사회를 지향하는 오매불망의 원력이다.

그 동분서주한 원력의 나날들 틈바구니에서 감로수처럼 솟아난 시들이 오현 스님의 골수(骨髓)이니

깨달음은 직설로 얻기도 하고
격외로 격을 이루기도 한다

깨달았다는 사실보다는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야

시를 빼고 오현 스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7년 오현 스님의 시 '아득한 성자'를 제19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며 고은 시인은 짧은 심사평을 내놓았다.

벽에 그림을 그려 두었더니
그 그림이 살아나서 그린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다니!
이 격외(格外)와 이 의외(意外)가
안개 자욱한 내설악
안개 걷히운 외설악을 아우르고
있게 되다니!

과연 오현음(五鉉吟)의 높이로다!

선지식이란 말은 깨친 이를 뜻한다. 이미 깨달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을 선지식이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든 그 장소가 어디였고 세월이 얼마였든 상관없다. "깨달았다는 것조차 버려야 한다"는 오현 스님의 말은 깨달았다는 사실보다는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깨달은 이, 선지식의 삶은 어떤 것인가? 스님의 시 '절간 이야기 31'에 나오는 청개구리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게으른 세수를 하고 대야의 물을 버리기 위해 담장가로 갔더니 때마침 풀섶에 앉았던 청개구리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 담장 높이만큼이나 폴짝 뛰어 오르더니 거기 담쟁이 넝쿨에 살푼 앉는가 했더니 어느 사이 미끄러지듯 잎 뒤에 바짝 엎드려 숨을 할딱거리는 것을 보고 그 놈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감탄을 연거푸 했지만 그 놈 청개구리를 제(題)하여 시조 한 수 지어 볼려고 며칠을 끙끙거렸지만 끝내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 놈 청개구리 한 마리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몇 겁(劫)을 두고 찬미할지라도 다 찬미할 수 없음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



글=임연태 (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용이 될 뻔 했습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지난 주 음악회에 갔다. 리스트(Liszt)는 헝가리가 낳은 작곡가요, 피아노 독주자이다. 리스트라는 이름은 16~17세기경 헝가리 민족을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음악가 리스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주자는 피아노 독주곡 악보를 통째로 암기해 건반 위에 토해 낸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거나 숙달됐다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 마지막 출연한 메조소프라노는 우리 가곡을 부르지 않을까 기대 했었는데 웬걸 숨넘어가게 하나님만 찾고 있었다. 딱한 광경이 지속되었다.

종교(Religion)는 라틴어로 religio이다. 동 떨어진 신과 인간을 결합한다는 의미이다. 그 신은 차별이 있지 않은 평등한 성품을 지녔을 것이고, 인간 역시 지역이나 색깔로 나누어 질 수 없는 동일한 사람이다. 종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일신의 신봉보다 만인의 이해와 사랑이 우선 할 것이다. 관객은 리스트의 피아노곡을 이해하고 감상하고자 한 것이지 특정 종교의 선교회에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는 Union(결합, 통합)과 Religion(종교)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갈등 없는 통합된 종교(Uniligion)가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 예술가는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지 궤를 벗어나면 추하게 보일 수 있다. 그녀의 행위를 보고 Unilig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됐다. 훗날 다음 세대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렇다고, 절묘한 표현이라고 갈채를 보내리라 믿는다.

소련의 사회주의가 일찍이 붕괴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낙원이 됐던가. 지금 월가(Wall Street)에서는 공동분배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침내 진압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념도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념의 대안은 무엇인가. 자연이다. 꽃을 노래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야 말로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해온 공동선이다.

형형색색이란 말이 있다. 색은 각각의 문화와 문명의 개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막의 붉은 모래는 불모의 땅을 의미했다. 나일강의 홍수에 의해 초래되는 검은 흙이 생활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검은색을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존중하고, 붉은색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숲의 나라이고 장작불을 상기시키는 붉은색을 신성한 색으로 선호하였다. 붉은 광장도 신성한 광장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는 보라색과 노란색이 하늘과 대지를 상징하는 색으로 숭배의 대상이었다. 하늘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북극성이고, 그 근처에 천제(天帝)의 궁궐인 자미궁(紫微宮)이 있다고 여겼다. 징조(徵兆)가 보인다는 말은 별의 움직임을 말한다. 인간의 행운이나 행복은 북극성이 지배한다고 믿었다. 풍수에서 으뜸가는 혈처를 자미원국(紫微垣局)이라고 하는데 작은곰자리를 말한다. 실제로 별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미묘한 자색으로 보인다고 믿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이다. 마침내 보라색은 우주를 총괄하는 천제의 색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황하 문명은 노란색의 대지인 황토 평원에서 발달했다는 이유에서 노란색이 대지를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그 때문에 역대 왕조들의 황제가 입는 관복은 명황색(明黃色)이라 불리는 노란색을 이용했다. 북경 자금성 궁전들이 황색 지붕 기와로 덮여 있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종교는 신과 인간의 결합을 뜻해
통합된 종교(Uniligion) 추구해야
구시대의 유물인 이념을 버리고
자연에서 인류의 공동선을 찾자

〈조당집(祖堂集)〉 제16권에 황벽희운 선사와 배휴(裵休)의 이야기가 있다. 배 상공(相公)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깊어 죽고 말았다. 선사가 마침 그 집에 있다가 상공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상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공이 얼마 있다가 깨어났다. 깨어난 상공은 저승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명부(冥府)에 들어가 보니 다리가 있어도 다닐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40~50리쯤 가다보니 지쳤습니다. 갑자기 연못이 보이기에 내가 그 못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노승이 못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벽선사를 뵙게 됐습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만일 노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상공께서는 용이 될 뻔 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거나 무엇과 무엇의 결합은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되고 신물질이 만들어진다. 수소와 산소의 적당한 배합으로 물이 만들어진다. 물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당장 성인을 대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경전이나 어록을 접하므로 인생의 틀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실제로 만남이 없이 피상적인 공상만으로는 그 무엇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안전과 사고예방 축원불공마쳐!

호신불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고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좌 – 불광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

내 마음 속의 성스럽고 영원한 사랑의 맛을 보라

〈그대 삶이 경전이다〉의 저자 무각 스님(불광선원 · 공생선원 선원장)이 10월 26일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연을 열었다. 스님은 도심에서 대중들에게 '선(禪)'을 지도하고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선과 〈금강경〉의 필요성을 밝혀왔다. 스님은 이날 야부 스님의 게송과 〈금강경〉 해설을 통해 본래의 불성(佛性)을 일깨워 진정한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고 강조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그대 삶이 경전이다〉의 저자 무각 스님

금강반야바라밀이란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야부 스님의 송(頌)을 중심으로 스님의 안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부 스님의 안목에 비추어 드러난 〈금강경〉을 각자 자기의 안목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스스로 깨달아 가는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인(古人)의 말씀에 "새 꽃은 옛 가지를 의지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지혜는 앞서 행하고 가신 선배, 선지식들의 지혜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곧 앞선 선배요, 지금 후배인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가 둘이 아니고, 선배는 후배로 해서 있고 후배는 선배로 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오가해〉에서는 부처님, 수보리, 야부 스님 모두를 만납니다. 부처님과 수보리, 야부 스님과 이 경을 보는 자 모두 한집안의 한소식인 것을 알아야 비로소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내가 경을 보지 않고, 경이 나를 보지 않아야 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고 했던 뜻을 조금은 간파했다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제목 속에는 〈금강경〉의 종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금강(金剛)은 가장 단단하고 견고해서 번뇌, 망상, 고통, 업 등 모든 경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부서지지 않는 영원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금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나기 이전 고요한 그 자리를 무심 자리라하고, 무심이 곧 부처이며 금강인 것입니다.

때문에 〈금강경〉을 바쁘거나 급해서 독송을 할 수 없을 때나 또는 죽음이 엄습할 때, 진실로 믿고 자성의 부처를 생각만 해도 그 공덕은 한량없이 무한한 것입니다.

금강과 같은 말로는 마하가 있습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그 보다 더 큰 것이 오면 작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를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습 · 없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마음, 마하반야바라밀 그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반야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물결이 잔잔해지면 만상이 다 드러나고 비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것이 오면 크게 비춰지고, 작은 것이 오면 작게 비춰지며, 붉은 것이 오면 붉게 드러나고, 검은 것이 오면 검게 드러나는 것이 반야입니다.

바라밀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덕은 생사가 있고 고통이 있고 너와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있는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저 언덕은 절대의 세계입니다. 생사도 없고 번뇌 망상도 없고, 너와나 옳고 그름 좋고 나쁨도 없는 초월된 세상입니다.

그곳을 열반의 세계, 도피안이라 해서 '금강반야바라밀' 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속에는 불 · 법 · 승 삼보(三寶)가 구족하고, 법신 · 보신 · 화신 삼신(三身)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고요히 선정에 들어(금강) 한 생각 우뚝 밝아(반야) 평등하게 작용하면(바라밀) 이것이 '금강반야바라밀' 인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경계란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금강경〉에는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과 법을 청하는 수보리, 법을 듣는 대중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처이고, 누가 수보리이며, 누가 대중일까요.

부처님과 수보리와 대중을 따로 보는 견해는 삿된 견해입니다. 〈금강경〉의 본뜻과 한참 어긋납니다. 부처님, 수보리, 대중 모두가 이 경을 읽고 있는 그대 마음 가운데 드러난 자성의 작용임을 알아야 둘 아닌 이치를 체험하고 계합하게 됩니다.

부처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나기 이전, 법신의 자리이며 금강의 자리입니다. 수보리는 해공제일이라 공한 이치에 통달한 반야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본래 물들지 않아 청정히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수보리의 마음입니다.

대중은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육도 구류중생입니다. 본래 부처인 근본에서 한 생각 밝은 반야의 마음(수보리)을 드러내면 대중이 모두 밝아져 해탈하는 것입니다. 법신 · 반야 · 해탈 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곧 셋이 되는 것입니다.

〈천친론〉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호념하심은 근기가 성숙한 보살을 의지해 설함이니 지혜의 힘을 주어서 불법을 성취하게 하고 교화의 힘을 주어서 중생을 통솔케 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심은 근기가 미숙한 보살을 의지해 설함이니 혹 물러설까 두려워해 지혜로운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은 부숴지지 않는 영원함
반야는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춤

부처님께서 호념하시고 부촉하시는 보살들 또한 이 경을 보는 사람과 둘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 속에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모두 들어 있어서, 인연 따라 번갈아가며 그 의식들이 나옵니다. 이때 근기가 성숙한 의식들 즉, 보살들이 나오면 불법을 성취하게 하고 중생을 통솔하게 합니다. 근기가 미숙한 의식들 즉, 보살들이 나오면 지혜로운 한 생각을 잘 돌려서 이끌어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작용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여래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찬탄한 것입니다.

근기가 성숙한 의식들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근기가 미숙한 의식도 우리를 밝음으로 이끌기 위해 출현합니다. 자기 마음의 금강 · 반야를 닦기 위해서 경계가 끝없이 출현하는 것이니 경계가 나타나면 오히려 이것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직도 닦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닦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닦을 것이 안 오면 큰 문제입니다. 마음 거울이 더러운데 닦을 경계가 안 나오면 무엇으로 닦을 수 있겠습니까? 경계가 출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오는 구나" 하고 싱그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문제는 항상 터지는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요, 항상 괴로움에 쌓여 있는 사람이 중생입니다.

만물 만생이 모두 부처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오니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으오리까."

수보리가 "제가 (발심했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말한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남자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이 일체를 낳게 했으면서도 스스로 내세우지 않고 무심이듯이, 본래 고요히 만법을 갖추고 능히 일체 공덕을 성취해서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는 것이 본래의 자리입니다.

선여인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며 대지의 마음입니다. 만물만생을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흰 것은 희게, 붉은 것은 붉게 천차만별로 응해 길러내는 것은 스스로 지혜의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인 육도(六道)의 마음을 바른 지혜로써 평등하게 사랑을 베풀고 제도함이 차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의 어머니 역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 잘 성장해 성인이 되듯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인 선남자와 어머니의 성품인 선여인 사이에 일체 중생이 훌륭하게 커서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선남자인 본래 부처의 성품에 머무르고, 선여인인 지혜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항복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야부 선사의 송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도다.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도다.
가을 달 봄꽃의 무한한 뜻은
그 속에서 다만 스스로 알 뿐이로다.

'그대는 기뻐도' 하는 것은 선여인이고, '나는 기쁘지 않고' 는 본체 자리인 선남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본래부터 함께 존재하는 것이어서 인연에 의해 나투는 것 뿐입니다.

'기러기는 북쪽을, 제비는 옛집을 생각한다' 는 것은 우리가 숭상하는 모든 행위들이 본질적으로 진리를 향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두 대광명으로부터 나와 지금 한 생각 무명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본래 고향인 광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인생은 모두 부처로 가는 구도자라고 뜻입니다.

'가을 달 봄꽃의 무한한 뜻은' 가을 달과 봄꽃 즉, 만물 만생이 본래 부처의 나툼임을 깨달으면 낱낱이 '그 속에서 다만 스스로 알 뿐이로다' 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명절에 고향에 가려고 하는 행위도 다 본래 고향인 본성자리에 돌아가고자 하는 근원적인 열망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또 어떤 대상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기 마음 속의 성스럽고 영원한 사랑의 맛을 체험하는 것 또한 고아대무변한 나를 알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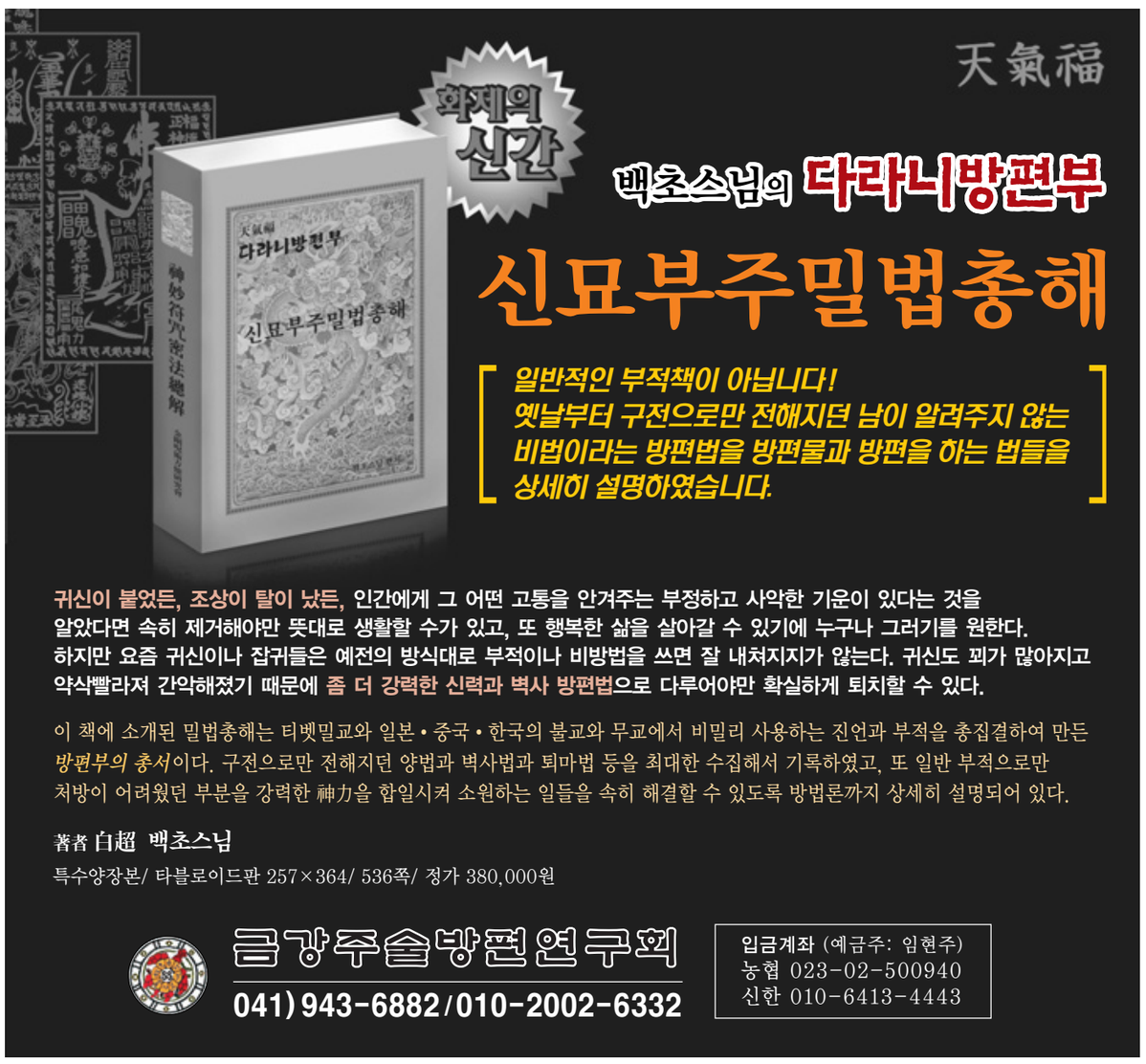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 · 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올해 김장은 '연우와 함께' 친환경 배추로 담그세요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연우와함께와 함께한 '크린김장캠페인'


직할교구신도회원들이 해남의 한 배추공장을 찾아 절임배추 공정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10월 24일 해남 땅끝마을의 배추농원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로 분주해졌다. 비가 내린 탓에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캄캄했지만, 이곳을 찾은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배추를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현수) 50여 신도 회원들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에 걸쳐 해남 배추농원을 방문했다. 고되고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신도 회원들이 해남의 배추농원을 찾은 까닭은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대표이사 이상근)가 진행하는 '크린김장캠페인' 때문이다.


무농약으로 재배한 배추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해남 대흥사를 둘러보는 신도회원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김치와의 전쟁을 앞둔 주부들은 근심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겨울의 양식'이라 불리는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꼭 올라와야 할 대표적 음식이지만, 막상 김치를 담그는 일은 그다지 수월치 않다. 특히 주부들에게 김치를 담그기 전, 배추를 비롯한 각종 양념재료들을 선택하는 일은 또 하나의 골칫거리다. 특히나 요즘처럼 식품에 대한 안정성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는 재료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우와함께는 최근 주부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크린김장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크린김장캠페인'이란 배추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절임과정의 단계들을 투명하게 밝혀 소비자들이 각 가정에서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행사이다.

특히 행사는 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재료를 가공해 납품하는 유통자, 그리고 납품된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연우와함께 이재원 부사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떻게 하면 불자님들이 더 안심하고 김치를 드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이 같은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행사를 진행한 또 다른 목적은 불자님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제고시켜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는 약 6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행사에 참여한 직할교구 신도회원들은 이날 배추가 어떻게 재배되고, 어떻게 공장에서 절여 지는지에 대해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다. 본래 해남 지역의 절임배추는 맛이 좋아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

> 김장철 앞두고 주부 근심 크지만
> 생산부터 절임까지 투명 관리한
> '크린김장캠페인' 행사 배추라면
> 온가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날 신도 회원들은 해남 배추 중에서도 무농약으로 재배된 배추들을 살펴보고, 최신식 자동시스템을 통해 천일염으로 저려지는 배추의 공정들을 모두 지켜봤다. 무농약으로 재배된 배추밭에는 농약을 친 배추밭에 비해 잡초도 무성하고 배추의 크기도 다소 작은 편이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배추들이 훨씬 더 크고 싱싱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보살들은 친환경 배추의 실제 모습에 다들 놀라워했다. 이어 신도회원들은 곧바로 배추공장으로 이동했다. 배추공장의 배추절임 작업은 가정에서 배추를 절이는 것보다 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진행됐다.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에어바람으로 살균을 하고 작업복을 착용한 채, 오염물 방지를 위해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작업을 한다.

이재원 부사장은 "재료의 생산단계부터 공정, 유통단계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어느 회사의 제품보다 더 우수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불자들이 불교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앞으로 불교계도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이재원 부사장은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일부는 모두 불교계로 환원된다"며 "결국 불자님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불교계도, 사회적 기업도 함께 공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우와함께가 이번에 진행한 '크린김장캠페인'은 한미FTA로 인해 어려워질 농가 살림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사장은 "이번 행사가 점차 자리가 잡히면, 불교계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것은 물론 어려운 농가의 살림살이에도 많이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선 해남들녘의청년들모임 이사는 "지난 5년 전부터 친환경 배추재배를 실시해왔지만 특별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었다. 정부에서 친환경 재배를 권장하지만, 홍보할 기회가 없어 농가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농민이 이렇게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좋다. 그만큼 우리가 재배한 배추들에 대해 자신이 있고 많이 알리고 싶다. 이런 자리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윤자명 직할교구신도회 부회장은 "잡초가 하나도 없는 배추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만큼 농약이 식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자란 식재료들을 지금까지 먹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배추가 어떻게 절여지는지 직접 체험해 보니 안심이 되는 것 같다. 모든 음식들이 이처럼 깨끗하게 공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 행사를 통해 연우와함께가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불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쓴다는 것도 알게 됐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주변 불자님들에게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크린김장캠페인' 행사는 배추밭과 공장답사는 물론 대흥사 순례길도 함께 진행됐다. 이재원 부사장은 "앞으로 순례길과 더불어 각 지역의 대표 농산물들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불자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불교계 사회적 기업 연우와함께…

연우와함께는 불교의 불이사상과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만남과 함께하는 마음,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이다. 바른 소비문화를 구현하고자 '착한소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기업의 이익은 어려운 이웃과 사회 및 교계에 다시 회향돼 선도적 사회적 기업을 목적으로 한다. 연우와함께는 불자와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아름다운 인연을 통해 일자리 창출, 건강한 소비문화, 농촌 불자 되살리기 등 불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고 있다. 1611-1233

창사 18주년 기념

VVIP 성지순례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16일, 1월 27일, 2월 7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2,10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11월 ~ 12월 14일까지 출발상품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74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90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2,100,000원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불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미산 | 구채구 | 낙산대불 | 황룡사 6

■ 방콕 | 파타야 5일

■ 세계7대불가사의 앙코르왓트 씨엠립 5일

■ 라오스 5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꿈에 본 것들 그려내니 모두의 마음 편안하여라

만다라 작가 김영옥 네 번째 개인전 '붉음의 화두'…15일까지 공간 루에서


고요한 동방의 빛(60×30㎝)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다. 잠에서 깨고 나면 사라지는 환영이지만 이 무의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가가 있다. 만다라를 그리는 김영옥 작가다.

김 작가의 작업은 꿈의 무의식을 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김영옥 작가는 칼 구스타브 융의 꿈 분석 심리에 관심을 갖고 꿈의 기록과 스케치를 당연한 일과처럼 여겼다. 그는 잠에서 깨면 꿈의 소재들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어느 날 김 작가는 꿈에서 한 권의 그림책을 보았다. 꿈에서 본 것이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옮길 정도로 기억이 생생했다. 그림들은 모두가 붉게 새겨서 찍은 것이고, 그림 사이로 빛이 고요하게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한 장씩 넘길 때 마다 각도에 따라 빛의 그림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김영옥 작가는 꿈에서 깨어나 기억을 더듬어 돌새김 작업에 열을 다했다. 그의 작품은 해인(海印), 고구려 고분벽화, 만다라와 닮아있었다.

조선후기 민중 사이에서 인장(印章) 중 최고의 인장이라고 전설로 떠돌던 해인은 그 연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신라시대 의상 대사의 법성게가 그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김 작가의 작품은 법성게처럼 중첩된 기하학적 무늬를 담고 있다.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처럼 들어가는 느낌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원을 향하도록 흡인시키는 우주의 힘으로 느껴진다.

또 김 작가는 꿈에서 본대로 고구려 고분에 나오는 벽화의 이미지를 작품에 담고자 했다. 특히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색을 중심으로 고분벽화에서 우러나오는 고대적 색감을 연출했다. 더불어 그의 작품에는 우주의 블랙홀이 연상되는 만다라의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조용헌 원광대 교수는 "김영옥의 그림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우주의 근원으로 쏠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중심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주변적 요소가 떨어져 나가는 작용이 함께 일어남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 정화돼 우주의 근원과 소통된다는 느낌을 주므로 심리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평했다.

김영옥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내가 추구하는 예술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며 그것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며 "이번에 전시하는 만다라 작품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세상을 정화시키고 마음과 정신을 치유케 하는 치료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작가는 〈만다라를 통한 명상치유-붉음의 화두〉(공간 루刊)책을 펴냈다. 이 책은 다른 장르의 예술에 비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편인 그의 작품과 작가의 내면세계를 기록한 명상집이다. 전시회는 11월 15일까지 공간 루 정동 갤러리에서 열린다. (02)765-1883


김영옥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장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양선희氏 '신중도' 大賞

조계종 문화부, 불교미술대전 결과 발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최종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는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135작품을 분야별로 진행해 수상내역을 결정했다.

불미전 수상작품은 52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1점, 입선 29점이다.

대상은 양선희 씨의 '신중도(회화부문 · 사진)'가, 최우수상은 김영찬 씨의 '마애약사삼존불(조각부문)'과 김승열 씨의 '옴마니반메훔 소통과 천우사화 소통(공예부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이용주 씨의 '고행상(조각부문)', 유현정 씨의 '나한도(회화부문)', 한은순 씨의 '쪽염색 누비장삼(공예부문)'이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문화부는 그동안 작품설명서 심사로 시행해오다 불미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제작품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문화부는 "이번 불미전은 불교미술의 전통성에 중점을 두고 창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알맞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시상식과 전시개막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시회는 11월 29일~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뮤지컬 '원효' 통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최종미 MBC 공연전문 프로듀서 "원효의 사상 한국인의 정서에 살아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원효' 같은 뮤지컬을 만들어 한류문화를 선도해야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여의도 MBC본사에서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앙코르 뮤지컬 '원효'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최종미 MBC 공연전문 프로듀서(사진)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인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화쟁(和諍)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는 국립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한다"고 말했다.

'아이다' '지킬 앤 하이드' '라이언 킹' 등 해외 유명 뮤지컬을 국내에서 연출한 최종미 PD는 가톨릭 신자다. 하지만 '원효' 제작을 맡으면서 불교와 원효 대사에 대해 공부하고 전국 각지의 사찰을 돌면서 불교에 푹 빠졌고 개종을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원효' 뮤지컬 공연이 끝나면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에 동참할 계획이다.

최 PD는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의 정신분열을 다루는 내용인데 '원효'는 분열된 정신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사상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1400년 전인 삼국통일 전 복잡한 격동의 시기에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이 신라에 영향을 미쳤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정신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원효 대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 PD는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에 동참했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 때는 온 나라가 슬퍼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원효의 사상적 토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에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PD는 "뮤지컬 '원효'를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K-POP)과 드라마에 이은 또 하나의 한류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4대 뮤지컬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70% 이상을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점령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듯,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면 100% 창작 뮤지컬 원효를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미 PD는 "뮤지컬 '원효'는 사극이 아니다"며 "역사극임에도 결코 고루하지 않다. 음악, 대본, 무대, 의상 등 모두 현대적인 컨셉이다. 젊은이들이 관람해도 후회 않는다"고 전했다. 불교 사상에 매료된 그는 "'원효' 공연을 마친 뒤에는 대장경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앙코르 공연 '원효'는 원효 역에 홍경민, 김정민이 더블캐스팅 됐으며 요석 공주 역에는 배해선, 이은혜가 캐스팅돼 화려한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성악가 정율 스님이 원효 어머니역으로 전격 캐스팅돼 눈길을 끈다.

앙코르 공연 '원효'는 업그레이드 된 최첨단 LED로 황룡사가 등장하고 원효와 요석이 만나는 사랑의 다리 월정교는 달과 강물이 은은하게 퍼져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하며 진일보한 무대 기술을 선보인다.

뮤지컬 '원효'는 11월 5~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며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는 티켓을 구입할 경우 40% 할인 받을 수 있다. (02)789-4883~4 이나은 기자

문자와 조각이 만나니 멋드러진 예술이 됐네

전정구 개인전 '칼과 붓' 목인갤러리서

문자와 조각이 합쳐진 장르를 표현하는 전각가 오제 전정구의 4번째 개인전 '칼과 붓'이 11월 9일까지 인사동 목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정구 작가는 전각에 입문하면서부터 독창적인 조형과 불교의 선적인 세계를 표현하며 조각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었다.

최근 전 작가는 한지를 이용해 질감을 살린 탁본과 수묵만을 이용한 선화와 전각판화로 작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전 작가는 돌이라는 재료가 담고 있는 투박함과 다시 종이에 반전 되어지는 평면적인 표현을 빌려서 판화와 수묵화로 단순하게 재해석해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02)722-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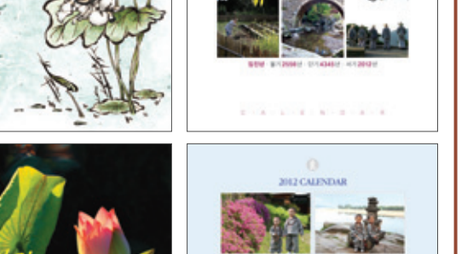

'청산은 나를 보고'의 한문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9~10/2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3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앤북스
4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5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6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7	마음공부 첫걸음	김명우	민족사
8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9	경전숲길	정운	조계종출판사
10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서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감나무 아래 서 있기만 해도 온갖 병이 사라진다

감을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져 장수를 돕는다 〈본초강목(本草綱目)〉

조선 세종 때 간행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에는 '감나무는 일곱 가지 덕을 가진 나무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고 기록돼 있다. 예로부터 '감나무 밑에 기대 서 있기만 해도 온갖 병이 사라진다' 는 말이 있을 만큼 감은 유용한 과일로 여겨져왔다.

11월은 홍시의 계절이다. 같은 감이지만 단감, 홍시, 곶감은 조금씩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본래 단감은 익어도 홍시가 될 수 없고 부피가 가장 작은 곶감은 당도가 가장 높아 칼로리가 가장 높다. 단감은 100g당 44kcal, 홍시는 65kcal이다. 곶감은 216kcal로 칼로리로만 따지면 곶감은 살찌는 음식으로 인식 하기 쉽다.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곶감을 약으로 사용할 만큼 귀하게 여겨왔다. 감의 종류별 특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영양만점 감으로 건강을 지켜보자.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감은 비타민 덩어리

홍시는 귤보다 비타민C가 2배 많다. 비타민C는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다. 비타민A도 많아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로서 항암 활성, 항산화 작용을 돕는 카테킨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 있다.

특히, 감에 들어 있는 구연산은 청뇨(소변을 깨끗이 하는 것), 근육 탄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해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유용하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사를 멎게 하고 또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또 감에는 알코올 분해를 촉진시키는 과당과 비타민C, 수분 등이 골고루 들어 있어 과음 후 먹으면 좋다.

주황색을 띄는 감은 당근, 늙은 호박과 함께 베타카로틴이 다량으로 함유된 식품 중에 하나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하고 발암 원인을 사전에 막아 암을 예방한다.

〈동의보감〉·〈본초강목〉 등 에는 곶감과 홍시가 위, 십이지장 등 소화기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또 곶감에는 감과 홍시보다 포도당과 성분이 많아 피로 회복에 뛰어나다. 감기에 걸려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며 기침이 나올 때도 민간요법으로 곶감을 먹었다. 기관지염에도 곶감 3~4개를 구어 먹거나 생강과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다. 설사를 멎게 해주고 돼지고기와 두부 등에 체했을 때도 곶감을 달여 먹는다.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소화를 도우며 얼굴의 기미를 없애준다. 곶감의 포타슘 성분은 몸 안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감은 냉(冷)한 식품

홍시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냉한 사람과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산모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감의 찬 성질은 심폐를 부드럽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감의 종류

감의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감의 종류는 190여 종으로 열대 아열대에 분포되어있고 온대에는 비교적 적다. 감에는 떫은 감과 단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배종은 대개 떫은 감이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도 달게 먹을 수 있게 개량한 것이 단감이다. 떫은 감이 익으면 홍시가 되고 깎아 말리면 곶감이 된다. 떫은 감은 익으면서 점점 단맛을 더해간다. 단감은 익으면 단맛이 증가되지는 않고 단순히 물렁한 감이 된다.

① **차량(단감)** : 내한성이 강해 중부지방에도 재배 가능하다. 육질이 단단하고 종자수가 적은 편이다. 납작한 단감으로 10월 하순~11월 상순에 수확하며 크기는 220~250g정도이다.

② **둥시** : 경북 상주, 충북 옥천 · 영동이 주산지로 과일 모양은 원형으로 곶감용으로 유명하다. 수세는 강하고 나무 모양은 개장성이며 10월 하순에 수확하고 과일 크기는 180g 정도이며 상주 곶감용으로 유명하다.

③ **반시** : 수세는 개장성이고 비교적 약한 편이나 과일은 담홍색으로 육질은 유연치밀하다. 주로 홍시용으로 사용하며 10월 하순에 수확하고 크기는 200g 정도이다. 청도반시는 씨가 없으나 같은 나무도 외지로 나가면 씨가 생긴다고 하니 아마 온도와 토양의 영향으로 암꽃과 수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한다.

④ **대봉시** : 잎이 크고 수세가 왕성하며 당도가 높고 크기는 300g 이상의 대과 품종이다. 과피색은 등황색으로 빛이 나고 외관이 아름답고 홍시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더운 곳에서는 후기 낙과가 심하므로 여름철에 서늘한 산기슭이 적지이다.

> 홍시는 귤보다 2배 많은 비타민C
> 단감의 떫은 맛 내는 타닌은
>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 곶감의 당분은 기관지염에 좋다

곶감 만들기

떫은 맛이 있는 생감을 완숙되기 전에 따서 껍질을 얇게 벗겨 대꼬챙이나 싸리꼬챙이 같은 것에 꿰어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건조시킨다.

수분이 1/3 정도로 건조됐을 때 속의 씨를 빼내고 손질해 다시 건조시킨다. 그것을 볏짚에 싸서 상자에 늘어놓고 밀폐된 상태로 두면 감이 완전히 건조되면서 표면에 포도당(글루코오스)의 흰 가루가 생기는데, 이것을 꺼내 다시 한 번 건조시켜서 상자에 넣고 밀폐해 두면 곶감이 된다.

곶감 고르기

곶감에 있는 하얀 가루는 일부로 묻힌 것일까? 곶감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슈가 파우더(설탕을 곱게 갈아 빵들에 뿌리는 것)나 방부제 쯤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흰 가루는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자연건조 시킬 때야 비로소 생기는 것으로 자연건조제품이라는 증거이기도하다. 흰 가루가 없는 것은 인공 건조시킨 제품이다.

곶감은 본래 흰 가루가 생긴다. 검을수록 더 달고 비타민C도 더 많이 함유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검은 것은 상했다고 오해하고 흰 가루가 생긴 것은 곰팡이가 아닌가 오해하는 일이 잦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한달 정도 말린 붉은 반 건시 상태로 더 출하하고 있는 경우가 잦다.

감 오래오래 보관하는 방법

감은 실온보다는 0℃에서 가장 오래 그 맛을 유지한다. 냉장고에 온도를 맞추고 보관하면 가장 좋다. 냉장고가 마땅치 않다면 베란다 등 서늘한 곳에서 감 하나하나를 볏짚이나 신문지에 쌓아서 항아리에 보관하면 실온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감의 다양한 활용

① 감꼭지

감꼭지는 예로부터 '딸꾹질의 묘약' 으로 불려왔다. 딸꾹질로 고생할 때 감꼭지를 달여서 마시면 그친다. 감잎에는 다량의 비타민 C와 지혈, 혈압 강하 작용을 하는 루틴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차로 만들어 마시면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② 감식초

감을 1년 이상 발효시킨 감식초는 초산, 구연산, 사과산 등 60여 가지의 유기산이 다양하게 들어 있는데, 소주잔으로 매일 2~3회 장복하면 피로 회복과 체질 개선 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감식초 만드는 방법

재료는 단감이 아닌 떫은 감으로 한다. 먼저 감을 씻어야 하는데 굵은 소금을 뿌리고 여기에 살짝 물기를 넣어서 감을 하나씩 살살 문지른다.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식초에 잠시 담갔다 꺼내 물기를 없앤다. 꼭지를 따고 완전히 말린 뒤 병에 차곡차곡 담는다. 뚜껑을 밀봉해 2~3일간 뒀다가 그 후엔 비닐을 봉하지 않고 그냥 뚜껑만 살짝 덮어둔다. 중간 중간에 뚜껑을 열어 한 번씩 공기도 쐬어 준다. 더 빠른 발효를 원하면 감식초를 약간 넣고 하면 1년 안에 감식초가 된다. 감이 발효되면서 하얀 덩어리 같은 막이 형성 되는데 이는 초막산으로 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5개월 정도 발효시킨것을 채에 걸러내 깨끗한 항아리에 6~7개월간 발효를 시킨다.

③ 아이스 홍시

홍시가 많을 때는 냉동실에 얼려서 두고 두고 아이스 홍시로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홍시를 씻어서 물기를 닦은 후 꼭지를 떼고 얼리면 된다. 홍시끼리 얼면서 서로 붙지 않도록 따로 넣어주거나 비닐에 하나씩 넣어서 얼린다.

④ 감잎차

감잎은 비타민C와 탄닌, 페놀이 풍부하고 칼슘, 인, 철분 단백질 등이 많이 함유돼 있어 차로 마시면 감기, 괴혈병,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좋다. 특히 카페인이 없어 장복해도 좋다. 단, 변비가 있는 사람은 삼간다.

감잎차 만드는 법

감잎차는 5월에 여린 감잎을 다 씻어 그늘에 말린 뒤 잘게 썬다. 말린 감잎을 찜통에 수증기로 1분 30초간 찐다. 이 이상 찌게 되면 비타민C가 파괴 된다. 빨리 꺼내 부채질로 30분정도 열을 식히고 다시 1분 30초간 쪄서 그늘에 널어 말린다. 다관에 마른 감잎과 물을 끓여서 80도 정도로 식힌 물을 넣고 5분 정도 우려 찻잔에 따라 낸다. 찌지 않고 말린 것은 초록색이지만 쪄서 말린 잎은 갈색으로 변한다. 그냥 말린 감잎차는 무색이고, 쪄서 말린 것은 차로 우려내면 노란색이다. 단, 감잎차를 보관할 때는 비타민C의 산화를 막기 위해 밀폐용기에 보관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 – 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NEW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피로를 풀어주는 능인라벤더 향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15,000원 규격 : 약 14cm(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고픈 일이 무엇인가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때때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공간 속에서 내가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어색한 경우마저 있다.

고백하건대 처음 이 병원법당에 발 딛었던 그 순간만큼은 필자가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20여년 전 서울아산병원은 건물 한 동짜리였다. 병원법당의 위치는 지하층 영안실 근처. 작은 법당으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병원법당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처님 도량이 될 줄은 몰랐다. 이곳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출가사문으로서, 수행자로서 내 삶에 미친 영향뿐 아니라 '병원법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도량이 갖게 될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때마침 닿은 인연은 필자로 하여금 병원 안에 이미 마련된 '법당' 안에서 부처님 일을 시작하도록 해주었다. 당시의 '나'는 전법과 포교의 원을 세우지도 품지도 못한 젊은 스님이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절집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막연한 고민과 기대를 안고 있던 시절이었을 뿐이다.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 '스님'이라는 이름을 떼놓고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고민만 넘치던 시기였다.

과연 지금의 이 공간이 내가 있어도 될 곳인지 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경험들은 인생에서 내가 겪어낸 모든 경력과 경험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오직 빈 캔버스만이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려낼 수 있다. 마치 서커스의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막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잡고 있는 막대의 손을 놓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잡고 있는 이 막대를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기만 한다면 내 앞으로 빠르게 돌진하는 저 막대는 절대로 잡을 수 없지 않은가. 아직 발 딛고 나아가지 못한 이 공간과 시간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폭제인 것이다.


병원 법당에서 상담을 하는 지홍 스님의 모습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에 불확실하며 알지 못하는 불안정함 속에서도 내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거나 알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허준 선생의 임신 비방(秘方)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이 유람을 다니던 중에 어느 마을 어귀에서 밤늦게 달빛을 감상하다, 그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의 말을 듣게됐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얘기를 들은 선생은 측은히 여겨 처방을 일러 주었다. 처방은 부인에게 이슬을 받아 마시라는 것이었는데, 부인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에 성공하여 귀엽고 튼튼한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인근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며느리도 임신이 되지 않던 중에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집안의 종들을 시켜 이슬을 받아 오게 해서 한참 동안이나 마셨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슬을 받아 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들이 집안일을 전폐하고 거두어 온 엄청난 양을 오래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부잣집에서는 화가 나서 허준 선생을 찾아가 엉터리 처방이 아니냐고 따졌다.

선생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다가 물었다. "혹시 어떤 이슬을 받아 마셨소?" 그러자 영감마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하기를 "이슬이면 다 이슬이지, 이슬에도 종류가 있소?"라고 되물었다. 선생은 "밤에 엉겨 붙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른 새벽까지의 이슬을 받아 마셔야지, 해뜰 무렵에 풀어지는 이슬을 받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오"라고 답했다.

해가 뜬 뒤에 받은 이슬은 임신을 되게 하기는커녕 임신되었더라도 태(胎)를 떨어지게 하여 유산(流産)이 된다. 요즘은 각종 공해 때문에 임신에 탁월한 효험이 있는 허준 선생의 '이슬 비방'을 쓸 수 없어 안타깝다.

이슬 외에도 임신을 지켜주는 약이 있다. 찹쌀이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 임신부의 태(胎)를 튼튼하게 하므로 유산방지약으로 쓰여 왔다. 태아가 빈번하게 요동하여 임신부의 배가 아프고 아래로 뻗쳐 내려오는 느낌이 있으며 출혈이 보이는 병증을 '태동(胎動)', '태루(胎漏)'라고 하는데 유산전조증이다. 태동, 태루를 치료하는 처방에는 찹쌀이 한 숟가락씩 들어 있다. 호박도 태를 편안하게 해주므로 임신 중에 배가 아프고 하혈이 있거나 부종이 있을 때 좋다.

한편, 임신 유지에 해로운 즉 유산을 유



발시킬 수 있는 음식과 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늘 옻 팥 다시마 미역 해파리 복숭아씨(桃仁) 살구씨(杏仁) 지네(蜈蚣) 거머리(水蛭) 지렁이(蚯蚓)처럼 덩어리나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진 약이다. 사향(麝香)처럼 기를 잘 소통시키는 약, 장군풀(大黃) 아욱씨(冬葵子) 같이 대변이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약, 부자(附子) 계피(桂皮) 건강(乾薑)처럼 열성이 강한 약, 율무 메밀 등의 소화제 메밀 고사리 다시마 알로에처럼 기를 아래로 가라앉히는 음식도 피해야 한다.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면 임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조선의 왕비나 후궁 그리고 명문가의 부인들은 거의 실내에서 생활하고 주로 앉아지내며 가끔 외출할 때도 가마를 타고 다녔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기에 임신이 어려웠다. 그런 부인들이 명산대찰로 백일기도를 다녀오면 임신이 된 까닭은 부처님 가피도 있지만,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기분이 맑아진데다 산길을 걷고 절을 많이 하니 하체와 허리에 운동이 되어 자궁을 비롯한 생식기가 들어있는 골반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배란이 좋아진 탓이다.

여성의 불임은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모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예전보다 체격은 좋아졌으나 인스턴트식품을 즐겨먹고 운동은 하지 않으니 체력이 저하되어 임신과 출산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날씬해지려고 너무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깡마른 몸매가 되는데다 취업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큰 일이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7〉

인간이 고귀한 것은 무상하기 때문

하루가 다르게 낙엽이 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가을은 내게 있어 퇴색된 회색처럼, 무언지 모를 버거움이 있었다. 아마도 삶을 알아가는 전환점에서 인생의 성장통을 겪었던 것이리라. 그런데 이번 가을은 느낌이 다르다. 버리고자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친다고 해서 내쳐지는 것이 아닌 '수용'이라는 단어로 이 가을을 보내고 있다.

아직 노안이 올 때가 아닌데 보는 것에 불편하고, 건강은 예전에 비해 좋아졌는데도 치아 때문에 고생하고, 무릎이 아파 힘들어하는 등 육신의 쇠퇴를 실감한다. 인생을 성숙하게 살고, 삶의 의미를 아는 늙음이 무상(無常)이요, 어설프게 세월만 좀먹는 늙음은 쇠퇴이다. 솔직히 나는 모든 면에 있어 무상이 아니라, 쇠퇴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명나라 4대 선사 가운데 한분이신 운서주굉(1532~1612)의 〈죽창수필〉에 '무상의 소식'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다.

무상을 흐름으로 받아들여라
배신, 죽음도 단지 흐름일 뿐

어떤 노인이 죽어 염라대왕을 만나 항의했다.

"저승에 데려올 테면 진작 좀 미리 알려 주어야 하지 않소!"

"내가 자주 알려 주었노라. 너의 눈이 점점 침침해진 것이 첫 소식이었고, 귀가 점점 어두워진 것이 두 번째 소식이었으며, 이가 하나씩 빠진 것이 세 번째 소식이었노라. 그리고 너의 몸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계기로 몇 번이나 소식을 전해 주었노라"

이 이야기가 노인을 위한 것이라면, 젊은이를 위한 것도 있다.

한 소년이 죽어 염라대왕에게 따졌다.

"저는 눈귀가 밝고, 이도 튼튼하며,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왕께서는 저에게 소식을 미리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대에게도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대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로다. 서쪽 마을에 20~30세 된 사람이 죽지 않았는가. 또 동쪽 마을에 10세 미만 아이와 2~3세 젖먹이가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어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끊임없이 변한다고 한다. 매 순간 호르몬이 생성되고, 동시에 다른 호르몬이 소멸되며,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세포들은 끊임없이 사라지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낸다. 세포를 구성하는 작은 분자도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한다. 또 무정물인 책상이나 탁자, 의자 등 사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체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미립자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적인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 인연에 의해 모여진 것이므로 시시각각 생멸변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서 움직이고 있다.

위빠사나(Vipassana)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 관찰을 통해 그 현상들의 본래적인 특징인 무상·무아·고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세 가지를 3법인이라고 하는데, 3법인 가운데 첫 번째인 무상을 '모든 만물은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경직된 느낌이고, 어려운 철학으로 느껴진다. 그러니 무상을 단순히 '흐름(Stream)'으로 받아들여 보자. 꽃은 한 순간 존재했다 사라지니 아름다운 것이요, 인생도 젊음이 있기 때문에 노년의 고귀함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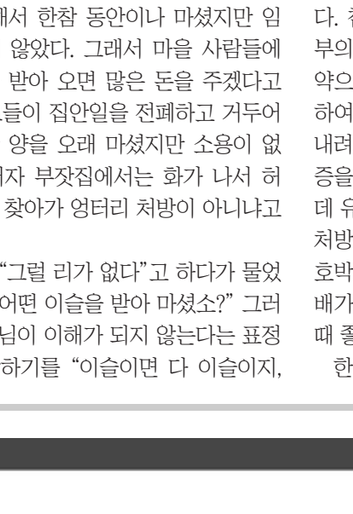
2살 된 아기를 몇 달 만에 보면 사람들은 "애기가 많이 컸네"라고 하며 대견스러워 한다. 그런데 70대 노인을 1년 만에 보면서, "오랜만에 보니, 많이 늙었군요. 매우 대견스럽습니다"라고 한다면 실례되는 일이다. 아기가 성장하는 것이나 노인이 늙는 것은 똑같은 흐름의 연속이요, 당연한 무상이거만 왜 후자만 문제 삼아야 하는가?

그냥 모든 것을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다. 거부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점점 파괴되는 것도 흐름의 연속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것도 흐름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 나를 배신하는 것도 바로 흐름의 연속이다. 무엇을 서글퍼 하랴.

흐름이 마지막 머무는 죽음 앞에 노소가 어디 있겠는가.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으리라고 어찌 기약할 것인가. 그러니 사람 몸 받았을 때, 마음 닦는 일을 통해 무상의 여실한 모습을 새겨두자. 미리 귀띔해주지 않았다고 염라대왕에게 투정부리지 말라.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글 · 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살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
간경입문



글 · 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단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단군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상징



서울 천진사 단군상

조선의 시원

조선(朝鮮)은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 이름이다. '조선'을 한자 그대로 풀면 '고요히 해 뜨는 아침의 나라'이다. 하지만 조선은 '목초(牧草) 꼴인 선(蘚)을 따라 이동하며 순록을 치는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다. 순록 유목단계에서는 '소욘'(蘚)족과 '차아탕', 즉 '조족'(朝族) 또는 '코리치'(高麗族)로 불렸다. 이것은 순록유목단계에 진입한 조족(朝族)과 방목하는 선족(鮮族)을 구분한 것이다. 바로 이 유목하는 차아탕, 즉 조족이 선족을 통합해 세운 '예맥(濊貊) 단단국(檀檀國)'이 단군조선이라 불린 것이다. 이들 동이족[朝鮮, 濊貊, 韓, 夫餘, 沃沮, 肅愼(靺鞨 또는 挹婁], 즉 북방유목민족은 한족(漢族)과 달리 소리글자를 우선하며, 두 음절 국가명을 사용한다.

우리 역사에는 다섯 개의 조선이 있었다. 단군조선과 기자조선과 위만조선과 이씨조선과 김씨조선이다. 기자와 위만 조선은 동이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다. 해서 동이족의 조선은 단군과 이조(李朝)와 김조(金朝) 셋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이야기는 천지창조 신화와 건국신화가 융합된 것이다. 천신인 환인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환웅으로 대표되는 북방민족이 중앙아시아 혹은 시베리아에서 이주했음을 암시한다. 환웅집단의 언어는 알타이어 계통 중 퉁구스어 계통으로 짐작되며 이 어계를 따라 퉁구스족이라고 한다. 이들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토착세력이었던 곰 부족과 범 부족과 관계를 맺었다. 결국 환웅은 웅녀로 상징되는 토착민을 정복하고 새로운 신시를 건설했다.

그런데 곰 부족과 인연을 맺은 환웅집단은 모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환웅을 환인의 서자(庶子)라고 기술한 것은 모계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유학자가 유교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도 고대의 모계 계승을 따라 서자는 모계를 따랐다. 때문에 환웅을 서자로 기술한 것은 곧 부계적 해석이었으며, 서자는 또한 말자상속제(末子相續制)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부계의 장자 상속원리와 달리 모계의 성격상 마지막으로 집에 남은 딸이 혈통을 잇게 되는 것이다. 해서 환웅은 모계사회의 서자이면서 아울러 부계사회로의 전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중국 요하일대에서 발견된 신석기 만기의 홍산(紅山) 우하량(牛河梁) 문화(기원전 3500~3000년)에서 발견된 여신묘의 두상에서 확인된다. 홍산문화의 주도세력은 곰 토템족이었으며 웅녀족(熊女族)=단군=모계에서 부계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홍산문화 만기는 모계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천신인 환인은 모계사회에서 살았고, 그 아들인 환웅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전환기를 살았으며, 단군은 초기의 부계사회를 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의 초원과 산지에 자리를 잡고 있던 곰 부족은 모계사회 혹은 모계적 전통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범 부족은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에서 남방에 이르는 산지에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곰 부족인 웅녀에게서 태어난 단군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살았다. 이것은 곰(신앙)이 사라지고 범[산신(령)신앙] 신앙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군 왕검'의 의미

조선의 건국 시조인 단군(壇君, 檀君)의 본뜻은 '산신' 혹은 '무당'으로 불린다. 이것은 무당의 이름인 '당굴'의 음을 베낀[寫音] 것이며 '제사장'(祭司長)의 뜻을 지니고 있다. '단군'의 표기 역시 '제단 단' 자와 '박달나무 단' 자로 혼용해 쓰고 있다. 대부분의 기록에서 '박달나무 단' 자를 쓰고 있는 점에 근거해 보면 처음에는 이 나무가 신이 내려오는 길인 세계수(世界樹)로서의 의미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에 제단(祭壇)을 만들고 제의(祭儀)를 거행하면서 점차 '제단 단' 자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연 역시 불경에 근거해 '단월'(檀越) 또는 '단나'(檀那)를 '베푸는 사람'[檀君] 혹은 '베푸는 이'[壇君]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은 아닐까? 그 결과 단군이 산신이 돼 산 속 무당집(城隍堂)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단골네' 또는 '당굴네'로 불리며 백성들의 점복과 장수 및 재복 등의 노력을 베푸는 '충복'(忠僕) 또는 '심복'(心腹)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단군은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린 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그는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 뒤에 다시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됐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한다. 이것은 단군조선이 세상을 다스리던 47세계(世系)의 기간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치세 기간을 살펴보면 단군조선은 아마도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걸쳐 존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철기로 무장한 위만 등의 새로운 세력에 의해 통치를 마감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신화적 담론이 형성됐다는 것은 단군의 탄생(개국)과 죽음(망국) 시점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지배세력의 교체, 다시 말해서 곰의 모계사회가 사라지고 범의 부계사회가 등장한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왕검은 '엉큼' 또는 '검'을 가리킨다. 즉 '큰 사람'[大人] 혹은 '신성한 사람'[神聖人] 또는 '정치적 지배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군이 조선왕의 '직함' 또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 도읍인 '왕검'은 땅이름(李奇 주장) 혹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던 성이름(臣瓚 주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왕검은 땅이름 또는 성이름이기보다는 통치자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단군은 무조(巫祖)이자 국조(國祖)이며, 신라의 거서간(居西干), 차차웅(次次雄), 니사금(尼師今), 마립간(麻立干) 등의 샤먼 킹이나 왕의 '직함'과도 상통한다. 반면 왕검은 그 샤먼 킹의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방에서 이주한 세력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혁거세'나 가야의 '수로' 역시 샤먼 킹이자 정치적 지배자의 이름이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상징이다. 동시에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 한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단군은 재해석돼 왔다. 때문에 단군은 분단 상황인 오늘에도 남북한 양쪽에서 크게 선창되고 있다. 북한은 평양에 거대한 단군릉을 세워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을 단군과 연결시켜 해석해 왔다. 남한 역시 오래 전부터 단군학회를 결성했고 한민족 연합이라는 단체는 360개의 단군상을 전국의 초중고교에 세웠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단군상을 파괴하는 일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때문에 단군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국조이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偶像)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단군은 통일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남북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기제임이 분명하다. 단군 이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은 없다. 해서 우리 모두가 한국어를 쓰고 있고 한민족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단군은 우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유하기 위한 유일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주산과 무대

천신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이 조선을 세웠던 과연 아사달은 어디일까? '아사달'을 한자로 표기하면 '조양'(朝陽)이 된다. 지금의 요녕성 조양이라 할 수 있다. 조양은 '조선의 양지바른 땅'을 일컫는다. 이곳은 단군 왕검이 조선을 연 도읍이다. 환웅은 하늘에서 요녕성(遼寧城) 북진(北鎭)시에 있는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 불렀다. 여기서 태백산은 '의산(白岳山)인 의무려산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조선'의 도읍지인 대동강 유역의 평양(平壤)으로 잘못 비정했기 때문이다.

> 건국시조인 단군의 본뜻은 '산신'
> 민족국조이나 기독교는 우상 취급

의무려산은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인 조선의 수도가 있던 현재의 요녕성 북진시에 있는 산이다. 환웅의 아들 단군 왕검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고 아사달(조양)에 도읍으로 삼았다. 중국은 주나라 이후 요서지역 너머 동북 지역을 통칭하여 조선이라고 불렀다.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조선 최초의 헌법서인 〈조선경국전〉에는 조선이란 국호가 정해진 내력이 소개돼 있다.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뒤 명나라의 황제(朱元璋)에게 나라의 후보 이름이었던 '화령'(花翎)과 '조선'(朝鮮) 가운데 "조선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됐으므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권하자 조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보면 중국은 일찍부터 단군 왕검이 세웠던 조선의 존재를 알고서 이성계의 나라를 그것과 변별하여 (신) '조선'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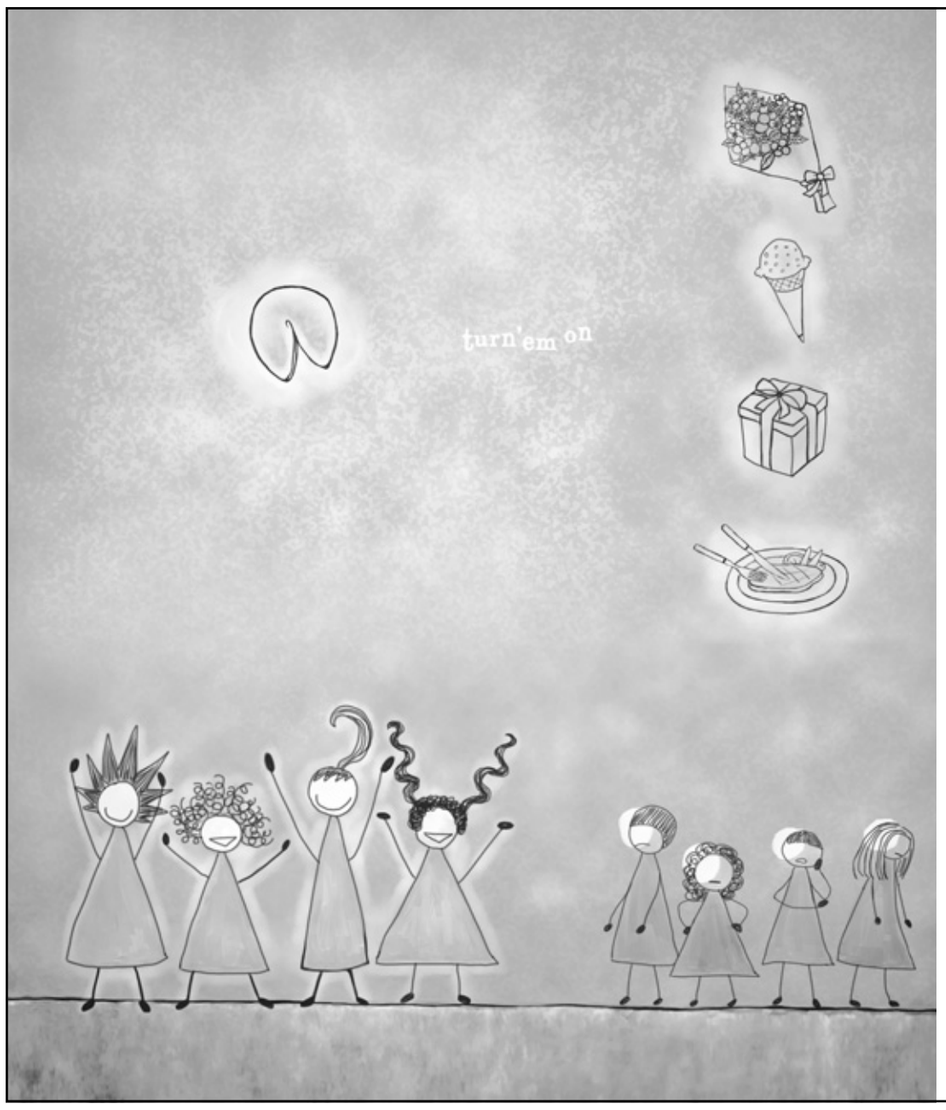
옛부터 우리 민족의 진정한 주산은 백두산이 아니라 의무려산이었다. 이 의무려산에서 뻗어나간 동쪽 내맥이 백두산이 된 것이다. 그러면 민족의 주산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우리는 환웅이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온 태백산을 어디로 비정할 것인가? 일연은 이 태백산을 묘향산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고조선의 주요 무대였던 요서지역의 조양(아사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평양'(平壤)이란 지명 역시 '평평한 토양'을 지닌 요서 지역의 조양 인근을 일컫는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 관련 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연 앞시대 역사가들이 연(燕)나라의 위만(魏滿)에게 밀려나 새롭게 건국한 신조선의 도읍인 평양을 고조선의 도읍으로 잘못 기록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조선조 이래 다수의 학자들 역시 민족의 주산을 의무려산으로 보았다.

미수 허목은 "진산(鎭山)인 의무려산 아래에 고구려 주몽 씨가 졸본부여(의 수도)를 도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을 다녀왔던 담헌 홍대용은 "의무려산은 동이족과 중국족이 만나는 곳으로서 동북의 명산이다"고 했다. 구한말의 위암 장지연은 "북방 영토의 주산이 의무려산인데 그 내맥이 백두산이 됐다"고 했다. 이처럼 조선조 학자들 역시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무대가 의무려산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조선이 위만조선에 의해 밀려나고 위만조선 역시 한나라에 의해 평정되고 진번·임둔·낙랑·현도의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우리는 요서지역의 활동 무대를 상실하고 요동지역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후 우리 민족의 시원지였던 만리장성 바깥 동북 삼성의 광대한 영토를 무대로 했던 고조선의 영광은 재현되지 못했다. 고조선을 이은 부여와 고구려 및 대발해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중원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일연 이전 사가들의 역사 인식은 대발해 이후 대동강 전후를 넘나드는 반도 중심의 영토관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냉철한 역사적 감각을 지녔던 일연이 보여준 〈삼국유사〉의 영토 인식 역시 요서 및 요동의 광활한 무대를 담아내지 못했다.

참고문헌
윤내현, 〈고조선연구〉(일지사, 1994; 2004)
주채혁 〈순록치기가 본 조선 고구려 몽골〉(혜안, 200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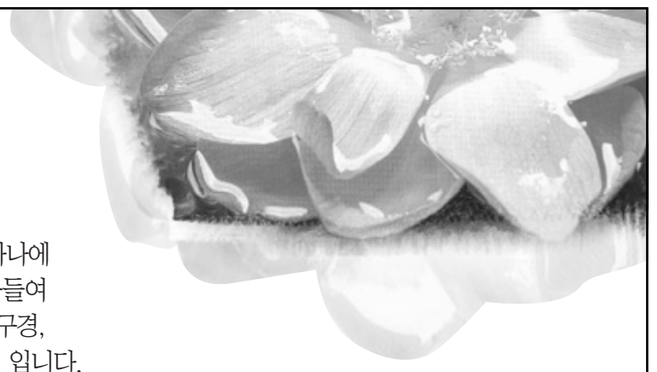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1)



삽화 · 김흥인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처럼 강한 힘을 뿜어내며 무니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무니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이 잡고 있던 손만은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 빛의 끝은 어디일까. 도대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일까. 저절로 감긴 눈동자 안은 그 빛이 만들어내는 색색의 꽃들로 인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꼭 부여잡았던 정체 모를 손과도 결국 멀어져갔다. 한 순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의 문이 저 뒤에서 탁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무니는 정신을 잃었다. 광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년의 몸은 작은 모래알처럼 흩날리며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누워있었던 거지?"

긴 혹은 짧은 잠에서 깨어난 무니가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금빛인 이곳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 시간을 따라 흘러왔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 아니었다. 몇 시간, 며칠을 걸려 도착할 수 있는 장소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느낀 순간 무니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 이었다.

무니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하늘과 땅 모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지만 역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니는 자신이 누워있던 곳의 땅을 만져보았다. 금빛의 그것은 부드러운 모래 같은 감촉이었다. 다음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려 애썼다. 언젠가의 바다 냄새 같은 걸 맡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어떠한 향기나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도대체 내가 이런 곳엘 어떻게 오게 됐지?"

무니는 기억을 되짚었다. 그들 일행은 의도치 않게 차크라발라에 머물게 되면서 처음으로 살인 사건을 접했고, 큰 두려움을 느꼈었다. '거기다 난다는 또 친구를 잃어서 슬퍼했었지….' 무니는 문득 난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니. 이곳의 지금이 그곳의 지금과 같은 순간이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니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기 시작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칼을 소지하고 무니는 홀로 떨어져 창고에 갇혀있어야만 했었다. 다행히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갇힌다' 는 공포는 크지 않았다. 다만 마을의 사정을 그때그때 알 수 없어 조금 답답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난 데비의 옷에 묻은 피 때문에, 마을의 사정이 궁금해졌어. 그래서 검 조각과 아루나검을 챙겨서 그곳을 몰래 빠져나왔었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말이야."

사막에서 데비에게 건네받은 마지막 검 조각은 사람의 몸을 투명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다. 무니는 그걸 손에 꼭 쥔 채, 가장 먼저 죽은 수아나의 집에 들렀었다. '그 수아나의 엄마라는 아줌마가 이상했어. 수아나가 아니라 그 오빠라는 사람의 옷을 태우고 있었거든.' 무니는 수아나의 집에서 본 장면에 의구심을 가지고, 데비가 수아나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그 동굴까지 들어갔었다. 이번에도 무니는 종이버터를 챙겨오지 못하는 바람에 어두컴컴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했다. 조심조심 발밑을 주의해서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게 뭐였지?' 무니의 기억은 그 시점부터 희미했다.

"그게 뭐였지? 뭐였냐구!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무니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래도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지금, 기억의 마지막 장면마저 잘 생각나지 않고 있었다. "도대체 여긴 어디냐고!" 무니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주먹이 일으킨 바람 때문에 부드러운 모래들이 그의 얼굴까지 튀어 올라왔다. "앗! 이건 또 뭐야!" 무니는 자신의 얼굴에 달라붙은 모래들을 거칠게 떼어냈다. 그런데 모래의 질감에서 떠오르는 뭔가가 있었다. 그는 얼른 모래를 손으로 퍼 올려 만져보기 시작했다. 분명 최근에 이런 감촉의 가루를 만져봤던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잔뜩 찌푸리고 있던 무니의 양미간이 스르르 풀어졌다.

"그래! 바로 설탕이었어. 내가 거기서 설탕 자루를 발견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데, 칸타카 소리와 비슷한 풀피리 소리가 났지.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고, 그러다가…."

어두운 동굴 안에서 또 발을 헛디뎠던 것이다. 그때 분명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뭐라고 말을 걸어왔었다. 무니의 기억은 또 거기서 막혔다.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여기로 떨어지기 전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이다. 또 다시 미간을 찌푸리고 집중해 봤지만, 이번엔 정말 어떤 실마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였을까?"

무니는 자신이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두려워졌다. 늘 현실 같지 않은 나날들의 연속이긴 했다. 매일매일이 달랐으며 무니는 그 다른 날들 만큼 변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달랐다. 시간은 무니가 기억을 잃은 그 순간에서 멈춘 듯 했고,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무니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동굴이어도 좋으니,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살랑거리는 바람이 무니의 뺨에 닿았다. 공기마저 없는 것처럼 정적이던 공간에 변화가 느껴진 것이다. 무니는 다시 몸을 일으켜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손끝을 간질이듯 건드리고는 사라졌다. 뺨에 닿았던 바람보다는 더 분명한 느낌이었다. 무니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풍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숨 막힐 정도로 똑같은 광경이었다. 여전히 아득히 먼 지평선과는 한 뼘도 가까워지지 못했다. 지친 무니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나마 바람이 닿는 느낌이 걸을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있어 다행이었다. 불어오던 바람마저 멈췄다면 무니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의미였다. 무니는 계속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저 멀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회오리바람이 어쩐지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무니는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왜 저러지?"라는 말을 내뱉을 사이도 없이 바람은 그를 덮치고 말았다.

바람이 순식간에 무니를 데려다놓은 곳은 암흑 속이었다. 차크라발라의 동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었다.

"아까는 눈 뜨기 힘들 정도로 환하더니, 지금 이건 또 뭐야?"

게다가 이젠 바람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두려움과 함께 불길한 예감까지 들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무니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어깨를 감싸 쥐었다. 두렵고 외로웠다. 눈물마저 날 것 같아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순간, 또 바람이 느껴졌다. 무니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거대한 장막 같던 어둠이 바람에 흔들리듯 팔락이고 있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이 펄럭일 때마다 금빛 먼지들이 그 사이로 날아 들어왔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장면이었다. 무니는 넋을 놓고 그 먼지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 먼지들은 암흑 속에서 빛의 흐름을 만들어 내더니 거대한 띠를 형성했다. 바람과 그로 인한 빛 먼지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무니는 눈만 깜박일 수 있을 뿐이었다. 점차 머리 위가 밝아지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더니 그 공간에 하늘이 생겨난 것이다.

하늘이 만들어졌어도 먼지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그곳을 가득 채운 먼지들은 결국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운 금빛의 먼지들이 하늘의 빛이 아직 닿지 않아 어두운 저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러자 바닥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땅이야. 땅이 만들어졌어." 자신의 발아래를 내려다 본 무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땅과 하늘은 뚫기 힘들 정도로 견고해져갔다. 결국 낙하하던 먼지들은 땅에 부딪혀 다시 대기로 솟아올랐지만 하늘에도 부딪혀 공중을 맴돌았다. 먼지들이 회오리치며 엉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대한 구름 덩어리는 장대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졌다. 무니는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간의 갈증을 채웠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이윽고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갈증을 다 채운 무니 앞에 나타난 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바다였다. 무니는 이제야 이 경이로운 장면들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었다. 눈물이 날 정도였던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무니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랬다. 기쁨이 한껏 차올랐다가 슬픔이 온 마음을 채우기도 했다. 무니는 자신의 심장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는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솟아오르던 금빛 먼지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더니, 끊임없이 불어오던 미풍도 잦아들었다. 신세계엔 적만 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물결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서도 온 우주를 진동시킬 만큼 커다랗게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눈이 부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무엇인가 떠내려 오는 모습이 보였다.

860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 시내중심가
- 평수 80평
- 법당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즉시법회가능

010-2428-5035

사찰 터 (급)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자모리.455번지
- 전 : 464평
- 물.청정하고 전기.도로포장 양호함
- 대출 : 7.500(칠천오백)안고 총팔천만원
- 콘테이너2개있음 , 사정상 급 양도

010-8890-68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5층건물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단, 삼성단 (칠성, 독성, 산신, 용왕),미분양소불 300불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창고, 주방, 해우소
- 평수: 8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최신, 최고시설완비
- 시설비 5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69-6799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내서면 고곡 2리 279번지
- 평수, 대지 : 91평
- 법당(인법당) 겸 요사채 총 30평(심야전기)
- 삼성각 5평 용왕당
- 가액 : 8천 5백만원(가격절충)

010-6508-1365

토 굴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겨울 요양지 공부터로 강추
- 본채 3칸, 사랑채 4칸
- 등기상 약 150평
- 가액: 8천 5백만원
- (주인직접) 중개인 사절

010-2029-29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고령IC에서 3분거리 대구에서 30분거리
- 비로자나 동불
- 141평
- 요사채 넓고 뒤에 산이 있음
- 뒷마당 넓음, 현재 법회중
- 가액: 6800만원

010-6294-0060

사 찰 안 내
- 위치:안산시신고잔동전철역5분거리
- 부지 : 5층건물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 4개,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 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여 , 엘리베이터
- 가액: 3억 8천만원 양도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도심 포교원안내

- 위치 :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200만원,
- 월 12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연락처 : 032)519-1108

기울어져가는 불교를 다시 세우려던 자취담은 곳

조선조 불교중흥의 산실 봉은사(奉恩寺)

몇 해 전 도심의 큰 사찰이 재정을 발표해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다. 재정을 공개하는 일은 그곳에서 신행하는 불자들에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별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직할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여론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그곳이 한국불교의 중심임을 느꼈다.

80년대 전후 개발된 강남은 한국사회의 중심이 됐다. 이곳에서 유행하는 코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가 됐다. 세상에 이름을 내려면 이곳에서 이름을 내어야 할 만큼 강남은 한국사회의 아이콘이다. 이곳에 있는 봉은사 역시 한국불교의 아이콘이다. 앞서 말한 세간의 관심이 없어도 대도시에 자리한 것부터 경이롭고, 이곳에서 펼쳐지는 포교에 한국불교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종교는 다종교 체제에서 교세확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불교 역시 강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 제일의 종교라는 이미지를 상실할 수 있을 만큼 기로에 서있다. 그런 면에서 봉은사는 한국 현대불교의 중흥지가 돼야 한다. 그 책임은 이미 5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기울어가는 조선불교를 중흥하려는 역사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 세조 덕분에 불교는 잠시 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완화 정책은 재위기간 뿐이었다. 성종이후 다시 배불로 치달으면서 조선불교는 암울해졌다. 내불당이 궁 밖으로 옮겨지고 도성 안 비구니 사찰이 철거됐다. 그리고 사대부 여자의 출가가 금지됐다. 친히 국정을 다스린 이후에는 일체의 사찰을 창건하지 못하게 했으며, 옛터에 다시 중창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불교계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수록됐다.

이어 왕위에 즉위한 연산군은 원찰을 제외한 모든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 불교계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흥덕사를 철거하고 교종도회소를 원각사로 이전했으며, 선종도회소인 흥천사는 이듬해 5월 궁중의 말을 기르는 곳으로 바꾸면서 양종도회소는 이름만 유지됐다. 조선조 명맥을 이어오던 승과는 실시하지 않아 폐지의 빌미를 주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탓에 중종 때는 공신들을 비롯한 신료들의 권한이 커졌다. 자연히 불교배척 역시 강해 〈동국여지승람〉 소재 이외의 사찰을 모두 없애고 사원의 전답을 그 지역 향교에 속하게 했다. 승과가 폐지돼 인재 등용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급기야 경국대전에 있는 度僧條가 삭제되면서 법적으로 승려가 되는 길이 없어졌다.

이런 조선조의 분위기에서 봉은사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연산군 4년(1498)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선릉(宣陵)의 원찰로 견성사를 중창하고 봉은사로 개칭한 이후이다. 이후 문정왕후와 허응당 보우가 만나면서 불교중흥의 중심지가 됐다.

중종 12년(1517) 왕비에 책봉된 문정왕후는 자신이 중전이 된 것과 왕자를 얻게 된 것 모두 부처님의



공덕으로 여기고 때가 되면 불교를 중흥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1545년 인종이 죽고 명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수렴청정하면서 평소 갖고 있던 불교부흥의 뜻을 폈다. 이때 천거된 고승이 설악산 백담사에서 수행하던 허흥당 보우였다

허응당 보우는 중종 4년(1509)에 태어나 15세가 되던 해 금강산에 들어가 6년간 수도하고 하산했다. 당시 배불정책에 의해 많은 사찰이 사라지고 수행자가 핍박받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 입산해 4년 동안 수행했다. 그 뒤 산문을 나와 많은 불사를 행하면서 명성이 알려지게 됐다. 명종 3년(1548) 12월 문정왕후가 불교를 부흥할 고승을 구할 때 천거돼 봉은사 주지에 임명됐다. 보우 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중흥책은 바로 실시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우가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은 선교 양종의 부활이었다. 연산군 때 폐지돼 청계산

천년고찰 봉은사는 강남 불교의 아이콘
허응당 보우 선사가 가르침 펴던 때부터
봉은사의 한국불교중흥 역사는 시작돼

청계사로 옮겨진 양종도회소는 유명무실했다. 그런 양종도회소를 명종 5년(1550년) 부활하고 봉은사를 선종의 본산으로 했다. 이때 교종의 본산은 봉선사가 됐다. 다음해 보우는 판선종사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가 됐다. 이때부터 봉은사의 사격이 전국에서 으뜸이 됐다. 이런 문정왕후의 불교정책에 대해 각 사원(司院)의 상계와 성균관과 지방의 유생들이 올린 항소가 300여 건이 넘었다. 이런 주장에 맞서 문정왕후는 오직 나라의 폐단을 구하고자 할 뿐이며, 양종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은 임금과는 관계가 없고 모두가 자신의 책임이라 주장하면서 불교중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선종판사에 임명된 보우는 승과를 부활해 불교계의 인재를 선발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을 설정했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응시자의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평안도 함경도는 각 100명, 전라도 경상도는 각 500명, 황해도 청홍도는 각 400명, 경기 강원도는 각 300명으로 해서 모두 2600명이 양종으로 나누어 응시했다. 평안도와 함경도가 다른 도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것은 북쪽의 경계이므로 군정의 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결정이었다. 초시에서 양종은 각 100명씩 선발했다. 명종 7년 4월 12일 예조의 주관으로 봉선사와 봉은사에서 실시한 복시에서 선종 21인 교종 12인을 뽑았다. 이런 계기로 봉은사 앞 들판은 승과평(僧科坪)이



라 불리게 됐다. 이때 실시된 승과에 의해 조선 불교중흥의 대조사인 서산대사 청허 휴정이 뽑혔으며, 그 후의 승과에서 등용된 사명당 유정도 국난타개의 공을 세우는 허응당 보우가 예견한 것처럼 조선불교를 위한 인재가 선발됐다.

이때 실시된 승과는 잡과의 예에 따랐다. 백패를 발급하고 등수를 나누어 사목(事目)에 기록했다. 승과를 통해 선출된 승려들은 내원당의 지음(持音)으로 임명됐다. 명종 7년 4월에 치러진 복시 이후 승과는 식년이 되는 해마다 거행됐다.

이렇게 불교중흥의 중심지가 된 봉은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중종의 묘 정릉(靖陵)의 천장이었다. 중종이 죽자 먼저 돌아간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禧陵)에 묻혔다. 수렴청정을 하던 문정대비는 자신이 죽으면 중종과 함께 묻히고 싶었다. 명종 17년(1562) 9월 선릉의 동쪽 기슭에 있던 옛 봉은사 터에 중종의 정릉(靖陵)을 옮겼다. 이때 봉은사는 지금 수도산의 위치에 옮겨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경산제찰(京山諸刹)의 으뜸이 됐다.

봉은사의 사격은 커졌으나 중종의 능을 이전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맡은 보우는 유신들의 극렬한 비판과 불교인들의 모략으로 곤란하게 됐다. 그런 분위기 전환하려고 회암사를 중건하고 낙성식을 겸해 무차대회를 계획하지만 문정왕후의 건강악화로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문정왕후는 자신의 죽음에 임박해서 내린 언문 유서에서 승과에 대해 옛날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죽자 불교 중흥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그 동안 문정왕후의 눈치를 보던 대신들은 양종과 함께 승과를 폐지하고 보우를 몰아내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들의 상소가 계속되자 명종은 보우의 승직을 박탈하고 이어 양반들의 사찰 참배를 금지했다. 다음해 4월에 이르러서 명종은 선대의 승과 폐지에 대한 연유를 묻고, 이를 폐지하는 전교를 내렸다. 보우를 처단하라는 상소가 빈번하자 왕명으로 제주도로 유배시켰다. 그곳에서 명종 21년(1566) 제주에서 제주목사 변협에게 장살돼 생을 마감했다. 조선불교의 중흥이 일시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불교는 조선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찰이 폐사에 이를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었다. 봉은사 역시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지금 강남에서 한국불교의 대표주자로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불교계의 가치상승과 다른 종교와의 경쟁이라는 안팎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한다.

경내에 서있는 미륵대불을 보니 보우 스님이 미륵불로 환생해 올지 또 다른 개혁자가 미륵불로 올지 모르지만 한국불교의 중흥자가 다시 한 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모든 거 내 마음 근본자리에다 놓고 편안케 사세요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하게 됩니다

문)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 건사하느라 제대로 편안케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한동안 행복했었는데 그이마저 저를 배신하고 떠났으니 이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픕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허망하고 왜 저는 이리도 고생만 하며 살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는 지금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됐기 때문에 모두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지수화풍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도 할 수 없고 이 땅을 딛고 다니지도 못해요, 붙어서. 또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날아 돌아가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라. 내가 이 세상에 난 것도 감사히 생각해라 이겁니다,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났으니까 고생도 하고 아파도 보고, 별짓 다 해 보고 별것 다 보고 별 생각 다 해 보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차원이 높아져요. 그걸 전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다음 세상에 다시금 내가 나올 때는 정말이지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과정을 높이기 위해서고 우리의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고 무르익혀서 맛이 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생하는 거를 갖다가 허물치 말라 이겁니다. 고생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것이 외려 덕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알게 되고 아픈 사람의 괴로움을 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의 경험을 알게 되고…. 모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극한 그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그 용광로는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욕과 그런 능력이 부여된다 이겁니다. 잠시 잠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 거를 그렇게 그런 것이 언짢다고, 그런 것이 괴롭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몸뚱이는 가을 잎과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낙엽이 져서 떨어지죠. 떨어졌다고 해서 뿌리마저 죽나요? 그렇듯이 인간의 뿌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차원을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그 경험을, 참 만사만생의 경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으리까.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살아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굶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 보고야 어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복된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 · 최주현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도 한 세상, 부자로 사는 사람도 한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 거를, 무엇을 바라겠소? 이렇게 살고 한 세상 가는 거나 저렇게 살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지마는 고생하며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맛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경험을 많이 얻어서 남을 리드할 수 있고 고생하는 사람을 밥을 줄 수가 있고, 고생하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을 마음으로라도 뜨겁게 생각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죠. 대통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다 쌓아 본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나와서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석존도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너는 석가가 돼라! 그런 재목이 되는구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오늘 없는 내일은 없거든요. 그러니 누구한테 따귀를 맞는다 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에 언덕이 없다면 소가 가다가 그 언덕에 비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언덕이라면 바로 그 언덕이 있으니까 소가 비볐지 언덕이 없고 평전인데 어떻게 소가 비비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고비를, 어려운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많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탓으로 또 그렇게 받을 거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그걸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니까. 아주 영원한 컴퓨터에 탁탁 입력이 돼 들어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나는 거기에 상관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내가 있는 탓이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그래야 모든 게 풍족해지고 물리가 터지고 세상만사를 다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포용력이, 두 팔을 벌리면 이 우주 천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 죽고 또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대통령으로서 출마한다고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있고 없는 거 이런 거, 그 쓰라림을 당하는 거, 이거 잠시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새죠. 그런데 왜 괜히 걱정 근심 하고 괴롭게 삽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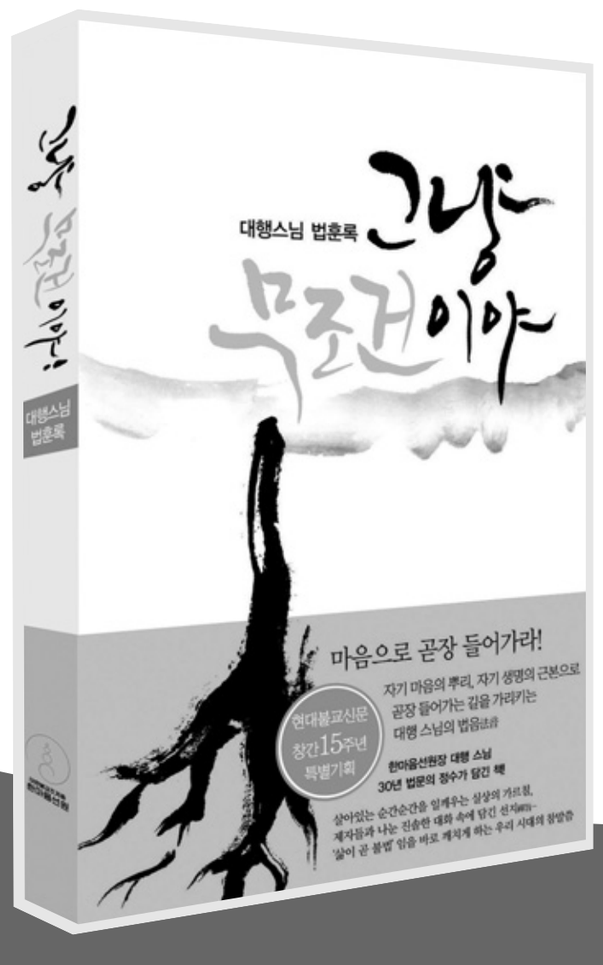
말법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나신다는데…

문) 제가 알기로 말법 세상에 미륵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제한다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스님께서 미륵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중생들을 제도하러 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답) 나만이 아니라, 미륵을 왜 미륵이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에서 돌아서 서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쪽으로 오는 것을, 그 과정을 미륵이라고 그럽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이 흩어지고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생할 때, 그게 서쪽으로 갈 때에 미륵이요, 올 때 미륵이란 말입니다, 돌아서 올 때. 그래서 동방에는 아촉, 불이 켜진 걸로 말하고 서쪽에는 아미타를 말했거든요. 지천국에는 지장을 말했고요. 그랬으니 이 세계,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자 지장이자, 깨달으면 지장이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중생과 부처를 누가 가졌느냐? 여러분이 배 속에 중생들을 잔뜩 안고 지금 지배하는 부처를 모시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천도를 시켜 달라고 하니까 "아이그, 이 세상에 나지나 않았으면 죽지나 않을 것을…." 이런단 말입니다. 이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것이 아미타와 아촉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찰나, 한 찰나에 불을 켰다가 한 찰나에 잠시 껐다가 다시 불 쓸 일이 있어서 켜면 바로 그게 아촉이에요. 그러고 다시 또 켜는 과정이 바로 아미타라고 해도 됩니다. 어린애를 낳았는데 그게 자라서 앞으로 어른이 된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어른 된 사람은 늙어서 다시 돌아서 애가 되고 애가 되면 애가 되는 대로 어른이 되고 이렇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 마음도리 아신다면 어떠한 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게 돌아 나오는 것이 아미타입니다, 미륵. 서천국에 있는 것은 아미타요, 돌아서 나오는 건 미륵이요. 동쪽에 태어나는 거는 바로 깨달음이나 태어남이나 아주 그게 흡사한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뜻만 알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이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다 거기에 놓고 가다 보면 그 아는 것도 나중에 나를 깨닫고 보면 그거는 저절로 거기 부합이 돼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길고 멀게 그 미륵을 생각하지 마시고 '애가 자라는 과정이 미륵이고 그저 다 자라서 나가면 바로 아촉 부처님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리하게. 그걸 일일이 따져서 그럭하다가는 정말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깨달아 보면 스스로서 거기서 뜻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뭘 그렇게 그럽니까?

기독교에도 십계라는 게 있는데…

문) 기독교에서는 십계라는 게 있어서 저희 기독교 신자들은 십계를 잘 지키려 합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신이라는 거를 밖으로 찾지 말라고 하신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신을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답) 그건 자성신을 찾으라고 그런 거지 외부의 신을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그렇고 가톨릭교에서도 그러죠. 십계를 받는다 하지만 이 십계뿐만 아니라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모두 받는 게 많아요. 십계니 오계니 하고 모두 받는 게 많은데 그것을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 받는 것을 다 몽땅, 십계를 받았으면 몽땅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그냥 굴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계 받은 거를 몇 배 더 계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계율을, 즉 말하자면 십계를 받았다면 그 십계를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 마음 근본자리에다 맡겨 놓고 하는 사람들은 십계보다도, 백이 넘는다, 계율이, 이백이 넘는다 삼백이 넘는다 해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모가 나지 않게 그냥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잘못하든 잘하든 모든 거를 거기다가 놓고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또 사람들이 모두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잘된 거는 더 잘 알고, 잘못하고 잘못 안 하고 이러는 것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너무 욕심 부려서 강을 뛰어넘으려다 보면 강에 빠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을 뛰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와 같이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하고 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십계도 뭐 능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마음공부 하면 승천할 수 있나요?

문) 스님께서는 살아 있을 때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승천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답) 이 도리를 진짜로 아신다면 어떠한 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한시름 놓을 판인데,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스님끼리 도반으로 살다가 한 스님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아, 까치 둥우리로 가더랍니다, 영혼이. 그래서 저놈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그냥 주장자로다가 내리쳐서, 자꾸 그 주장자로 다 인도를 해서 사람 집으로 들여보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스님하고 친밀한 법사였다 합니다. 법사님이 떡 열반을 하셨죠. 연세가 많을 때까지 어떤 일도 그렇게 마다 안 하고 열심히 사셨죠. 그랬는데 스님이 보시니까 아이, 제비 둥우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로 쳐서는 내려가지고선 몸뚱이 속으로 다시 넣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니까 물었더랍니다. "왜 제비 둥우리로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뭐 그 삼층집에 그냥 으리으리하더랍니다. 그러니 그거 환상에 녹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환상에 녹는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면 내 업식에 눌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고, 또는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이런다고요.

그러니 첫째, 이 공부 하실 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들하고도 그렇고,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스님네들더러도 항상 그럽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네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네가 없었더라면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라. 두 번째는 모든 게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항상 잘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할 때까지 또 두고 봐라. 그러면 대번 돌아간다. 이 마음을 내 주고 바로 주인공에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 같이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그저, 남이 이러든 저러든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우고 냄새를 똑바로 맡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이 모든 업식에 본이 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외착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병고는 오지 않을 것이고, 병고가 났다 하더라도 병고가 없어질 것이고, 이 모두가 다, 남을 해(害)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리를 찾으려면 아이구, 십만 팔천 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도리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실천궁행하라는 그 요지를 내리신 거지, 너희들 죽어서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살아서 천당 맛을 보고 살아서 지옥 맛을 보고, 살아서 삶의 보람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건지도 알게 되고, 이런 걸 가르치신 거지 아니, 죽어서 승천하라고, 천당에 가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길을 인도하신 거죠.

꼭 시주를 해야 정성이 되는지요

문) 보통은 절에 가보면 부처님 전에 많은 공양물을 올리고 시주를 하면서 바라는 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시주를 해야 정성이 되는 건지요?

답)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양 무제가 스님네들 옷을 많이 하고 집도 사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왕이. 그런데 달마 대사한테 "저는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발을 내린 거죠, 왕의 권리로. 그런데 달마 대사는 죽어서도 그 양 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 무덤 속에 묻혔는데 거기 신발 한 짝만 남겨 놓고서는 턱하니 주장자에다 신발 한 짝을 꿰어 가지고 나왔는데, 즉 말하자면 저 왕이 보내는 그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대사하고 만났단 말입니다. 아, 만나니깐 인사를 깍듯이 하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난 서쪽으로 간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깐 양 무제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자기가 죽여서 벌써 묻었는데 아니, 달마 대사가 웬일이냐고…. 그래서 산소를 파 보니까 거기에 신발 한 짝만 남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무제가 생각했대요. '저승에도 달마 대사가 있고 이승에도 달마 대사가 있구나. 달마 대사가 이렇게 둘이 아닌데 나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선 땅바닥을 두드렸대요.

그랬듯이 천만 가지를 갖다가 저 법당에다 올려놓고 빌어 보십시오, 대가가 오나. 여러분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좋은 일이 오겠지.' 하는 위안.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으로써 내가 잘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누구든지 못사는 사람 보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가다가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쌀도 사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시주를 하고,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내가 가게 갈 때 말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기 때문에 돈을 그 사람 줬다고 생각 안 하고 갖다가 주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니, 돈 갖다 주면 그냥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주상으로 그냥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 게 옵니다, 그 대가가. 그게 공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꼭 물건을 갖다 주고는 그 값어치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그냥 만날 저 사람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그것 줬다고 그러니 공덕이 있을 법이 있습니까?

공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아파도 이 체내 안에서 한마음이 돼 주는 게 이치고, 바깥에서도 한마음이 돼서 그냥 전부 한마음으로 들게 되자 그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도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몸이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먼지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병이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냥 병도 나아 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는 거보다도 우리는 항상, 나는 그래요. 우스갯소리도 되지마는 진짜도 그래요. "그 병 낫게 해 주면 날 뭘 줄 거야?" 그러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마운데 제가 뭐는 못 드리겠습니까?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제 몸도 버릴 텐데." 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달라 하시는 대로 드리죠." 이럽니다. 내가 도둑입니까, 달라는 대로 드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억만 냥을 갖다가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공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단돈 천 원이라도 그 도리를 알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참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좀더 화목과 또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가환이 없이, 병고가 없이 재미나게, 여러분이 한생각에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만 베푸는 삶 살고 싶어요

문) 저희 집이 좀 가난한 편이지만 그래도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베푼다는 게 무슨 돈이 있어서만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섭섭지 않게 한다, 남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도의다 또 은혜다 이런 문제 등등을 모두 종합해서 생각할 때 남을 섭섭하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의 보시가 돈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를 하되 이거는 마음이 더 큰 보시다 이랬다고 금방 밥을 굶을 텐데도 밥 먹을 걸 안 준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깡통을 들고 온 거지한테도 밥을 그 깡통에 담아 주고, 봉지에다 반찬은 따로 물 흐르지 않게 따로 줍니다. 따로 주면서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네가 농사지어서 네가 추수해서 네가 먹도록 해라.' 하고 마음을 내 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보시예요. 그러니 가난하다 해도 얼마든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
> 항상 잘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 잘할 때까지 두고 봐라.
> 그러면 대번 돌아간다.
> 바로 주인공에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
> 같이 불이 들어온다.

Hanmaum Choir Festival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All Beings, Living Together as One

선법가는
남을 걷질 수 있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가사를 통해서
전 우주 법망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두루 공심으로 무주상 보시가 되어
전체 마음들이 개선되고 지혜로워지게끔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선법가를 노래하고 하지만
자꾸 부르면 지극하게 염원하는 꽃이 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있고요.

대행 큰스님 禪法歌 '선법가는" 中에서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17:00 - 13 (일) 15:00, 19: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이승묵,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

불자 세상보기

기다림만으로는 북핵 해결 안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카다피 정권 몰락 지켜본 북한
핵개발 포기 않을 가능성 높아
북한 핵능력 향상 막기 위해선
포괄협상부터 조속히 이뤄져야

리비아의 철권통치자 카다피가 사망함으로써 42년간 지속돼 온 카다피 독재체제가 종말을 고했다. 카다피가 처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지켜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기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그동안 '제국주의' 미국에 맞선다는 기치를 나란히 내걸고 장기 독재체제에다 권력의 부자세습을 추진하는 등 공통점이 적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해왔고, 리비아가 과거 핵개발을 추진했을 때 북한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서방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거의 비슷한 시기,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했던 북한과 리비아는 2003년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섰다. 카다피는 2003년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고농축 우라늄(HEU)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했고, 미국이 요구한 사찰 방안을 수용했다. 반면 북한은 '리비아 모델' 수용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카다피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북한지도부가 핵무기에 더 집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서방의 리비아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 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던 리비아 모델은 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면 서방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포기 요구를 수용했던 카다피 정권의 붕괴에서 '부정적 교훈'을 얻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되풀이 하지만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정착 등 주변 국가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회담이 연이어 두 차례 이어졌지만 아직 본격적인 북핵협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을 요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선행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사태를 목격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보다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적 사고'에 기대어 대화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지루한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력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북핵 해결의 빠른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와 압력, 그리고 기다리는 전략만으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평화보장과 관련한 포괄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부대중 칼럼

성삼재의 단풍잎이 너무 붉었나



경문 스님
하동 수미산방

차 한잔의 나눔에서 흙 내음 맡고
그림 한 점에서 바탕 엿본다면
그로인해 잠시나마 행복하다면
출가이후 회향의 숙제를 해가는 것

"아, 가을이다."

성삼재를 넘으면서 연신 탄성이다.

남원 실상사를 향해 길을 나서보니 곳곳에 물든 단풍이 완연히 가을이라 일러준다.

그저 한 발만 내딛어 문 밖을 나오면 시절의 변화가 한 눈에 들어오고 삼라만상이 나를 비추어보는 거울이 된다. 이렇듯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게 마련인 것을…. 대중에 있을 때나, 홀로 떨어진 처소에 있을 때나 문 밖을 나서지 않으면 시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

오늘은 붉게 물든 성삼재의 단풍에 나를 비추어 본다. 저렇듯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대지를 향해 다시 돌아가겠지….

필자는 청소년기부터 사색을 통해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궁구하고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 스스로 깨닫거나 발견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없기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상으로 나를 오염시키지 않으리라는 무척 건방진 신념 때문에 독서도 등한시 했다.

나이 스물을 넘기고서야 비로소 책을 통해 많은 부분을 공감했고 독서의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

유달리 맨땅을 좋아했다고나 할까. 맨발로 흙을 밟고, 두 손으로 흙장난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코끝으로 흙냄새를 맡을 땐 마냥 좋기만 하다.

땅은 마음의 바탕에 비유할 수 있다. 바탕과 만났을 때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때도 끝없이 울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알고 있다.

불자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가 곧 바탕이 아닐까?

염화미소의 일화는 부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 보내주시는 향기로운 흙 내음이요, 조주 스님의 찻주전자는 오늘날에도 목마른 수행인들의 사발을 채워 주시는 감로의 샘이다.

제 자리 찾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 말을 가끔 인용한다.

만물이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는 흙, 곧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야말로 나의 할 일이라고 믿는다.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무엇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드넓은 땅이 있다. 그 바탕 위에서 뛰어놀고, 집을 짓고, 숲과 곡식을 가꾸고, 똥오줌을 싸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 각자의 몫이다.

나는 차(茶)와 선(禪)과 그림으로 표현되는 삶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려 한다. 맑혀진 마음의 바탕에 스미어 실컷 울어버리려 한다. 덩더꿍 덩더꿍 춤도 추려 한다. 이것을 발원이요, 회향이라 여긴다.

어느 한 사람일지라도 차 한 잔의 나눔에서 흙 내음을 맡고, 그림 한 점에서 바탕을 엿볼 수 있다면, 그로인해 잠시의 평온과 행복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불조의 은혜를 다 갚는 것은 못되어도 출가 이후 늘 가져왔던 '회향'이라는 숙제를 조금씩 해 가며 사는 것이 아닐까?

성삼재의 단풍잎이 너무 붉었나? 망상이 더욱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겠다.

삼세의 모든 생명이시여,
언제나 밝고 맑고 아름다우소서!

오늘날 땅위에는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다.

도시 속에는 판자촌도 있고 타워팰리스도 있다.

숲에는 낙락장송(落落長松)도 있고, 칡넝쿨도 있다.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 악취풍기는 시궁창도 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땅위에 서 있는가?

社說

정부는 10·27법난 사과하라

10·27법난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1980년 당시 군부는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했다.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은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군부로부터 일제 수색을 당했다. 올해로부터 31년 전 일이다.

같은 해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우리 사회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에 반해 10·27법난은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실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31주년 기념법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10·27법난의 최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는 기존 판례와 동떨어진 이번 판결은 10·27법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낸 경우이다.

10·27법난은 불교계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수습되는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불자들이 두 번 세 번 분심(忿心)을 되삼키고 있다.

〈금강경〉에 "과거·현재·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고 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다고 과거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물길 지나간 자리는 남지 않았어도 건넌 이의 바짓단은 젖어 있기 때문이다.

10·27법난도 5·18민주화운동처럼 재평가되길 바란다. 그 시작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

조계종 교구제 바꿔야 산다

10월 26일 대토론회의 주제는 지역불교 활성화였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교구제 개편이 이슈였다.

현행 조계종 교구제는 1911년 일본이 한국불교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중앙종무기관 없이 도입한 31본산제가 근간이다.

강산이 바뀌어도 10번이 바뀌었지만 우리 불교계만은 100년 전 제도를, 그것도 일본이 남기고 간 잔재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1970년 150개도 못되던 것이 현재는 23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인구밀도에 따라 분화를 거듭해 왔다. 세상이 변하고 변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됐음에도 절집의 24칸 구획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구본사는 수행교화 등 사찰 본연의 기능보다는 사찰 행정업무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대부분이 지역포교를 관장하기보다는 그저 크기만 큰 사찰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대기설법을 펼쳤다. 하물며 부처님 법을 담은 도량, 그 도량들을 묶은 교구의 외형을 한정 짓고 또, 집착해서야 되겠는가. 고이면 썩는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쳐진다.

세상에 상주(常住)하는 것은 "제행이 무상하다(諸行無常)"는 진리 뿐이다. 하물며 사사로운 이익을 따져 현행 교구제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四柱
子平眞詮 精解
자평진전의 위상
자평진전은 적천수와 더불어 명리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전이다. 중화민국대의 대명학리자 서락오(徐樂吾)의 설을 인용하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평진전을 읽고 난 뒤에 적천수를 읽어야만 적천수의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언하였다.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사주의 격국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음 심효첨 원저 / 신국판 744쪽 /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신제품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영업사원 모집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금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상월원각대조사 탄신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미래세계와 불교

Buddhism and the Future World

대한불교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100주년

불기 2555년 11월 12~13일(음.10.17~10.18) 양일간 대한불교천태종의 중흥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조사님께서 천태종을 중창하신 뜻을 기리고, 변화하는 미래세계에 불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5년 11월 12일~13일(음. 10.17~18)

장 소 : 금강대학교(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주 최 : 대한불교천태종

주 관 :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금강대학교, 금강신문사

※12일, 13일 양일간 버스를 운행(오전 7시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오전 7:30분 서초구민회관 앞)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증 명 : 종정 김도용 대종사

고 문 : 전운덕 윤덕산 주정산

준비위원장 : 총무원장 직무대행 김무원

부 위 원 장 : 김도산 변춘광 권영철 김학송 정병조

위 원 : 김유정 김세운 김용암 오안산 김영제 조용문 정장호 이갈지

지 도 위 원 : 장도정 김동명 용월산 박덕수 김국성 이문덕 조진덕 류화산 김도원 정명구 박무안 김무광 박석구 이덕해 용덕궁 이개문 여문성 고대월 서월궁 김화현 이인산 김법담 최인규 박노승 김형구 정상봉 원무길 최은식 황윤성 김정길 홍영표 장호성 김재창 고우익 김영태 김주식 성낙승 권무원 정재위 전준모 한인수

집행위원장 :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집 행 위 원 : 서윤길 최병헌 김상현 이봉춘 권오민 권탄준 최종석 윤원철 조성택 김용표 우제선 지창규 최기표 고영섭 김승일 최연식 황인규 박태원 황순일 안성두

(이상 무순)

학술대회 일정

12일. 토요일

10:00-10:40 개회식

10:40-12:00 기조발표(Keynote Speech)

권기종(원각불교사상연구원) | 미래세계의 종교와 원각사상

Paul Harrison(Stanford University)

| 미래세계와 불교(Buddhism and the Future World)

12:00-13:30 점심식사

제1섹션 종교는 미래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3:30-17:00 **김용표(동국대)**

| 종교문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의 불교:포스트모던 사조와 관련하여

Asanga Tilakaratne(University of Colombo)

| 종교윤리와 신세계 질서:불교적 비판과 재편

(Religious Ethics and the New World Order:A Buddhist Critique and Reconstruction)

Leonard Swidler(Temple University) | 국제화와 문명 간의 대화

(Globalization and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윤원철(서울대) | 불교수행법의 사회화

武覚超(比叡山延暦寺執行)

| 천태에 있어서 관음사상과 구제의 원리(天台における観音思想と救済の原理)

제2섹션 사회갈등의 조정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13:30-17:00 **정병조(금강대)** | 불교의 경제윤리

Ian Harris(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 불교와 정치(Buddhism and Politics)

紀华传(中國社會科學院) | 빈부·남녀 차별과 불교의 역할(贫富·男女差别与佛教的作用)

유승무(중앙승가대)

| 남북한 사회통합과 불교의 역할: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Vladimir Tihonov(박노자, University of Oslo)

| 불교, 평화주의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미국 불교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Buddhism, Pacifism and Conscientious Objectors:Focusing on the American Buddhist Experience)

13일. 일요일

제3섹션 다문화시대 종교 간의 화합

09:40-12:20 **황순일(동국대)** | 종교 갈등과 불교

이도흠(한양대) | 불교에서 타자의 개념과 자타상생의 길

박해당(서울대) | 불교와 유교의 갈등과 조화:한국의 경우

엄한진(한림대) | 한국 거주 국제이주민에게 종교는 무엇인가?

12:20-14:00 점심식사

제4섹션 과학시대의 불교

14:00-17:00 **최종석(금강대)** | 과학시대의 불교의 인간관

Damien Keown(London University)

| 불교도는 장기기증자가 되어야 하는가?(Should Buddhists be organ donors?)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행동과 의미 그리고 인과율

宋立道(中國佛教文化研究所)

| 현대 생태환경의 곤경과 불교의 생태윤리 자원(现代生态环境的窘迫与佛教的生态伦理资源)

양형진(고려대) | 상대성이론과 무아와 무상

Bernard Faure(Columbia University)

| 불교명상과 뇌과학(Buddhist Meditation and neuroscience)

제5섹션 한국불교, 어디로 가야하는가

09:40-12:20 **조성택(고려대)** | 근대한국불교사 재고:조계종의 민족불교 정체성 비판

Robert Buswell(UCLA)

| 한국불교-대륙적 관점(Korean Buddhism:A Continental Perspective)

신규탁(연세대) | 한국불교에서 出家와 在家의 관계:법회의식을 중심으로

石井公成(駒澤大) | 한·일 불교학의 미래(韓日仏教学の未来)

黃夏年(中國社會科學院 世界宗教研究所)

| 한·중 불교학의 미래(中韩佛教学的未来)

12:20-14:00 점심식사

제6섹션 미래사회와 '圓覺思想'

14:00-17:00 **김상현(동국대)** | 상월원각의 불교개혁사상

세운스님(천태종) | 불교수행의 새로운 지평:'일심청정 관음주송'

이봉춘(동국대) | 미래사회와 한국천태종

李四龙(北京大) | 천태지관의 현대적 의의(天台止观的现代意义)

多田孝正(大正大) | 마하지관과 중생구제(摩訶止観と衆生救済)

※발표자와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